





04

12

14

18

28

Contents

- 인사말 Greetings
- 개요 Overview
- 프로그램 Program
- 참가자 프로필 Participants Profile
- 발표자료 Presentation Reference



안녕하십니까?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아·태네트워크 의장, 허성무 창원시장입니다.

너른 평야와 역동적인 항만이 어우러진 도시 당진에서 「제9회 IAEC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홍장 당진시장님과 국제교육도시연합 마리나 커널스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으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신 네팔 바하랏 시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장님과 교육도시 관계자 여러분, 이클레이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의 도시들에게 '지속가능성'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 나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빈곤퇴치, 양성평등,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생태계 보호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하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은 그 자체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회원도시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는 어느 도시보다 앞서 미래를 생각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곳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지방정부들이 함께한 만큼, 그간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풍성한 회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IAEC 회원도시들과 세계지방정부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말을 빌려 글을 맺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나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찾던 변화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 길을 마다않고 참석해주신 각 도시의 대표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I am Heo Seong-moo,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IAEC) Asia-Pacific Network and Changwon Mayor.

It is very meaningful to hold the "9th IAEC Asia-Pacific Network Regional Meeting" in the city of Dangjin where wide plains are in harmony with a dynamic port. I would like to express deep gratitude to Dangjin Mayor Kim Hong-jang and IAEC Director General Canals Marina who have extended unstinted support of this occasion. I also give thanks to Mayor Bharat from Nepal, head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es, parties concerned with educating cities, ICLEI officials for your attendance.

"Sustainability" has become a pretty important task for contemporary cities.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are prerequisites for a better and happy city for citizens. To realize subordinate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poverty eradication, gender equality,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rotection of the ecosystem. It is education. "Inclusive and equal education of decent quality" itself is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AEC" member cities and "ICLEI" here today are thinking about the future and leading changes.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committed to a better future at their given situations, have gathered here together. Therefore, I believe that this will be a fruitful meeting where they can share their concerns, achievements and ideas.

It is not easy to create a sustainable, educating city. In this regard, I want to express my respect for the efforts of IAEC member cities and ICLEI officials that continue to walk this tough road together.

Finally, I want to finish my remarks by quoting from a speech from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Change will not come if we wait for some other person or some other time. We are the change that we seek."

I am confident that a change will start here today. Once again, I appreciate city representatives from far away and wish all of you health and happiness.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장 김홍장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을 위한 "제9회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지역회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진시를 방문해 주신 IAEC 사무국과 국 내·외 국제교육도시연합 회원도시를 비롯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 지역회의를 위해 당진에 찾아주신 여러분을 17만 당진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황금들녘이 풍요로운 당진에서의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을 주제로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를 교육을 통해 극복해나가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한 모든 인류가 상호 관심과 협력의 정신으로써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교육 목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논의에서 교육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국경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국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질병과 대기오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과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도 더욱 심화되고, 인권, 환경, 전염병 등 전 지구적 문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지구적인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고, 특정한 국가나 집단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포용적인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한사람 한 사람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을 위해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발전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교육이 일일이 해결책을 제시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교육없이' 해결책을 찾는 것 또한 요원한 일입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은 교육을 인간 생활의 근원으로 보고 지방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스며드는 전 과정을 교육의 일환으로 인지하여, 교육도시헌장을 준수하고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야말로 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노동력과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 세계 지방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교육기회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동시에 사회 내에서 계층, 젠더, 인종, 지역, 장애 등 어떠한 차별 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인본주의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새로운 발전모델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교육의 양적확대를 넘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오늘 우리 당진시에서 개최되는 제9회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지역회의가그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회의가 세계의 지방정부간에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에 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교류의 장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시에 머무는 동안 즐겁고 평안한 여정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Good morning. I am Kim Hong-jang, Mayor of Dangin City.
I extend my congratulations on the "9t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IAEC) Asia-Pacific Network Meeting" for sustainable cities and education for coexistence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 warmly welcome with 170,000 Dangin citizens, the IAEC Secretariat, member cities from home and abroad, and all of you visiting our city for this meeting.

In Dangin with golden fields of crops, this meeting is held to overcome crises that threaten survival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under the theme of "sustainable cities and education."

Education is essential to spread culture and protect human dignity for justice, freedom, and peace. It is also a divine duty for the mankind to fulfill with a spirit of mutual care and cooperation.

It is significant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for which international community works together include educational goals because it implies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hat educational progress became a crucial task in discussing sustainable future.

Unlike our world, challenges across the globe defy national borders. We face global problems like trans-boundary disease and air pollution. Expanding globalization has deepened mutual dependence and connectivity of the world and global issues such as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infectious disease. However, they cannot be attributed to any individual country, and resolved by efforts of a specific country or organization. This means that the change in mindset of each individual is what matters most for inclusiv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a sustainable world, and we should now gather our wisdom for education that fulfills that objective. The IAEC views education as a foundation of human life and thus the whole process of implementing municipal policy as part of education. Therefore, the agency guides local governments to observe the Charter of Educating Cities and presents them with a direction for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educational issue should have higher priority than other policies.

At a time that requires a new workforce and paradigm shift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ocal governments of the world as responsible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to pay attention to increasing education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cities and endeavor to make everyone obtain education opportunities of good quality with no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class, gender, race, region and disability.

I think that a humanis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education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a new model for progress and it must actually do so. International community reached a consensus that discussion should be made on the direction for future education to pursue better education quality, rather than just expand education quantitatively. In that sense, I expect the "9th IAEC Asia-Pacific Network Meeting held today here in the city of Dangin will lay its foundation.

Once again, I hope that today's meeting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where world local governments intensify their exchanges by sharing best cases for sustainable cities and education and exploring practical cooperation measures. I wish you a pleasant and comfortable time during your short stay in our city. Thank you.





축사

│ **마리나 커널스** (스페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사무총장

"도시는 모든 거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자연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며, 무엇보다 거주, 취업, 여가 및 대중 교통 이용에 대한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보건 교육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해 모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학습 도시 헌장 11장

다시 한국을 방문해 환경, 사회, 문화, 경제적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더욱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많은 지방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의제이며, 창원시에서 개최한 제12회 국제교육회의에서 큰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양일간 진행될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시 변화와 더욱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에 대한 인간 행동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필수적인 변화에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핵심 인권 협약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완전한 발전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초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본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아시아 태평양 회의가 여러분께서 협력적 조치를 취하고 도시 계획, 교통, 에너지, 경제, 도시 농업, 평생학습, 청소년, 참여, 관광 등 다른 도시 부서와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영역은 더욱 지속 가능한 도시를 함께 건설할 의무가 있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각 도시를 운영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 인프라를 혁신하고 탈바꿈하는 것, 생태 교통과 생물다양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공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점과 참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기 위해 참여 가능한 플랫폼 및 공동체 심의 단체 구축, 시민 참여 장려 및 의사결정 참여 권한 부여를 통해 더욱 민주적, 포용적, 생태학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양한 연령, 성별, 출신, 능력, 배경의 거주민들이 더 강하고, 상호 연결된 포용적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지식과 재능을 기부하도록 장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 및 시골 지역의 거주민들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방식을 적용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를 돌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 예방 전략과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틀에서 교육은 습관과 생활방식을 바꾸고 더욱 화합하는 도시 건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중, 인권 증진, 윤리적·문화적 가치를 배양하여 더욱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교육 도시로서 우리는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 가능한 삶이 중요하고, 바람직하고, 또 성취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도록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지우지 않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





"The city must guarante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its inhabitants. This requires creating a balance with its natural surroundings, providing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s well as the right to housing, employment, leisure and public transportation, amongst others. At the same time, the city shall actively promote health educ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all its inhabitants in the best practic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11, Charter of Educating Cities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be back to Korea to reflect, discuss and exchange with you on how to build more sustainable cities from an environmental approach but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dimensions. This issue is at the top of the local agenda of many local governments and is of great interest for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as was proved by the massive response that the 12th International Congress of Educating Cities held in Changwon City (Rep of Korea) received.

I hope that th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hat will follow during these two days will show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transforming cities and human behaviours towards a more sustainable urban living.

I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education plays a key role in this necessary transformation for it is recognized by the core human rights treaties as a fundamental right, aiming at unlocking the full development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t is our wish that this IAEC Asia Pacific meeting will serve as a stimulus for you to undertake cooperative actions and to set up effective policies with different City departments such as urban planning, transportation, energy, economy and urban agriculture as well as the lifelong learning department, youth, participation, tourism, etc. All of them must have a say and can play an active role in co-building a more sustainable city.

We also urge you to work to introduce changes in the way your cities are governed. Do not be afraid to be innovative and to update city infrastructures by applying sustainable criteria; to devise effective policies on public space, based on ecomobility and biodiversity criteria.

We invite you to move towards a more democratic, inclusive and ecological governance by fostering citizen participation, empowering people to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by setting up participative platforms and community deliberation groups, in order to bring to the table the diversity of views and needs of the population.

We also invite you to set up volunteering programs and to encourage inhabitants of different ages, genders, origins, abilities and backgrounds to contribute with their knowledge and talents to build stronger,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communities.

We encourage you to motivate urban and rural dwellers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to adopt sustainable pattern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to fight climate change. You can implement health and prevention strategies and awareness raising campaigns aimed at improving the state of health and wellbeing of the population and to develop caring and supportive attitudes towards others. In this framework, education plays a major role in changing habits and lifestyles and in building more cohesive cities.

By fostering values such as respect for people and nature, and promoting human rights, and ethical and cultural values you will be also contributing to a more sustainable society.

We, as Educating Cities must work to provide creative education for citizens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increase awareness that sustainable living is important, desirable, and achievable.

Urgent action is needed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satisfies our present needs without risking that future generations meet their own needs!









박연희 (대한민국)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당진시의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지역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양질의 교육은 다음 세대의 삶을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영역이며, UN의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도 4번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환경, 사회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인식과 활동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을 주제로 교육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활용하는지,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역량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이며 방법론인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교류와 학습은 현재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지혜와 새로운 영감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당진시는 2017년부터 이클레이와 인연을 맺었고, 「지속가능성」을 시정의 중심가치로 하고 있는 선도적인 한국의 지방 정부입니다. 일찍이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포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 가능발전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있어 이미,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체계를 선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에너지는 '교육'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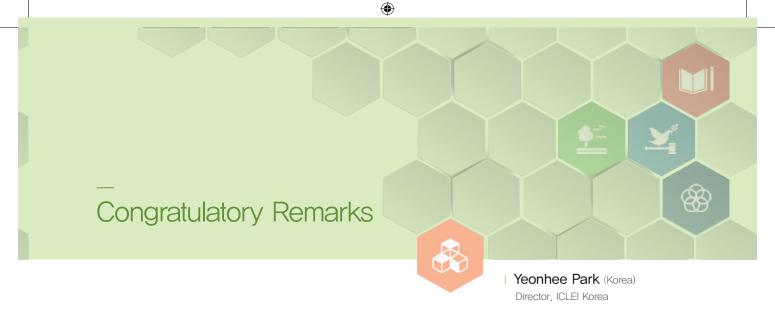
이번 회의를 통해 당진시를 비롯한 각지의 교육도시들이 저탄소도시(Low Carbon City), 회복력있는 도시(Resilient City), 순환도시 (Circular City), 자연기반의 도시 (Nature-Based City),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Equitable & Peoplecentered City)를 향해 발돋움을 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토록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클레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당진시를 활동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선도적인 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이어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Dangjin City for hosting the IAE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Asia-Pacific Network Meeting.

High-quality education is an important sector, which serves a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guarantee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the next generation, and is presented as the fourth goal among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posed by the UN. Especially, the education based on the awareness and activities reflecting all relevant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is increasingly important under the nam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This meeting poses a tremendous opportunity to explore various ways on how education can make contributions to the materialization of a sustainable city under the theme of 'Sustainable City and Education.' I look forward to the meeting as it offers a chance to share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how local and foreign municipal governments implemen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w each region utilizes education to realize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how useful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as a tool and methodology to strength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capabilities of civil society to push ahea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informative exchanges and learning will provide us wisdom and new inspiration that help us reflect the needs of both the current and next generations.

Dangjin City formed and has maintained its relationship with ICLEI since 2017 as one of the advanced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at pursues 「sustainability」 as its core value. Dangjin is leading in terms of a system to carry out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s the city has long proclaimed the 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stablished the basic and action plans, with a division exclusivel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ing put in place. 'Education' will surely provide a momentum and energy to the system to ensure it is managed in an efficient manner without a glitch.

I hope this meeting helps not only Dangjin but other education cities nationwide take a step forward toward building a Low Carbon city that is Resilient, Circular, Nature-Based, and Equitable & People-centered. I would like to thank distinguished guests for attending this meaningful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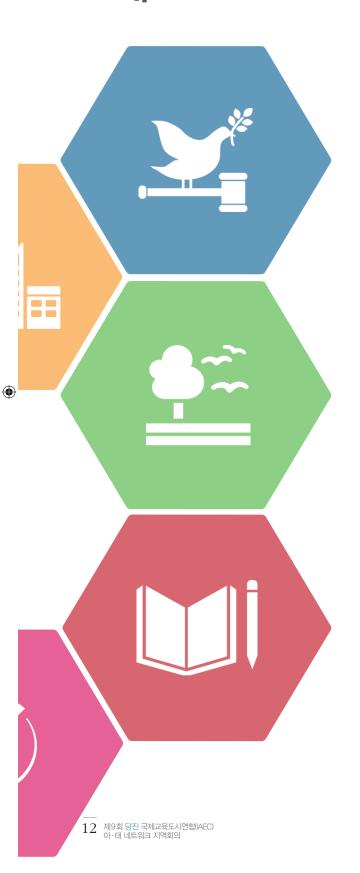
ICLEI will continuously provide support to and advocate for Dangjin's various efforts and activ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hopes that the city maintains its status and role as a leader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nk you.







개요 Overview





회의개요

회의명

2019 제9회 IAEC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

주제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

기간

2019. 10. 17.(목) ~ 10. 18.(금)

장소

당진시 신성대학교

주관

당진시

주최

경남 창원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사무국

흐워

충청남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신성대학교

참가규모

200여명

국외: 8명 (6개국 7개도시)

스페인(2), 벨기에(1), 호주(1), 폴란드(1),

일본(1), 네팔(2)

국내: 190여명(26개 회원도시 및 단체, 시민)

주요행사

개회식 / 시장단 원탁회의 / 선언문 채택 / 기조강연 / 사례발표 / 환영만찬 / 주제발표 등







Conference Overview

Title

2019 The 9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Theme

The Sustainable City and Education

Period

2days. Oct. 17(THU) \sim 18(FRI), 2019

Venue

Shinsung University, Dangjin city, Reperblic of Korea

Hosted by

Dangjin city

Organized by

Changwon city, IAEC(International Assocication of Educating Cities)

Assisted by

The Province of Chungcheongnam—do,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Chungcheongnam—do Institue for Lifelong Educat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CLEI Korea, Korean Association of Lifelong Learning Cities, Shinsung University

Participants

200 people(IAEC Member and citizens etc,.)
International Participants: 6 countries, 8 people
Spain, Belguim, Australia, Poland, Japan, Nepal
Korean IAEC Member cities and citizens: 190 people

Major Event

Opening Ceremony / Mayor's Round table / Keynote Speech / Welcome Dinner / Best Practice / Study Tour etc..





프로그램 Program

1일차 10.17.(목)

시간			JUG.	
부터	까지	소요	내용	
12:30	13:30	60분	등록	
13:30	14:00	30분	• 학습동아리 축하공연	
14:00	14:30	30분	 [개회식] 내빈 소개 개회사 허성무(창원시장) 환영사 김홍장(당진시장) 축사 Marina Canals Ramoneda(IAEC 사무총장) 축사 박연희(이클레이한국사무소소장) IAEC 아·태네트워크 신규회원도시 기념패 수여 (창원시장 → 서울 강서구청장, 대구 북구청장) 	
14:30	15:20	50분	[기조강연] •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 - John Fien교수(호주RMIT대학)	
15:20	15:30	10분	[Tea Time]	
15:30	16:20	50분	[시장단 원탁회의]	
16:20	16:30	10분	[Tea Time]	
16:30	18:00	90분	[사례발표] • 한국 도시 2개(대구 수성구 / 당진시) • 해외 도시 2개(벨기에 브뤼셀 / 폴란드 카토비체) • 질의응답	
30분 만찬장 이동				
18:30	21:30	120분	[환영 만찬 및 교류의 장] 사회: 정영환(당진시 평생학습체육과장) •학습동아리 공연 •교류의 장	

¹⁴ 제9회 당진 국제교육도시연합(AEC)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





2일차 10.18.(금)

시간			 	
부터	까지	소요	내용 	
09:30	10:00	30분	• 2일차 등록 및 홍보영상 상영(IAEC/당진시)	
10:00	11:40	100분	[주제발표] 좌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 이선경 교수(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장) [사례발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 적용사례 • 한국 우수 사례 2개(오산시/원주시) • 해외 우수 사례 2개(일본 추부/스페인 카탈루냐(바르셀로나)) • 질의응답	
11:40	12:30	50분	[폐회식] • IAEC 소개 Marina Canals Ramoneda(IAEC 사무총장) • 2020 IAEC 세계총회 홍보 폴란드 • 폐회사 김홍장(당진시장)	
12:30	14:00	90분	[오찬]	
14:00	17:00	180분	[문화탐방] 신리성지 ▶ 신평여성청소년센터 ▶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①

신리성지 | 조선의 카타콤바 신리성지

1866년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뤼 안토니오 주교가 한국 천주교회사를 위한 비망기를 이곳에서 집필하여, 조선의 카타콤바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공원에 둘러싸인 다블뤼주교가 거주하던 주교관은 초기 천주교 탄압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 국내외 줄다리기 관련 자료 및 각종체험 가능

500년 전통의 중요무형문화제 제 75호인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 줄다리기를 비롯하여 국내외 줄다리기 관련 자료 및 각종 체험사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신평여성청소년센터 | 충남도내 최초

마을계획 수립 등 마을의 현안 토론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신평면 지역 동아리 및 지역주민들의 모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이곳 은 지난 2017년 7월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소년 100인 토론회 당시 청소년들이 제안해 실제 사업화로 성공한 첫 사례로 지역주민의 사업 제안과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해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공간이다.



Program

Day 1. [Thursday, 17 October, 2019]

시간			IIIQ	
부터	까지	소요	내용	
12:30	13:30	60분	Registration	
13:30	14:00	30분	Opening Performance	
14:00	14:30	30분	 [Opening] Introduction of Guests Opening Remarks Congratulatory Remarks(IAEC / ICLEI) Membership Celebration(Changwon) 	
14:30	15:20	50분	[Keynote Lecture]Sustainable City and EducationProfessor John Fien, RMIT University, Austrailia	
15:20	15:30	10분	[Tea Time]	
15:30	16:20	50분	[Mayor's Table] Moderator by IAEC [Mayor's Declaration] Read Declaration [Memorable group performance & Group Photo] All Participants	
16:20	16:30	10분	[Tea Time]	
16:30	18:00	90분	[Best Practices] • Daegu Suseong-gu(Korea) • Dangjin(Korea) • Brussels(Belgium) • Katowice (Poland)	
30분 만찬장 이동				
18:30	21:30	120분	[Welcome Dinner by Dangjin]	











Day 2. [Friday, 18 October, 2019]

시간			1110	
부터	까지	소요	내용	
09:30	10:00	30분	Registration & Promotion(IAEC/Dangjin city)	
			[Subject Presentation & Best practices] Moderator(ICLEI Korea) [Subject Presentation] SDGs and Educating City	
10:00	11:40	100분	[Best Practices]Osan(Korea)Wonju SDG Center(Korea)Chubu(Japan)Catalonia(Spain) / Barcelona	
11:40	12:30	50분	[Closing] Introduction of IAEC: IAEC Secretariat 2020 IAEC World Congress: Katowice Closing remarks by Dangjin city	
12:30	14:00	90분	[Lunch]	
14:00	17:00	180분	[Culture tour] Sinri Shrine ▶ Shinpyeong Women and Youth Center ▶ Tug of war	



신리성지 | 조선의 카타콤바 신리성지

1866년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뤼 안토니오 주교가 한국 천주교회사를 위한 비망기를 이곳에서 집필하여, 조선의 카타콤바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공원에 둘러싸인 다블뤼주교가 거주하던 주교관은 초기 천주교 탄압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 국내외 줄다리기 관련 자료 및 각종체험 가능

500년 전통의 중요무형문화제 제 75호인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 줄다리기를 비롯하여 국내외 줄다리기 관련 자료 및 각종 체험사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신평여성청소년센터 | 충남도내 최초

마을계획 수립 등 마을의 현안 토론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신평면 지역 동이리 및 지역주민들의 모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이곳 은 지난 2017년 7월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소년 100인 토론회 당시 청소년들이 제안해 실제 사업화로 성공한 첫 사례로 지역주민의 사업 제안과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해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공간이다.





참가자 프로필 Participants Profile





○○ M 시장단 원탁회의 참가자 프로필 Profile of Mayor's Roundtable



* 진행자 Host

마리나 커널스 Marina Canals Ramoneda IAEC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of IAEC

Bachelor's degre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by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UAB). She also has studies in Business Management by the University of Barcelona(UB). She has worked as freelance in the organization of events and meetings for several companies and institutions. From 1989-1996, worked for the European Childcare Network of the Equal Opportunities Unit of the European Commission. With regar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she has held different positions since 1988 when she integrated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Since September 2012, She acts as IAEC General secretary. Her experience is the fruit of formal education combined with more than 25 years' work and exchange with cities and experts around the world. Being a mother of 4 children, makes her being constantly striving to learn new things. She is involved in several ONGs associations and sings in choir.

스페인 자치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통번역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수학했다. 다수의 기업 및 기관을 위해 행사ㆍ회의 기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1989년 \sim 1996년까지 유럽 위원회의 평등기회 보육네트워크에서 근무했다. 1988 년 제1회 국제회의 조직위원회에 통합된 이후,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에서는 다른 직무를 맡고 있다.

2012년 9월 국제교육도시연합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마리나의 지난 경력은 25년간의 업무 경험을 결합한 정규 교육과 다른 도시와의 교 류. 전세계 전문가의 결실이다. 네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한 마리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다수의 비정부 기구(ONGs) 협회와 합창단 활동도 하고 있다.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허성무 Sungmoo Huh 창원시장 Mayor of Changwon

Education

Mar. 1983 \sim Feb. 1988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Career

Feb. 2015 \sim Apr. 2016 Deputy Secretary General of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Sep. 2016 \sim Panel on Current Affairs programs such as JTBC, MBN, TV Chosun, and CBS

Apr. rud2017 \sim Jun. 2018 visiting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Jun. 2018 \sim the third mayor of the seventh popularly elected Changwon City

력 1983. 03. ~ 1988. 02.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2016. 09. ~ JTBC, MBN, TV조선, CBS 등 시사패널 출연 2017. 04. ~ 2018. 06. 경남대 호빙교수

2018. 07. \sim 민선7기 제3대 창원시장

18 제9회 당진 국제교육도시연합(AEC)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

(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김홍장 Hongjang Kim 당진시장 Mayor of Dangjin

Dangjin Mayor Kim Hong-jang has been committed to creating a new vision and conducting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Dangjin based on his "people-centered" philosophy, while he has been 2nd and 3rd mayor of the city from 2014. He served as a member and vice chairman of the 8th and 9th Chungcheongnamdo Provincial Assembly, member of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nd commissioner for the Dangjin Office of Education, the Research Foundation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Roh Moo Hyun Foundation. He majored in NGO stud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t a university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policy sciences at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Civic Engagement. He won Korea's Hope, Culture And Welfare Top 10 People Award (2019), Journalism Award for International Peace in Administrative Development (2019), Local Agricultural Leader Award (2018), Sochung Saseon Culture Award (2017), Korea's influential CEO Sustainable Business Management Award (2017), etc.

김홍장 당진시장은 2014년부터 제2대, 제3대 당진시장으로 헌신하며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당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제8대, 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지내며 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김홍장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당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 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기획위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위원등을 역임했다. 대학에서 NOG(민간기구·시민단체)학을 전공하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수상내역으로는 대한민국 희망문화복지 10인 대상(2019), 국제평화언론대상 행정발전공헌(2019), 지역농업발전 선도인 (2018), 소충사선문화상 본상(2017), 한국의 영향력있는 CEO 지속가능 경영부문(2017)등을 수상하였다.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홍성주 Sungjoo Hong 대구 수성구 부구청장 Deputy Mayor of of Suseong-gu, Daegu

Education

2011 : graduate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in the UK

Career

2015 : learned at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2016: Director General for policy planning in Daegu City

2017 : the director of Construction Headquarters February 9, 2018 \sim : Deputy Mayor of Suseong Distric

학 력 2011년 : 영국 쉐필드 대학 졸업 (정치학)

주요경력

2015년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2016년 : 대구시 정책기획관

2017년 : 건설교통국장 2018년 : 2월 9일 ~ 현재 : 부구청장





참가자 프로필 Participants Profile





○ M 시장단 원탁회의 참가자 프로필 Profile of Mayor's Roundtable



* 네팔 Napal

바라트 바하두르 K.C. Bharat Bahadur K.C. 비멧슈와르시장 Mayor of Bhimeshar Municipality

I am Bharat Bahadur KC from Bhimeshar Municipality of Dolakha district, Provice 3, Nepal. I am Mayor of this Municipality, elected in local election held in May, 2017 for five years' term.

Nepal is a party to CRC 1989 under which Nepal Government has promulgated " Child Friendly Local Governance National Strategy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According to the guideline Bhimeshwar Municipality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in all 39 indicators of Child right; right to live,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development and right to development and right to participation and the Municipality has declared as Child Friendly City on 15th September, 2019. We have guaranteed 15% of total capital budget of Municipality after declaration for children in education and other activities of overall child development.

I am an advocate academically. I have worked as chairperson of Nepal Bar Association for two terms and member of Nepal Bar Council for a term. I have visited Sri-Lanka, Bangladesh, Norway and Australia including People's Republic of Korea before this for study tour.

Now I am serving my city as Mayor. I have been engaged in politics from my school life and will spend rest of my life contributing social development and national politics of Nepal.

바라트 바하두르 K.C.(Bharat Bahadur K.C.)는 네팔 제3 지방 돌라 카 지구에 위치한 비 멧슈와 르의 시장으로, 2017년 5월 지방 선 거에서 5년 임기로 당선되었다.

네팔 정부가 널리 알려온 '아동 친화적 지방 관리 국가 전략 및 시행 지침'에 따라 네팔은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1989)'의 당사국이 되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비 멧슈와 르 지방 당국은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할 권리 등 아 동 권리에 대한 39개 지표에 대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2019년 9월 15일 아동 친화 도시를 선언했다.

비 멧슈와 르에서는 아동의 교육 및 전반적인 발달 활동 선언 이후, 지자체 총 자본예산의 15%를 보장하고 있다.

바라트 바하두르 K.C. 시장은 학문적 옹호론자다. 네팔 법조 협회 회장으로 두 번의 임기를 역임했고, 네팔 변호사 협회 회원으로 첫 번째 임기를 지냈다. 이전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호주, 북한을 방문했고, 현재 비 멧슈와 르 시를 위해 일하고 있다. 학창 시절부터 정치에 몸담았으며, 앞으로도 네팔의 사회 발전 및 국가 정치에 기여할 것이다.











* 벨기에 Begium

올리버 다스 도레스 다 실바 Olivier Das Dores Da Silva

브뤼셀 공공교육부프로젝트매니저

Project Manage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Brussels

I have been working for the City of Brussels since 2005 and as a project manage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since 2012. In this specific case, I lead innovative and transversal projects for schools. I deal with security issues around schools, in partnership with the local police and I also coordinate mobility projects (around the schools) in partnership with the road and mobility departments. I am firmly convinced that behavioral changes in school mobility are possible. To be able to set up these innovative projects, it is necessary to listen, take the time to analyze and propose several ways to achieve the desired objective while mobilizing as much as possible the concerned actors.

On your own you can go faster, but together we can go further.

2005년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했으며, 2012년부터 공공 교육부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특히 학교를 위한 혁신적ㆍ횡단적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학교 보안 문제를 다루며, 도로ㆍ교통 부서와 함께 학교 주변의 이동수단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학교 이동수단 문제에 대해 행동 변화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혁신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이해 관계자를 동원하는 한편, 경청하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분석ㆍ제안해야 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 폴란드 Poland

마르친 크루파 Marcin Krupa 카토비체시장 Mayor of Katowice

He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Katowice - he was born, works and lives here. A graduate of the Faculty of Transport at the Silesian University of Technology. In 2005 he defended his doctoral dissertation in the field of Machin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then worked as an adjunct at the same university. He also completed post-graduate studie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He is an expert in the assessment of EU projects within the framework of Regional Operational Programme for the Silesian Voivodeship and an expert in motor vehicles appraisals.

In the years 2006–2010 he was the member of the Katowice City Council and in the years 2010–2014 the Deputy Mayor responsible for such key areas in the city policy as: strategic planning, development of transport system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municipal services, spatial planning and development, civil engineering. In 2014 he announced his election program - "Agreementwith the inhabitants of Katowice" and was elected mayor of Katowice.

마르친 크루파(Marcin Krupa)는 언제나 카토비체와 연관되어 있었다. 카토비체에서 태어났고,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폴란드 실레 지아 공과 대학 운송학부를 졸업하고, 2005년 기계 건설 및 운영 분야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동대학에서 부교수로 근무했으며, 조직 관리 분야에서도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실레 지아 주 지역 운영 프로그램의 구조 내 EU 프로젝트 평가 전문가이자 자동차 평가 전문가이다.

 $2006년 \sim 2010년까지 카토비체 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2010년 <math>\sim 2014년까지 전략적 계획,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환경 보호 및 관리, 지자체 서비스, 공간 계획 및 개발, 토목 공학 등 도시 내 주요 분야를 맡아 부사장을 역임했다. <math>2014년 선거 프로그램인 '카토비체 거주민 협약'을 발표했고, 카토비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주요 참가자 프로필 VIPs Profile





기조발표 Key Lecturer



* 호주 Australia

존 핀 John Fien

RMIT대학교 교수 Professor, RMIT University

John Fien is a Professor in the School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at RMIT University, Melboune, Australia, where he teaches courses on Building Urban Resilience and Climate Change, Design and Development. He has also held positions as a Professor of Leadership and Professor of Sustainability. Prior to his work on cities, he was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Education, specializing on how education,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can help ensure that government officers, government officers and communities can develop the knowledge, skills and values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존 핀(John Fien)은 호주 멜버른 시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교의 건축 및 도시 설계 대학 교수다. 이곳에서 도시 방재력 구축 및 기후 변화, 설계 및 개발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리더십 교수이자 지속가능성 교수로서 지위를 역임하고 있다. 도시에 대한 연구 이전에, 존 피엔은 교육, 훈련, 역량 구축을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식과 기술, 가치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환경교육 교수다.





사례발표 Subject Presentation & Best Practices



이희욱 Huiuk Lee 대구 수성구 평생교육과장 Head of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Suseong District Office in Daegu

After I took a new work different from general administration I had been engaged in for about 30 years, I realized that lifelong learning of residents is crucial in change of this city. As a public servant with a sense of mission about urban change and administration, I also reached a perception that what matters mos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participation and initiative of citizens and education can catalyze it. So I will strive to vitalize education in all fields of the cit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지금까지 30여년의 행정 경험 중 일반 행정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요즘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도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변화와 행정의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저에게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의 참여와 주도성이고 교육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도시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박연희 Yeonhui Park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Director, ICLEI Korea

Yeonhee used to work as the Diroctor of International Program in Agenda21 Action Council of Gyeonggi-do (GGAG21) for 10 years. She has been dedicated to various international programs, engendering Local Agenda21, and Gyeonggi Agenda21 Monitoring program. Since joining ICLEI Korea Office as the Director in 2012, she has been making a efforts to introduce global tools and initiatives on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o South Korea focusing on the Local actions for Climate change, biodiversity, and ecomobility. By successfully delivering a range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with quality supervision, such as; Local & Regional Government process of 7th World Water Forum in 2015, Biodiversity Summit for Cities & Subnational Governments in 2014, and EcoMobility World Festival project in Suwon in cooperation with Suwon City and ICLEI World Secretariat 2013, she has been striving for highlighting the critical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delivering the voices of local governments to the global negotiation tab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박연희 소장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푸른경기21)에서 국제협력국장으로 10년 간 근무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국내 확산을 위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왔으며, 여러가지 국제프로그램과 지방의제21의 국내 활성화, 그리고 경기도 의제21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주도하였다. 2012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그리고 생태교통을 위한 지역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국제적 도구와 이니셔티브를 국내에 도입하는 일에 주력해 왔다. 또한2015 7차 세계물포럼, 2014 생물다양성 지방정부정상회의, 2013 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과 같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 회의와 행사를 주관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간 논의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사례발표 Subject Presentation & Best Practices



이선경 Sunkyung Lee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Professor, Cheongi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r. Sun-Kyung Lee is Professor of Science Education at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Korea. Sh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ES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ince her contribution of policy development of national strategy for UN Decade of ESD in Korea in 2005. Professor Lee is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2018-2019, and she has served as a Chair of ESD Committee in Korea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since 2018. Professor Lee well understands the demands of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SD, and has shown distinguished activities with TEEN (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among China, Japan and Korea). ENSI (Environment and School Initiatives) and UNESCO.

이선경 교수는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로, 2005년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교육 이니셔티브(UN Decade of ESD 2005-2014)를 위한 한국 국가 전략 정책 개발에 참여한 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SD)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이선경 교수는 2018년 ~ 2019년까지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환경교육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에 대해 긴밀한 국제적 협력 요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중일 환경교육네트워크(TEEN) 와 환경 학교 이니셔티브(ENS), 유네스코와 협업을 통해 뛰어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The 9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주요 참가자 프로필 VIPs Profile





사례발표 Subject Presentation & Best Practices



박훈 Hoon Park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Director Sustainable Development Officer Dangjin City

Park Hoon is the Dangjin City Hall Officer in char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pervis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of Dangjin City.

He has an extraordinary career as an engineer, sustainable development activist, and administrative official.

From 2001, he accumulated experiences about field activities and social theori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Local Agenda 21 Institution, and from 2010, planned policies such as those for living quality, slow city and rural revitalization at the Jeollabuk-do government.

He emphasizes that a core el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building up mature capacity of the private sector, and that this can be exerted based on an educational principle in respect of diversity and creativity and a democratic and efficient system.

현재 당진시청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며 당진시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총괄조정을 맡고 있다. 엔지니어, 지속가능발전 현장활동가, 행정관 료의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다. 2001년부터 지방의제21추진기구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현장활동과 사회이론의 경험을 축적하고 2010년 부터는 전라북도청 삶의질정책, 슬로시티정책, 농촌활력정책을 기획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는 민간의 성숙한 역량의 축적이며 이는 다양성과 창의력이 존중되는 교육원칙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에서 발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국 Sangguk Lee 오산시 평생학습과장 Head of Lifelong Learning Department, Osan City

Manager Lee Sang-guk is the head of a department in charg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of Osan City.

He played a main role in transforming schools to become a place where students could develop their dream and talent through an innovative education program starting from 2010, the priority business of Mayor Kwak Sang Wok.

이상국 과장은 오산시 초중.고생의 교육과 성인들의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다. 2010년부터 곽상욱(Sangwok Kwak) 시장의 최우선 과제인 혁신 교육정책사업에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교로 변화를 이끌어낸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한 공교육의 변화는 성인들의 평생학습으로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오산전역을 배움터로 조성함으로써 오산을 대한민국의 대 표적인 교육도시로 조성했다.







후루사와 리에타 Reita Furusawa 추부대학교 추부지속가능발전센터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Chubu University & Chubu RCE

Reita Furusawa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Chubu University. Graduated from the doctoral course of the Graduate School of Letters, Nagoya University in 2007. Joined Chubu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Chubu University as a researcher in 2007. Served as a lecturer from 2011 and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International ESD Center (Currently, International ESD/SDGs Center), Chubu University since 2014. One of founding members and serving as secretary general of RCE Chubu (United Nations University's acknowledged 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SD) since 2008. Majoring in anthropology, and conducting urban anthropological research in Ghana, west Africa. Served as a coordinator of an official workshop during the World Conference on ESD organized by UNESCO in 2014. The major publication is "Challenging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Ten Years of RCE Chubu's UN Decade of ESD" (2019).

리에타 후루사와(Reita Furusawa) 교수는 일본 중부 대학의 부교수로, 2007년 나고야 대학교 문학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2007년 중부 대학 중부 연구소 고등 학술 연구에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2011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며, 국제 ESD 센터(현 국제 ESD/SDGs 센터) 부교수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 중부 대학에 부임했으며, 중부 지역 전문가 센터(RCE, 유엔 대학교의 승인을 받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역 전문가 센터)의 창립 멤버이자 2008년 이후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인류학을 전공했으며,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도시 인류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유네스코가 주최한 ESD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기간 동안 공식 현장의 진행을 맡았다. 리에타 교수의 주요 출판물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도전과제: 중부 지역 전문가 센터의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교육 이니셔티브 10년(2019)'이 있다.



제현수 Hyounsoo Je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Direter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2001, he has been working at the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e currently serves as Education chairperson of the Local Sustainability Aliance of Korea and teaches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Yonsei University's Undergraduate Education Center.

From 2009 to 2018, he has served 10 ye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projects in Wonju, and is experimenting with various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models based on the community.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학부교육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원주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인 관점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주요 참가자 프로필 VIPs Profile





★ 사례발표 Subject Presentation & Best Practices



나초 마르카더 Mercader Natxo

바르셀로나 시의회 환경교육평가사

Environmental Education Assessor, Barcelona City Council, Spain

Natxo is an environmental educator and naturalist. He holds a BSc in Geography and a Postgraduated Diploma Certificate in Advanced Geography Studies, both at the University of Barcelona. Natxo has spread the sustainability culture through different territory scales: from the national level (as part of the Government of Catalonia), to the regional level (Green Schools Programme) and local level (Agenda 21). In addition, he has been involved in the education field in Brazil, occasionally collaborating with the São Sebatião Faculty University (São Paulo) on the BSc in Pedagogy. For the last 8 years, he has been working as an Environmental Education Assessor for the Escoles+Sostenibles Programme in Barcelona. His role in the programme involves providing support to educational centers in developing their sustainable projects.

나초(Natxo)는 환경 교육가이자 동식물 연구가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지리학 분야 이학사와 고등 지리학 학술 연구로 석사 학 위를 취득했다. 카탈로니아 정부와 같이 국가적 수준부터 녹색 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지방 및 의제 21의 지역적 수준까지 다양한 영토 범위를 통해 지속 가능성 문화를 널리 알려왔다. 또한, 브라질의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상파울루 대학교의 교육학 이학사 연 구에 대해서도 협업을 하고 있다. 지난 8년간 환경교육 평가자로서 바르셀로나의 교육 및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을 하며, 지 속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 시 교육 센터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발표자료 Presentation Reference





030	공동	선언문	Joint Declaration

032 기조강연 Keynote Speech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

The Sustainable City and Education

사례발표 Best Practices

- 064 대구 수성구(대한민국) Suseong-gu, Dae-gu, Republic of Korea
- 084 브뤼셀(벨기에) Brussels, Belgium
- 098 카토비체(폴란드) Katowice, Poland
- 114 당진시(대한민국) Dangjin, Republic of Korea

132 **주제발표** Subject Lecturer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Education Cities

사례발표 Best Practices

- 164 오산시(대한민국) Osan, Republic of Korea
- 186 원주시(대한민국) Wonju, Republic of Korea
- 206 추부(일본) Chubu, Japan
- 224 카탈로니아(스페인) Catalonia, Spain









(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 당진 공동 선언문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9회 국제 교육도시연합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지역회의를 당진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변화에 적응하면서 급속한 도시화, 인구변화, 기후변화, 기술발달 그리고 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맞서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위한 필수적인(fundamental) 접근 방식으로 이것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올바른 발전 방향입니다.

이번 제9회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동 촉진의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도시는 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로 구성하여, 인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 사회구현을 목표로 한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시민공감대를 기반으로 '포용적 지역사 회'를 지향하며, 미래세대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 할 것이다.
- 우리는 행정과 지역사회에 있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최우선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심도 깊고 체계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전 세계 모든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이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과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는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교육도시연합 회원도시로서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를 굳건히 할 것이며,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









The 9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The Sustainable City and Education" Dangjin Joint Declaration

It carries great significance to hold the "9th IAEC Asia-Pacific Network Regional Meeting" in the city of Dangjin under the theme of "Sustainable Cities and Education" when the whole world pays much attention to a sustainable future.

Today, we try to adapt to all kinds of change and on the other hand, face rapid urbanization, changing demographics, climate change, technical progress and urban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fundamental approach for all living beings on earth. It is a right direction of progress, not for the selected few but for all of us.

In an attempt to share knowledge to promote action for sustainable cities and practice it through education, we made the following resolutions at this 9th meeting.

- We aim to improve human living quality and realize a sustainable society by composing sustainable cities with various initiatives directly linked to lives of all citizens. We will pursue an "inclusive community" based on civic consensus not to marginalize even one person and enhance education and training for future generations.
- We will prioritize diversity and inclusiveness administration and communities, cooperating for in-depth, systematic change in order to fundamentally transform our cities to become sustainable. Further, we will make common efforts to enable sustainability to take root i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or cities of the entire world through education.
- We will clarify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s our common efforts and that a policy approach and action for education is a precondition to yield results under global sustainable goals. We will act based on the partnership of the IAEC in Asia & Pacific regions and beyond for sustainable cities.

We will solidify the IAEC Asia-Pacific Network as members and closely collaborate one another and lead joint efforts to make sustainable cities through education.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

The Sustainable City and Education

존핀 John Fien

RMIT대학교 교수

Professor, RMIT University













기조강연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





The Sustainable City and Education

Introduction

Charles Dickens began his book, A Tale of Two Cities, with the sentence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It was the age of wisdom, it was the age of foolishness; it was the epoch of belief; ... It was the season of Light; it was the season of Darkness. It was the spring of hope; it was the winter of despair.

In these contrasts, Dickens was comparing late 18th Century London to the horrors of Paris under the French Revolution.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could be describing cities of today. But not only between well planned eco-cities and the horrors of freeway dominated megacities - but also within any one city: from the calm of urban forests to the dusty, dirty reality of SLOIPS - the "sites left-over in planning".

Our theme today is about the way education – or rather, as I like to call it, learning – can help make our cities more sustainable. That is, how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Education) can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1on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Mind you, I quite like the emphasis on "educating" in "educating cities" as it an action-oriented term and speaks of the responsibility of city governments to take an active role in urban education.

Given this semantic problem, perhaps I should begin by saying what education is not. Let me do this with an equation:

Education =/= Schools

That is only formal education Rather, education is comprehensive and spans formal, informal and non-formal learning, not just in schools but through social dialogue, museums, radio,





The Sustainable City and Education | Keynote Speech

temples, mosques and temples, social media – indeed, any- and everywhere people meet and share in formation and experiences. That is why I like the terms *educating* and *learning cities*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YDwhvACBU0w

Learning and Educating Cities

Cities have long been centres of the kinds of learning that can help people and their communities assess, think about, and change their realities. Innovations in agriculture freed an increasing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from daily food production, which enabled the growth of cities. It also enabled artisans, priests, scholars and citizens the time to think about and discuss issues about the quality of life in, and the future of, the places they called home. University towns and cities such as Oxford grew in the Middle Ages to specialise in education while, in the New World, Princetown, Yale and Cambridge are but the most notable of specialised educational cities.

Even cities with a diversified economic base emphasise the importance of their educational institutions, many of which are among the larger employers in a city. Other cities emphasis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s a service to their citizens and have well managed programmes to coordinate information about, and the promotion of, educational programmes as a way of enhancing community well-being.

Combining these two perspectives, an educating city can be described as as one that "mobilizes all its resources in every sector to develop and enrich all its human potential for the fostering of personal growth, the maintenance of social cohesion,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In other words, they are:

... any city, town or village which strives to learn to renew itself in a time of extraordinary global change. Using lifelong learning as an organising principle and social goal, ...[they] promote collaboration of the civic, private, voluntary and education sectors in the process of achieving agreed upon objectives related to the twin goals of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veness.

(Learning City Network 1998)

To achieve these goals, Educating Cities plan and engage in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The 9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기조강연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





- Improving information about, and access to, learning opportunities and programmes.
- Co-ordinating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programmes
- Catalysing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and training strategy related to the local economy.
- Developing partnerships between education institutions and sectors.
- Developing partnerships between education institutions and industry, community groups and government
- Linking learning and public participation in community-based planning.

Recognising that educating and learning is more than schooling, but involves many kinds of educational and training activities in the family, neighbourhood, museums, art galleries and zoos, the workplace, and in voluntary organisations, Australia's first Learning City, Albury/Wodonga, states that

Cities are not just places where large number of people live and work: they should be important places where people experience leisure, culture, enterprise and education - in other words, places which have learning at their heart.

Educating Cities are places where government, educational institutions, business and civil society take responsibility for a coordinated approach to lifelong learning for all members of society. Thus, for example, the City of Hume on the northern outskirts of Melbourne, Victoria, has identified a vision of Hume as a learning community as central to its development:

For Hume to be a learning community where people embrace learning as a way of life, for all their life, thereby creating a community that values learning as the key to strengthening individual and community wellbeing. (cited in Adult Learning Australia 2005)

As a result, the Hume Learning Community strategy focuses on eight themes:

- 1. Inspiring lifelong learning in Hume
- 2. Starting out—starting school
- 3. Moving on—school to further education and employment
- 4. Continuing on—learning in community settings
- 5. Language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 6. Information technology uptake and virtual communities
- 7. Information about learning opportunities
- 8. Village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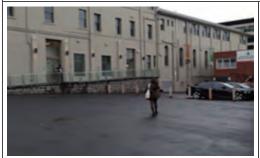
The outcomes of programmes such as in Hume were identified in the OECD report, *Lifelong Learning for All* (1996), which stressed the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of policies for improving "the capacity of individuals, families, workplaces and communities to adapt and renew", especially in the areas of:

- fostering personal development, including the use of time outside of work (including retirement),
- strengthening democratic values,
- cultivating community life and social cohesion, and
- promoting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So, I like the wa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IAEC, nd) argues that the right to live in an Educating City sits alongside "all our other basic, universal human rights".

Let's return to the metaphor of *A Tale of Two Cities* to see how this works in reality. One reflects what Charles Dickens called "the best of times and the worst of times". Sadly, the "worst of times" example comes from my own city of Melbourne. The case study is depicted on the worksheet (below) which I prepared to encourage discussion at a meeting between councillors, council staff and .community members

BOX 1
The Hawthorn Town Hall Square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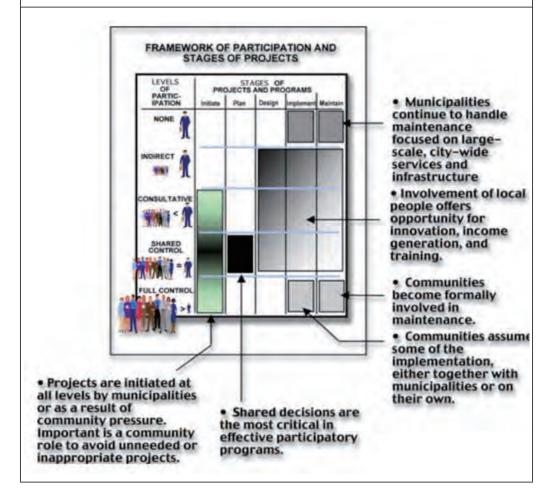
(





①

- Please tick the boxes to show who you believed made the decisions at the five project stages?
- Please tick the boxes to show who you think should make the decisions at the five project stages?
 - Discussion Questions
 - Who decided to initiate the redevelopment?
 - Whose ideas fed into the planning?
 - How were they consulted?
 - Who designed the final plan?
 - Who will do the work to complete the project?
 - Who will be responsible for evaluating the project and maintaining it?





The second case study – this time a "the best of times" example – comes from the city of Okayama in southern Japan. Okayama has made becoming a sustainable learning city a key priority based upon the slogan "Creating a community where people study, think and act together to establish a sustainable society". Box 2 is a speech by the Mayor of Okayama describing some of the strategies that wereng implemented. The notes in the right-hand column identify some of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Okayama programme and several key factors behind its success.

BOX 2 OKAYAMA: A SUSTAINABLE LEARNING CITY

When I started my mayoral campaign in 1998 after serving national government for 19 years, I made it clear that I was pro-conservation. Throughout the campaign I met tens of thousand people and found there were so many people in Okayama who had strong interest in what we now call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and who were participating in numerous educational, social, environmental and human-right activities. I learned that people loved the activities and enjoyed themselves.

Strong personal commitment of community leaders

Working with interested and committed citizens

Social networks and enjoyment keep people involved

Luckily enough, I was elected over the incumbent. As mayor I asked the city council to approve series of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the voluntary involvement of citizens in the ESD related areas. Right now, in the Okayama region, more than 10% of city's population is taking part in programs that are contributing to the building of a sustainable society. About 30,000 people are involved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grams; another 34,000 for gender equality; and a further 7,000 in health and fitness programs – and cooperation among these groups continues to improve.

Supported by Council legislation and policy

Widespread involvement Attention to record-keeping Sustainability seen as holistic integration

Networking important

As well, people have developed community-based programs at each elementary school, and as a result, those programs have become a rewarding and enjoyable part of our local citizens' lives. People go to school where they teach, show what it is to be a role model, or simply play with kids. They love the feeling that they contribute. It is perhaps for this reason that ESD programs, when based on voluntary involvement, will survive and succeed.

Links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Valued roles for aged citizens

















I see people talking to new ones so that they gradually become involved. I hear academics say that they have learned a lot from citizen's activities and now new policy studies should be launched with global targets yo advance local viewpoints and participation. In fact, Okayama University has started a new graduate school for environmental science. Some University officials now say they are coming out of the "cozy campus" and want to listen to people....

Interpersonal friendships and networkina

New sustainability courses at universities

University-community engagement

In order to build on these achievements, the Okayama ESD Promotion Commission was launched on April 2005. Regional stakeholders, including researchers from Okayama University, joined together and agreed to assist the creation of a Regional Centre to promote ESD. The first initiatives took place in June when several workshops on ESD were held for municipal residents. Consequently, an ESD Research Society, made up of local researchers and educators, was established.

Building on achievements

Formalising of networks and programme delivery

A research base

I would like to share our experiences with the world. We have already talked to our friendship cities of Hsin-Chu in Taiwan, Bucheon in Korea and San Jose in Costa Rica. I am excited because an opportunity is opening now for us to contribute to the worldwide promo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by learning about programs ongoing in other regions, we can make the Okayama program the best it can be. The Okayama region, in collaboration with its partners worldwide, will do its utmost to secure a sustainable future. I am confident we possess the skills and the abilities, networks and budgetary support to continue – and, most importantly, we have the eagerness and willingness of our citizens.

International networking

Forward-looking

Vision and commitment

Assessment of capabilities

Faith in local citizens

Source: Speech to UNESCO-United Nations University Conference on Globalis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agoya, June 2005.

Two noteworthy programmes in Okayama are the Firefly Census and the Green Company Campaign. In the former, forty-two primary schools have mapped and counted firefly numbers and worked with the Takashima-Kyokuryu Firefly Habitat Forum to restore firefly habitats to urban areas so that, to quote one young person, "I want this to become an



environment where next year and the year after next, and even when I grow up, there will always be fireflies." In the Green Companies Campaign, firms ranging from small local stores and factories to such major international companies such as Matsushita Corporation and Takashimaya Department Store collaborate in an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 and plan strategies for minimizing their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 learning-based activities organised by the City, that include:

- Publishing a newsletter that showcases the activities of participating companies in order to exchange ideas between groups and inform the general public.
- Holding lectures on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to progress in corporate sustainability.
- Holding exchange forums where participating groups describe their activities while exchanging ideas and information with other participants, and make plans for more advanced phases in their programs.
- Issuing official recognition to Green Companies to commend their efforts toward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suring that companies endorsed by the Green Company standard are given preference in the city's procurement.

Sustainable Learning Cities

You may have noticed that I started talking about sustainability in the example of the two projects in Okayama. This was to bring together the two themes of this talk – sustainable cities and education: SDG Goal 11 and Goal 4:

-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Being a sustainable city and community means adopting a Triple Bottom Line perspective. Thus, a sustainable city needs to be founded upon:

- the enhancement of human and social capital that comes from lifelong learning and which underpins economic vitality,
-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cohesion that comes from lifelong learning, especially non-formal and adult learning, and
- learning respect for Earth and the interdependence of humans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that comes from active involvement in environmental program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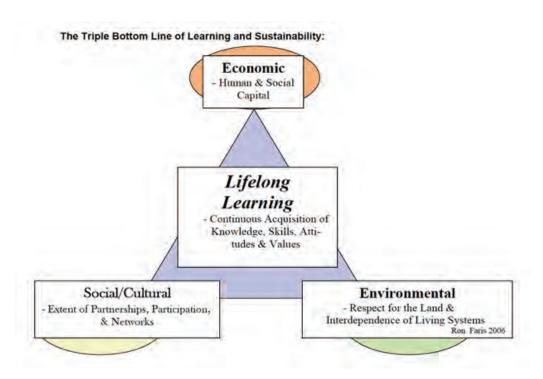












Lifelong Learning and the Triple Bottom Line of Sustainability (Faris 2006)

Integrating SDG 4 and SDG 11 helps us to adopt this holistic approach

A key aspect of a sustainable learning city is the development of a sense of place and sustainability ethics as central objectives - not just because these can help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or make people feel better feeling at home in a known and loved locale, but because they are also central to the long-term economic vitality of a community and to the quality of life that its members enjoy. Indeed, making the holistic view of integrated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focus of all the activities of a Learning City programme is the only way of ensuring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a sustainable city.

To this end, Candy (2003) and Morris (2001) argue for the integration of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ecological factors and an holistic approach to their management in learning communities through an emphasis on processes for ensuring:





- a healthy environment and is in equilibrium with it natural milieu
- education as a basis for economic progress and wealth generation
- values of equity, tolerance, and inclusiveness
- high levels of citizen control and self-determination
- a culture that looks beyond adaptation and, instead, looks to anticipate and achieve
- cooperative partnerships and social interaction as a means of bringing people together to facilitate social action and change.

Theory Underpinning a Sustainable Learning City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sustainable learning cities" have yet to be fully explored. This is not surprising as much effort has gone into organisation and programming and there has not yet been the time to explore underpinning assumptions beyond normative calls for education to contribute to sustainability. The same may be said of the lack of any widespread adoption of sustainability thinking and practice in the learning cities movement despite being firmly grounded in theories related to learning communities. However, by integrating some key ideas from the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and learning community literatures, it is possible to begin to identify the elements of a theoretical basis for Sustainable Learning Cities.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The great ecologist E.O. Wilson once wrote that "The shift to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depend as much on education and social change as on science" (cited in Foster-Turley 1996, p. 1). Similarly, UNESCO (1997) reports that "Education will shape the world of tomorrow - it is the most effective means that society possesses for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Neither, however, is referring to the sort of learning delivered in most formal schools and universities. Rather, they are talking about the type of learning that can help shift the mental models of themselves in relation to the functioning and sustainability of ecosystems that individuals hold - and the collective cultural models of a society which inform them - from ones that support unsustainable living and working practices. A mental model is a person's representation of the world that results from his or her socialisation and long-held beliefs, and which allows peopl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different aspects of the world and society around them and to make personally meaningful lifestyle choices (Gentner and Stevens 1983). While there is sometimes not a clear link between people's stated beliefs and consequent actions, there is a high level of consistency between individual mental models and the collective cultural models of society

















and environment that result from them and culturally approved and encouraged patterns of living (Gentner and Whitley 1997). As such, our mental models provide the underlying structure for environmental beliefs and are a critical underpinning for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environmental actions (Kempton, Boster and Hartley 1994).

Many point to the fact that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societies was environmental knowledge and that it was framed upon worldviews that located human well-being within the continuing integrity of nature, and that such societies can serve as models for the 'modern' world. However, such cultural models of sustainability have been supplanted in almost all parts of the world by what Theodore Roszak (1992) calls a "collusive madness in industrial society", which has led to a "repression of the ecological consciousness" (p. 320). Taking this idea further, Thomas Berry (1988, p. 215) argues that the human species has become "autistic" in its relationships to the Earth. Chellis Glendinning (1995, p. 51) laments the "systematic removal of our lives from the natural world" while James Hillman (1995) suggests that humanity is suffering from a collective "inability to let the world into one's perceptual field". The problem is not that nature and human dependence on the conservation of natural systems are not valued in such mental models. The problem is that they are rarely even considered except when tragedy strikes.

Gladwin, Newburry and Reisken (1997) argue that the unsustainable mental models upon which most of the world operates today have four major (and related) aspects that make learning to live and work sustainably difficult:

- 1. a cognitively bounded *biological mind*, inherited from our ancient ancestors, which is maladapted to the modern challenges of systemic complexity;
- 2. an obsolete *worldview mind* guided by tacit and outmoded assumptions abut how the world works, based on religious, philosophical, and early scientific traditions;
- an addicted contemporary mind that has been powerfully programmes to believe in various myths and ideological doctrines that appear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few at the expense of the many; and
- 4. a delusional *psychodynamic mind* that deploys subconscious ego-defence mechanisms to ward off any realistic and moral anxieties posed by awareness of ecological and social deterioration. (pp. 239-240)

An emphasis on these eco-psychological explanations of the causes of unsustainability is not intended to diminish the importance of economic or political explanations but rather to suggest that the mental and associated cultural models that dominate today lie behind and, indeed, legitimate the exercise of unsustainable economic and political processes.



À:††:Ì

Thus, in his book, Envisioning a Sustainable Society, Lester Milbrath (1989) argues that we need to "learn our way out" of the mental and cultural models that bind us to the past. This argument makes sustainability ultimately an educational enterprise.

Thus, a major dimension of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cities will depend upon learning-based interventions that can bring changes in the mental and cultural models that underpin unsustainable practices. In his book, *Compass and Gyroscope: Integrating Science and Politics for the Environment*, Kai N. Lee (1993) describes social learning as the process for bringing about the changes in cultural models needed for the sustainability transition. He describes it as comprising two elements: adaptive manag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the development of the democratic values, skills and institutions for an active civil society. Lee calls these two elements the 'compass' and the 'gyroscope', respectively for guiding the social learning needed to "learn our way out". Together, these two elements are key features of what the OECD (1994) calls "societal capacity for the environment", and can contribute to overcoming barriers to sustainability such as a lack of ecological, technological or administrative knowledge, the weaknesses of social institutions in relation to vested interests, the lack of material or legal resources, and the lack of strong public awareness and commitment (see Janicke 1997).

Social learning is only one of a number of pillars of capacity building for the environment (OECD 1995). However, just as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is indispensab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 social learning underlies the establishment and enhancement of political, legal and economic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management. Thus, Janicke (1997) argues that;

Regarding capacity building i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most important task ... [is] to improve informational and communicative capacities... Environmental knowledge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generated, distributed, interpreted and applied ... are of the utmost importance. (p. 12)

The generation and application of knowledge corresponds to Lee's 'compass' of adaptive management while the second element of social learning, the 'gyroscope' of civil society, corresponds with need to educate people for participation in building a sustainable society. Jancke (1997) describes three levels of civic capacity for the environment:

•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and legal frameworks which are open to public participation and scrutiny and the education of citizens to use them,













- the development of processes for integrating public participation into policy and decision-making, and
- the development of a capacity for strategic action by all stakeholders.

These three dimensions of capacity building and learning are necessary for developing the policies and empowering community groups and individuals to contribute to the transformation of mental and cultural models towards sustainability. Unfortunately, we are not yet as skilled as we need to be in this task. However, it is here where the sustainability movement has much to learn from research and practice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ng or learning communities that has underpinned the work of many Educating or Learning Cities.

Learning communities

An enormous amount has been written about "learning communities" and the literature spans fields related to community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Learning Cities (Morris nd). Indeed, some definitions of "learning communities" read very little differently from definitions of Learning Cities (see Kearns et al. 1999 of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UK) 1998). At least two things set the "learning community" process apart from the others, however, These are, firstly, the focus on learning through self-chosen "proactive partnerships" that form a mutual support network (Kearns et al. 1999) and, secondly, a focus on the empowerment of network/community members to achieve their goals. Many so-called "learning communities" in Learning Cities may not meet these two criteria, especially the second one where programmes that seek to provide information on a wide range of topics of general interest in the community fail to address the capacity building and institutional changes needed to enable deep community and individual empowerment. Indeed, some see a "learning community" as little more than a regional or community response to provide lifelong learning. For example, the Adult learning Australia 2005 report on Hume as a learning community states that "the term learning community is also used to encompass terms such as learning cities and learning towns" (p. 6). To counter this trend, several efforts have been made to focus the activities of learning communities. For example, Turning on Learning Communities, a report on strategies for activating learning communities by the South Australian Adult Community Education Unit (2000) recommended that, "to grow a learning community it must be grounded in the people and the work of the community. It must build on concerns and issues that exist in the community" (p. 30). Arguing for the importance of empowerment, the report recommended that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must:



- involve community members in actively developing structures and programmes;
- tackle community issues in innovative ways, developing local solutions to wider issues;
- actively seek to involve individuals from groups not usually represented in community development or learning programmes;
- build networks and partnerships
- follow a cyclic process of reflection and action to remain relevant.

The evaluation of the Hume learning community process developed a similar set of principles for success, including:

- Leadership based upon a clear agreed vision, tying vision to strategic plans, trust, trend setting and forecasting, but all the time through a "putting people first" strategy
- Collaborative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business and community
- Social capital formation
- Participation for all, particularly through learning opportunities, celebrations, food events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 Capacity building to ensure that learning processes remain in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se are the sorts of activities that build – and are reflective of – the high levels of community trust and interaction that is often known as social capital. In fact, Sue Kilpatrick (2000) argues from her work in Tasmania and beyond that "a learning community is building social capital as it learns, and that a community with high levels of social capital will be a learning community" (p. 5).

Conclusion

Kenyon (2002) suggests a way in which the social capital and learning aspects of learning communities can be related to learning for sustainability by arguing that:

Sustainable communities maintain and improve their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o that residents can continue to lead healthy, productive and enjoyable lives.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se communities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a healthy environment and a healthy economy are both necessary for a healthy society.



















Such an approach can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the triple bottom line of sustainability through community learning networks in which, according to Faris:

An environmental approach is founded on respect for the land and recognition that human communities are interdependent with their surrounding living systems. Fostering of broad coalitions based on partnerships is also likely to support sustainability of a learning community initiative. Finally, building on the stock of human capital (mainly formal learning) and social capital (including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thus fostering an asset based approach. This does not forget that lifelong learning is an organising principle and social goal. (in Adult learning Australia 2005, p. 27)

However, as ideal(istic) as this aspiration is, the goal of a sustainable learning city will not be achieved without leadership from government. As the levels of government most close to the everyday sustainability needs of people, state and especially local government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developing the infrastructure and processes that embed learning for sustainability not just as an aspiration but as a process of governance. It is here that deliberative forms of democracy that enhance (and renew) local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need to be developed and trialled (Gastil and Levine 2005). Extensive guidelines and examples of how to do this are now widely available. Box 3 is a brief listing of some of the most accessible and useful of these.

Box 3 Tools for Public Participation

- The Community Planning Handbook and Website
- Plan Community Engagement Essentials
- Effective Effective Engagement Planning Tool
- Participation Tools
-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Community Engagement Strategies

Central to all of the strategies for deliberative democracy in these resources is the concept of place, the need for urban managers and community groups and members to recognise the often taken-for-granted bioregional dimensions of city life and the responsibilities that everyone has for the resources they consume and the impacts of this on all other parts of human and non-human nature. Coming to an understanding of this ever present reality of city life and developing the commitment and capacity to live and work in sure knowledge of this reality is what "learning our way out" means, and which ties the interdependent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learning and the protection of natural capital together as the key task before us.

References

- Berry, T. (1988) The Dream of the Earth, Sierra Club Books, San Francisco.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DEE) (1998) Learning Towns, Learning Cities, DEE, Sudbury.
- Foster-Turley, P. (1996) Mak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Happen: The Role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ommunication, GreenCOM, Washington DC
- Fuglesang, A. (1982) About Understanding: Ideas and Observations o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The Dag Hammarskjold Foundation, Uppsala.
- Gastil, J. and Levine, P. eds (2005)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ndbook: Strategies for Effective Civic Engage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ssey-Bass, San Francisco.
- Gentner, D. and Stevens, A., eds (1983) Mental Model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 Gentner, D., & Whitley, E. W. (1997). Mental models of population growth: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Bazerman, M. Messick, D., Tenbrunsel, A and Wade-Benzoni, K., eds, *Environment, Ethics, and Behavior: The Psychology of Environmental Valuation and Degradation*, San Francisco, CA: New Lexington Press, San Francisco, 209-233.
- Gladwin, T., Newburry, W. and Reisken, E. (1996) The usual mind as environmentally unsustainable: The unusual mind to sustain our common future, in J. Bernard Keys and Lloyd N. Dosier, eds, *Academy of Management Best Papers Proceedings 1996*, Georgia Southern University.
- Glendinning, C. (1995) My Name is Chellis and I'm in Recovery from Western Civilization, Shambhala Books, Boston.
- James Hillman et al (1995) *The City as Dwelling*, Dallas Institute of Humanities and Culture, Dalla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nd) Educating Cities, brochure.
- Janicke, M. (1997) The political system's capacity for environmental policy, in Janicke, M. and Weidner, H., ed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A Comparative Study of Capacity-Building*, Springer, Heidelberg.
- Kearns, P. McDonald, R. Candy, P. Knights, S. & Papadopoulos, G (1999). VET in the Learning Age: The Challenge of Lifelong Learning for All, Vol. 2, NCVER, Adelaide.
- Kilpatrick, S. (2000) Community Learning and Sustainability: Practice and Policy, Keynote Address to First Conference on the Future of Australia's Country Towns, LaTrobe University, Bendigo





















- Learning City Network (1998) Learning Communities: A Guide to Assessing Practice and Progres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London.
- Lee, J. N. (1993) Compass and Gyroscope: Integrating Science and Politics for the Environment, Island Books, Washington DC.
- Milbrath, L. (1989) Envisioning a Sustainable Society, SUNY Press, Albany.
- Morris, P. (2001) Learning Communities: A Review of Literature, Working Paper 01-32, Research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4) Environmental Indicators: OECD Core Set, OECD, Pari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6) Lifelong Learning for All, OECD, Pari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OECD, Paris.
- Roszak, T. (1992) The Voice of the Earth, Simon & Schuster, New York.
- Towards a European Learning Society (TELS) (nd) (URL:
 - http://tels.euproject.org/background.cfm; accessed 2.1.06.
- UNESCO (1997) Environment and Society: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for Sustainability,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UNESCO International Conference, Thessaloniki.



(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였고, ···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디킨스는 대조되는 문장을 통해 18세기 말 런던과 프랑스 혁명 전후 파리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는 오늘날 도시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 계획 된 생태 도시나 고속도로가 난무하는 거대 도시의 공포뿐만 아니라 도시 숲의 고요함에서 도시 계획 후 남은 먼지투성이의 더러운 공간까지 묘사한 것이다.

오늘 주제는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 나는 이를 학습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네 번째 상세목표인 양질의 교육으로 열 한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도시를 교육한다'고 할 때, '교육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는다. 행동 지향적인 표현이기 때문이고, 시 정부가 도시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감을 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의미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음의 방정식을 이용해 교육이 무엇이 아닌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 =/= 학교

이 방정식에서는 어느 정도 정규 교육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포괄적이며 정규, 비공식, 비정규 학습을 아우른다.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 박물관, 라디오, 사찰, 사원과 신전, SNS, 그 외 사람들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모든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나는 '도시를 교육한다'는 표현을 좋아한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DwhvACBU0w

(





Regional Network Meeting













(





도시를 교육하다

도시는 오랫동안 사람과 공동체가 현실의 삶을 살고, 생각하며, 바꿀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학습의 중 심지였다. 농업 혁명을 통해 많은 인구가 일일 식량 생산에서 자유로워졌고, 도시의 성장 또한 가능해졌 다. 뿐만 아니라 장인, 성직자, 학자 및 시민들은 삶의 질, 미래, 그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대해 생 각해보고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옥스포드와 같은 대학가 및 도시는 중세시대에 교육에 특화된 곳으로 성장한 반면, 오늘날에는 프린스턴, 예일, 캠브리지가 가장 유명한 교육 특화 도시이다.

다양한 경제 기반을 가진 도시에서는 교육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기관 대부분은 그 도시에서 큰 사업체와 같다. 그 외 교육의 중요성을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서 강조하고, 공동체의 웰빙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홍보를 조정하기 위해 잘 조직된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도시도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결합한 도시 교육은 개인의 성장 배양, 사회적 응집성의 보존, 번영 창출을 위한 인간 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 교육이란,

... 세계적 변화의 시대에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배우려는 모든 도시나 마을이 있다. 원칙과 사회 적 목표를 수립으로서 평생학습을 활용하고, … 이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및 사회 포용이라 는 두 가지 목표와 관련된 목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민, 민간, 자발적, 교육 영역 과 협업을 장려한다. (Learning City Network 1998)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교육은 다음의 넓은 범위의 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한다.

- 학습 기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이용 기회 제공
- 성인 및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편성
- 지역 경제와 관련된 교육 및 학습 전략 개발 촉진
- 교육 기관 및 분야 간 협력 증진
- 교육 기관 및 산업, 공동체, 정부 간 협력 증진
- 공동체에 기반한 계획 수립으로 학습과 공공 분야 참여 연계

교육 및 학습은 학교 교육 이상의 것으로, 가정, 이웃,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직장, 자원봉사 기관에 서 다양한 종류의 교육 훈련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아는 호주의 첫 번째 학습 도시인 앨 버리-워 동가 (Albury-Wodong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시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문 화를 향유하며, 사업을 하고, 교육을 받는 중요한 곳이다. 다시 말해, 도시란 기본적으로 배움을 얻는 곳이다.



교육 도시는 정부, 교육 기관, 기업 및 시민사회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평생 학습에 대해 체계적 인 접근을 할 책임이 있는 도시를 말한다. 한 예로, 호주 빅토리아 주 멜버른의 수도권 내에 위치한 흉 (Hume) 시는 도시 개발만큼 공동체 학습을 중요한 비전으로 규정했다.

흄 시는 시민들이 학습을 평생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교육 공동체가 되고자 학습을 개인 및 공동체 복지 강화의 핵심 요소로 가치 있게 여기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다. (인용: 2005 호 주성인학습연합회)

결과적으로 흄 학습 공동체 전략은 다음 8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 1. 흄 내의 평생학습 장려
- 2. 입학
- 3. 성인 교육 및 취업을 위한 학습으로 발전
- 4. 지역사회 수준에서 학습의 지속
- 5. 언어 사용능력과 산술능력
- 6. 정보기술 활용과 가상 공동체
- 7. 학습 기회에 대한 정보
- 8. 마을 네트워크

흄 시의 사업과 같은 공동체 프로그램의 결과는 OECD 보고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1996)'에도 실 렸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다음의 영역에 맞게 새로 조정하기 위한 개인, 가정, 직장 및 공동체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의 사회 • 경제적 결과를 강조한다.

- 은퇴 후 또는 업무 외적인 시간에 자기계발 도모
- 민주주의적 가치 강화
- 공동체 삶 및 사회적 응집성 배양
- 혁신, 생산성 및 경제 성장 촉진

따라서 나는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nd)의 교육 도시에 살 권리가 다른 모든 보편적 인간 권리와 궤 를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다시 〈두 도시 이야기〉의 비유로 돌아가서 얼마나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자. 찰스 디킨스가 말한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에서 '최악의 시간'의 예로는 슬프게도 내가 사는 도시인 호주 의 멜버른이다. 본 사례 연구는 하단 박스에 서술했으며, 의원, 의회 직원 및 공동체 구성원과의 회의에 서 논의하고자 준비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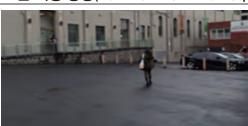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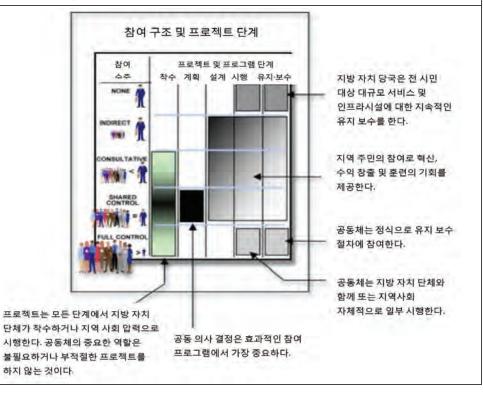


호손 시청 광장(Hawthorn town hall square) 개발





- 5개 프로젝트 단계에서 누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박스에 체크해주세요.
- 5개 프로젝트 단계에서 누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박스에 체크해주세요.
- 논의 사항
 - 재개발 착수는 누가 결정하는가?
 - 계획에 누구의 생각이 반영되는가?
 - 어떻게 논의되는가?
 - 최종 계획은 누가 설계하는가?
 - 누가 해당 프로젝트를 완성하는가?
 - 프로젝트 평가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두 번째 사례 연구는 "최고의 시절"에 대한 예로 일본 남부지방의 오카야마 시다. 오카야마는 슬로건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지역 사회 구축'에 따라 지속 가능한 학습 도시가 되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여겼다. 박스 2에는 오카야마 시장이 시행된 전략 일부 를 설명하는 연설문을 실었다. 오른쪽 열에 적은 구절은 오카야마 프로그램과 그 성공 이면의 몇 가지 주 요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다.

박人 2

오카야마: 지속가능한 학습 도시

제가 19년 간 중앙 정부를 위해 일을 하다가 시장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1998년, 저는 환경 보호 옹호론자임을 표명했습니다. 당 시 캠페인을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현재 오카야마 시 민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SD)이라 부르는 것에 대 해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많은 교육, 사회, 환경 및 인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공통체 지도자들의 큰 헌신

관심 있고, 열성적인 시민과의 현력

사회적 네트워크와 즐거움을 통해 사람들의 참여 유도

운 좋게도 저는 시장에 당선되었고, 시의회에 ESD 관련 분야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법안 및 정책 조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오카야마 시 인구의 10% 이상 이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 다.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있으 며, 3만 4천명은 성 평등, 7천명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집단 간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향상하 고 있습니다.

의회 법안 및 정책을 통한 지원

광범위한 참여 기록 관리 주의 전인적 통합으로 간주되는 지속가능성

중요한 네트워크 형성

사람들은 또한 각 초등학교에서 공동체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 해왔고. 결과적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보 람차고 즐거운 활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롤모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는 단순히 아이들과 놀기 위해 학교에 갑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을 좋 아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ESD 프로그램이 자발적 참여를 바 탕으로 이루어질 때 지속하고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공동체 간 연결고리

고령 시민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역할

저는 사람들이 새로운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그들이 점차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학자들이 시민의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운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정책 연구는 지역의 관점과 참여를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카야마 대학은 새롭게 환경 과학 대학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일부 대학 관계자는 현재 안락한 캠퍼스에서 나 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대인관계에서의 우정과 인적 네트 워크 형성

대학의 새로운 지속가능성 과정

대학과 지역사회 참여















(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해 2005년 4월 오카야마 ESD 증진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카야마 대학 연구원 및 지 역 관계자가 함께 ESD 추진을 위한 지역 센터 건립 지원에 동의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6월 지역 주민을 위해 ESD에 관한 여 러 워크숍이 개최되었을 때 수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연구 원 및 교육자로 구성된 ESD 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성과 기반 구축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수행 공 식화

연구소

저는 전 세계와 함께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우 정을 맺고있는 대만의 신주 시, 한국의 부천시,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세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 우 기쁩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배워서 오카야마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카야마 지역은 전세계 다른 지역과의 협업으로 최대한 지속가 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오카 야마가 프로그램을 지속할 기술과 능력, 네트워크, 지원 예산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며, 가장 중요한 오카야마 시민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미래 계획적

비전과 약속

역량 평가

지역 주민의 신뢰

출처: 2005년 6월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에 관한 유네스코 -유엔 대학교 회의 연설문

두 가지 주목할만한 오카야마 프로그램은 '반딧불이 인구 조사'와 '녹색 회사 캠페인'이다. 첫 번째 프로 그램에서는 42개 초등학교가 반딧불이의 분포지도를 그리고 개체 수를 세어 도시 지역의 반딧불이 서 식지를 회복하기 위해 다카시마-교 쿠류 반딧불이 서식지 포럼과 협업했다. 한 어린 학생의 말을 인용 하자면, '저는 이 활동으로 내년, 내후년 제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반딧불이가 사는 환경이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녹색 회사 캠페인에서는 작은 지역 상점과 공장은 물론 파나소닉이나 다카시마야 백 화점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까지 환경 평가 과정에서 협업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학습 기반의 활동을 통 해 기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 그룹 간 의견을 공유하고 일반 대중에 공개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알리는 소식지 출간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강의 개최
- 다른 참가자들과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참여 그룹들의 활동을 공유하는 교환 포럼 개최
-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인정하는 녹색 회사에 대한 공식 승인 및 녹색 회사 기준을 따 르는 기업의 시 조달 우선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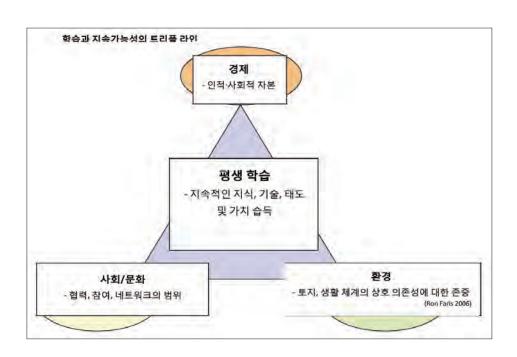
지속가능한 학습 도시

아마 오카야마의 2개 프로젝트 사례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알아차렸겠지만, 해당 사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육(SDG 목표 11과 목표 4)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설명한 것이다.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되는 것은 트리플 라인이라고 하는 기업 이익, 환경 지속성, 사회적 책임을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측정하는 비즈니스 원칙의 채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

-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평생학습에서 비롯한 인적, 사회적 자본의 증대
- 비정규 및 성인 학습 등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자본과 응집성 개발
- 지구, 인간 상호 의존성 및 적극적인 환경 프로그램 참여에서 비롯하는 물리적 환경을 존중하는 학습



(

평생학습과 지속가능성의 트리플 라인 (Faris 2006)

















(





SDG 목표 4번과 11번의 통합으로 전인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학습도시의 핵심적 측면은 장소성과 지속가능성 윤리를 중심 목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사람들이 잘 알려진 곳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장기적 경제 활성화와 구성원이 누리는 삶의 질의 관점에서 중심점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합적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성의 전인적 관점을 모든 학습 도시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성공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캔디(Candy, 2003)와 모리스(Morris, 2001)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에 대한 강조를 통해 지역사회 학습 관리에 있어 경제, 사회, 정치, 생태적 요소의 통합을 주장했다.

- 건강한 환경 및 본래 환경과 균형 상태에 있는 환경
- 경제 발전 및 부의 창출을 위한 기초 조건으로서의 교육
- 공정, 인내, 포용의 가치
- 높은 수준의 주민 통제 및 자기 결정권
- 순응 외에 예측하고 성취하는 문화
- 사회적 행동 및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시민을 화합하는 수단으로서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사회 적 상호작용

지속가능한 학습 도시 근거 이론

'지속가능한 학습 도시'의 이론적 근거는 아직 완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론 구축 및 설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교육에 대한 규범적 요청을 넘어 기반이 되는 가정을 탐구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같은 이유로 학습 공동체와 관련된 이론에 확실한 근거를 둠에도 불구하고, 학습 도시 운동에서 지속가능성 통념 및 관행을 광범위하게 채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및 학습 공동체 문헌을 위한 교육의 일부 핵심 의견을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학습 도시의 이론적 기반을 규정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저명한 생태학자인 E.O. 윌슨은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변화는 과학에 의존하는 만큼 상당 부분 교육과 사회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용: Foster-Turley 1996, p. 1). 비슷한 예로 유네스코는 1997년 보고서에 '교육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한다. 교육이야말로 미래의 도전과제에 맞서기 위해 사회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둘 중 어떤 것도 대다수 정규 학교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종류의 교육이 아니고, 지속 불가능한 삶과 직장 관행으로부터 개인이 가진 생태계의 기능 및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심성모형 및 개인에게 알려주는 사회의 집단적 문화 모델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류의 학습에 대해서 논한다. 심성모형은 개인의 사회화 및 오래된 신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형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사회의 다른 면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며, 개인에게 의미 있는 생활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Gentner and Stevens 1983). 개인의 지속적인 신념과 결과적인 행동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은 없지만, 개인의 심성모형과 개인, 그리고 문화적으로 인정받고 장려하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기인하는 사회 및 환경의 집단적 문화 모델 간 일관성은 매우 높다(Gentner and Whitley 1997). 보통의 심성모형은 환경적 신념을 위한 기저 구조를 제공하며, 개인 및 집단의 환경적 행동을 위한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Kempton, Boster and Hartley 1994).

많은 이들이 토착 사회의 전통적 지식이 환경적 지식이고, 이는 인류의 행복을 자연의 지속적인 통합 안에 놓는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며, 그러한 사회는 현대 세계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모델은 전세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로샤크 (Theodore Roszak 1992)가 '생태학적 의식의 억압' 으로 이어지는 '산업사회의 집단적 광기'라고 명명한 것으로 대체되어 왔다(p. 320). 더 나아가 토마스 베리 (Thomas Berry 1988, p. 215)는 인간 종은 지구와의 관계에서 자폐증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첼리스 글렌디닝 (Chellis Glendinning 1995, p. 51)은 '우리의 삶이 자연계에서 체계적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통탄했으며, 제임스 힐먼 (James Hillman 1995)은 인류가 '세계를 개인의 지각 영역에 가져다 두는 집단적 무능'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자연과 인간의 자연 분류 보존에 대한 의존이 그러한 심성모형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래드윈과 뉴버리, 리스킨(Gladwin, Newburry and Reisken 1997)은 오늘날 전세계 대부분의 영역에서 활용하는 지속 불가능한 심성모델이 4가지 주요한 관련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사항이 지속가능한 학습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한 바 있다.

- 1. 고대 선조로부터 물려받았으나 전체적으로 복잡한 현대 사회의 도전 과제에 대해 부적합한 인 지 경계적인 생물학적 태도
- 2. 종교, 철학, 초기 과학적 전통에 기반하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암묵적이고 더 이상을 모었는 추측에 의한 낡은 세계관
- 3.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다양한 신화와 이념적인 교리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인이 박힌 현대 정신
- 4. 생태학적 사회적 퇴보에 대한 인식으로 발생하는 모든 현실적 도덕적 우려를 피하기 위한 잠재적인 자기 방어 메커니즘이 장착된 망상적인 정신 역학 (pp. 239-240)

이러한 지속불가능성 원인의 생태심리학적 설명에 대한 강조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설명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오늘날 지배적인 심성 및 연관 문화적 모형이 있음을 제시하고, 지속 불가능한 경제적・정치적 과정 이행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레스터 브라스는 저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상상(1989)'에서 인류를 과거에 옭아매는 심성・문화적 모형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은 지속가능성을 궁극적으로 교육 사업으로 본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환의 대부분은 지속 불가능한 관행을 뒷받침 하는 심성 • 문화적 모형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학습 기반 해결책에 달려있다. 카이 리(Kai N. Lee)는 저서 '나침반과 자이로스















(





코프: 환경을 위한 과학과 정치의 통합(1993)'에서 사회적 학습을 지속가능성 변환을 위해 필요한 문 화적 모형에 변화를 야기하는 절차로 설명했다. 카이 리는 이를 두 가지 요소로 서술했는데, 바로 인간 과 자연 관계에 대한 적응 관리와 적극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민주주의적 가치, 기술, 기관의 발전이다. 카이 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각각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학습을 위한 나침반과 자이로스코프로 명명했다. 이 두 요소는 모두 OECD가 1994년 '환경을 위한 사회적 역량' 이라고 규정한 것의 핵심적 특 징이며, 생태학적, 기술적 또는 행정적 지식의 부족, 기득권의 이해와 관련된 사회적 기관의 약점, 물리 적 또는 법적 자원의 부족, 강력한 대중 인식 및 공약의 부족 등 지속가능성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극 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참조: Janicke 1997).

사회적 학습은 환경을 위해 구축하는 역량 중 유일한 축이다(OECD 1995). 그러나 생물다양성의 보 존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처럼 사회적 학습도 환경 정책 및 관리를 위한 정치적, 법적, 경제적 기관의 틀 구축 및 향상의 기본이다. 따라서 예니케(Janicke 1997)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구축 역량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및 의사소통 능력이다. 환경 지식과 그 러한 환경이 발생하고, 알려지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p. 12).

지식의 창출과 적용은 카이 리의 적응 관리 나침반에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학습의 두 번째 요소인 시 민 사회의 자이로스코프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응한 다. 예니케는 환경을 위한 시민 역량 세가지를 설명했다.

- 공공의 참여와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활용할 시민에 대한 교육의 여지가 있는 기관 및 법적 프레 임의 개발
- 공공 참여와 정책 및 의사 결정 통합을 위한 절차 개발
- 모든 이해관계자의 전략적 행동을 위한 역량 개발

이 세 가지 범위의 역량 구축 및 학습은 정책 개발, 심성 • 문화적 모형의 지속가능성으로의 변환에 기여 할 지역 사회 및 개인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 필수적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본 사항에 대해 필요한 만큼 기술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지속가능성 운동이 여러 학습 도시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학습 공동체 개발에 대한 연구와 관행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학습 공동체

'학습 공동체'에 대해 설명한 많은 문헌이 있으며, 해당 자료들은 공동체 교육, 평생학습, 학습 도시와 관련한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다(Morris nd). 사실 학습 공동체의 정의는 학습 도시의 정의와 크게 다 르지 않다(참조: Kearns 외 다수. 1999, 영국 교육고용부 1998). 그러나 최소 두 가지 특징이 학습 공 동체와 학습 도시를 구분한다. 먼저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기 주도 파트너십을 통한 학습이 다(Kearns 외 다수 1999). 두 번째는 네트워크 및 공동체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하 는 것이다. 많은 경우 소위 학습 도시에서의 '학습 공동체'가 본 두 가지 사항에 특히, 지역사회에서 보



편적인 흥미가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구축과 기관의 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두 번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학습 공동체'를 평생학습 제공을 위한 지역적 또는 공동체적 대응과 비슷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5 호주성인학습연합회의 흄(Hume) 시에 관한 보고서에서 '학습 공동체'를 학습 도시, 학습 마을과 같은 용어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설명한 바 있다(p. 6). 이런 추세에 역행하여 학습 공동체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 예로,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관해 남부호주성인교육연합회가 2000년 발간한 보고서 '학습 공동체로의 전환'에서 학습 공동체 배양을 위해 사람과 공동체 활동에 기반해야 함을 이야기한 바 있다. 학습 공동체는 반드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안 위에서 구축해야 한다(p. 30). 권한 부여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본 보고서는 학습 공동체 활동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구조 및 프로그램 개발 참여
- 폭넓은 사안에 대한 지역 내 해결 방안 모색 및 혁신적인 방식으로 공동체 문제 해결
- 공동체 발전 또는 학습 프로그램을 대표하지 않는 그룹 구성원의 참여 적극 모색
-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 반영 및 관련 행동의 주기적 절차 수행

흄 학습 공동체 과정 평가는 성공을 위한 비슷한 원칙을 개발했으며, 다음과 같다.

- 리더십: 명확히 합의를 이룬 비전에 기반한 리더십. 비전과 전략적 계획, 신뢰, 현재 및 미래 추세를 결합하고, 항상 '사람이 먼저'인 전략.
- 정부, 기업, 지역사회 간 협력적 파트너십
- 사회적 자본 형성
- 학습 기회, 기념, 이벤트 및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구성원을 위한 참여
- 장기적 학습 과정 보장을 위한 역량 구축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알려진 높은 수준의 공동체 신뢰 및 상호작용을 구축하고 반영하는 활동이다. 사실 수 킬패트릭(Sue Kilpatrick 2000)은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 등에서의 연구를 통해 '학 습 공동체는 학습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갖춘 지역 사회는 곧 학습 공동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p. 5).

결론

케년(Kenyon 2002)은 학습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교육 관점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습과 연관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특징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이러한 공동체 안







The 9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



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건강한 환경 • 경제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한다.

패리스(Faris)의 주장에 따르면, 본 접근 방식은 공동체 학습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트리플 라 인으로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환경적 접근방식은 토지 및 인류 공동체가 주변 생활 환경과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에 대한 존 중에서 찾는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연합체 구성은 학습 공동체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다. 결국, 주로 정규 학습을 통한 인적 자원과 비공식, 비정규 학습 등의 사회적 자본 을 축적하여 자산 기반의 접근 방식을 배양한다. 즉, 평생학습이 원칙과 사회적 목표를 구성하는 것이다(인용: 2005 호주성인학습연합회, p. 27)

그러나, 이 열망만큼이나 이상적인 것은 지속가능한 학습 도시의 목표가 정부의 리더십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의 모든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정부 수준에서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열망으로서가 아니라 통치 절차로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습이 포함된 인프라 시설 및 절차 개발에 있어 특히 주 정부, 특히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것이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방 자치 단체 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발하고 시범 운영해야 하는 이유다(Gastil and Levine 2005). 현재 이행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과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박스 3은 가장 손쉽 게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지침 및 사례 목록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다.

박스 3

공공 참여를 위한 도구

- □ 공동체 계획 안내서 및 웹사이트
- □ 지역사회 참여 요점 계획
- □ 효과적인 참여 계획 도구
- □ 참여 도구
- □ 지역사회 참여 전략을 위한 기회

이러한 자원의 심의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전략의 중심에 장소의 개념이 있다. 도시 관리자와 공동체 그 룹 및 구성원은 당연하게 여기는 도시 생활의 생태적 지역의 범위와 자신이 소비하는 자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 인간 및 비인간 본성의 모든 영역에 대한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도시 삶의 현실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헌신과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은 곧 학습의 길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 적 자본, 학습, 천연 자본 보호를 모두 상호의존적으로 개발시키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다.



출처

Berry, T. (1988) The Dream of the Earth, Sierra Club Books, San Francisco.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DEE) (1998) Learning Towns, Learning Cities, DEE, Sudbury. Foster-Turley, P. (1996) Mak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Happen: The Role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ommunication, GreenCOM, Washington DC

Fuglesang, A. (1982) About Understanding: Ideas and Observations o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The Dag Hammarskjold Foundation, Uppsala.

Gastil, J. and Levine, P. eds (2005)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ndbook: Strategies for Effective Civic Engage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ssey-Bass, San Francisco.

Gentner, D. and Stevens, A., eds (1983) Mental Model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Gentner, D., & Whitley, E. W. (1997). Mental models of population growth: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Bazerman, M. Messick, D., Tenbrunsel, A and Wade-Benzoni, K., eds, Environment, Ethics, and Behavior: The Psychology of Environmental Valuation and Degradation, San Francisco, CA: New Lexington Press, San Francisco, 209-233.

Gladwin, T., Newburry, W. and Reisken, E. (1996) The usual mind as environmentally unsustainable: The unusual mind to sustain our common future, in J. Bernard Keys and Lloyd N. Dosier, eds, Academy of Management Best Papers Proceedings 1996, Georgia Southern University.

Glendinning, C. (1995) My Name is Chellis and I'm in Recovery from Western Civilization, Shambhala Books, Boston.

James Hillman et al (1995) The City as Dwelling, Dallas Institute of Humanities and Culture, Dalla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nd) Educating Cities, brochure.

Janicke, M. (1997) The political system's capacity for environmental policy, in Janicke, M. and Weidner, H., ed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A Comparative Study of Capacity-Building, Springer, Heidelberg. Kearns, P. McDonald, R. Candy, P. Knights, S. & Papadopoulos, G (1999). VET in the Learning Age: The Challenge of Lifelong Learning for All, Vol. 2, NCVER, Adelaide.

Kilpatrick, S. (2000) Community Learning and Sustainability: Practice and Policy, Keynote Address to First Conference on the Future of Australia's Country Towns, LaTrobe University, Bendigo

Learning City Network (1998) Learning Communities: A Guide to Assessing Practice and Progres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London.

Lee, J. N. (1993) Compass and Gyroscope: Integrating Science and Politics for the Environment, Island Books, Washington DC.

Milbrath, L. (1989) Envisioning a Sustainable Society, SUNY Press, Albany.

Morris, P. (2001) Learning Communities: A Review of Literature, Working Paper 01-32, Research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4) Environmental Indicators: OECD Core Set, OECD,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6) Lifelong Learning for All,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OECD, Paris.

Roszak, T. (1992) The Voice of the Earth, Simon & Schuster, New York.

Towards a European Learning Society (TELS) (nd) (URL: http://tels.euproject.org/background.cfm; accessed 2.1.06.

UNESCO (1997) Environment and Society: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for Sustainability,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UNESCO International Conference, Thessaloniki.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 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희욱 Huiuk Lee

대구 수성구청 평생교육과장

Head of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Suseong District Office in Dae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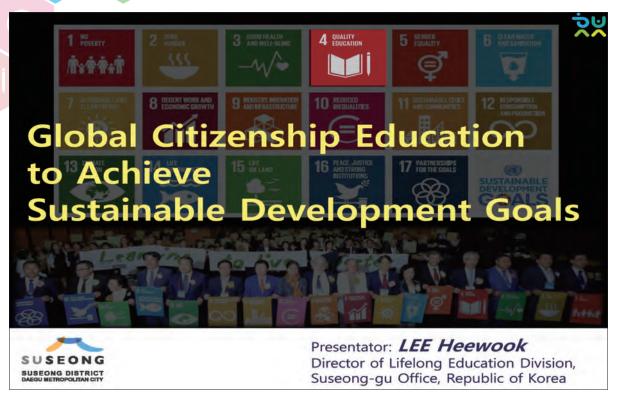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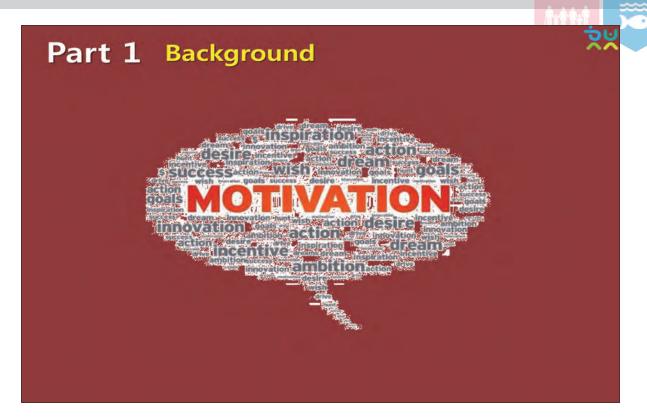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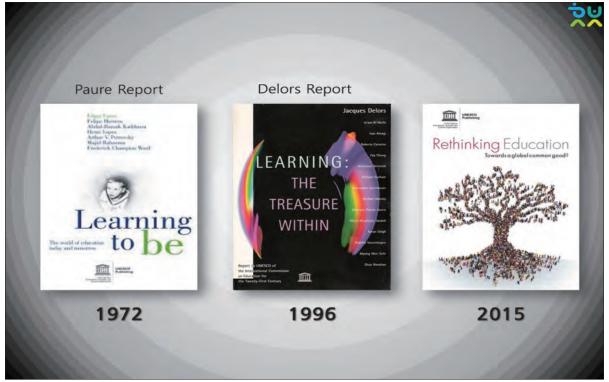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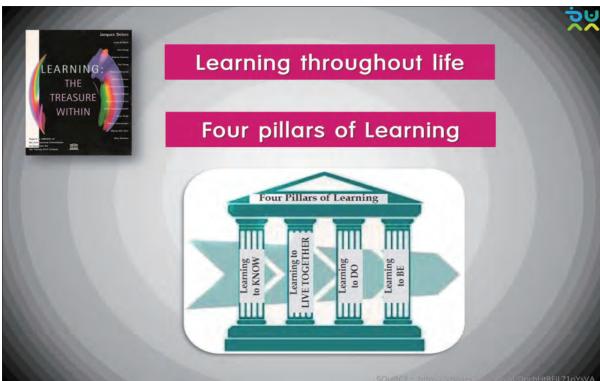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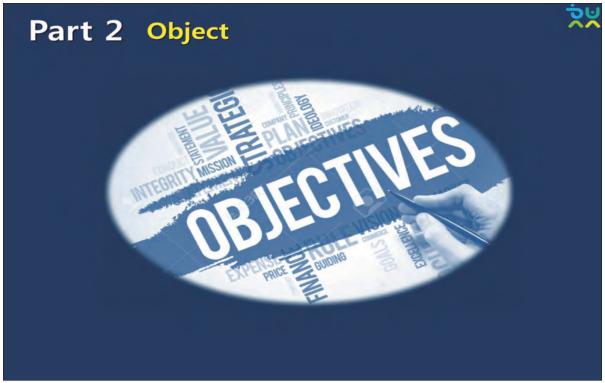


















(





사례발표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 글로벌 시민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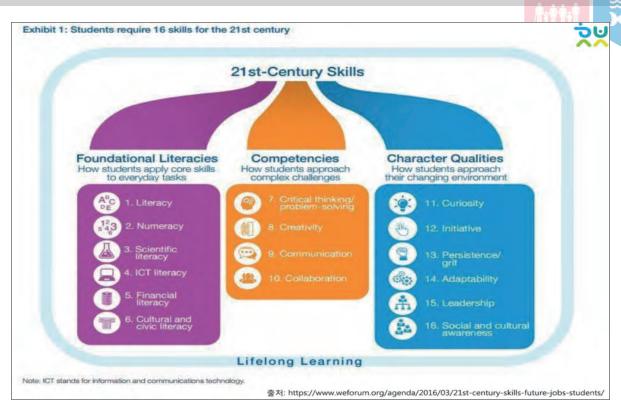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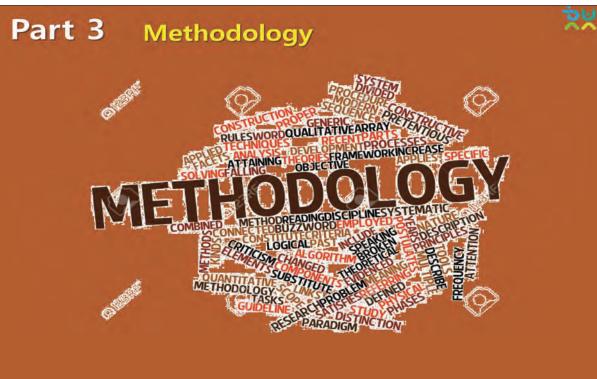


Suseong, a caring and happy district with elegant citizen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The 9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사례발표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 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









The 8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Joint Declaration on GCED Suseong-gu

The 8th IAEC Asia-Pacific Regional Meeting was held from 14th to 15th of September in Suseong-gu, Deegu, Republic of Korea under the theme of "The Role of Educating Cities to toste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nce in 2005 UNESCO declared the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ESD has been highlighted worldwide,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ecame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2012 educational agenda with the launching of the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by UN. In addition, the Incheon Declaration, drafted at the World Education Forum (WEF) stressed the need to develop, skills, values and attitudes that can help coping with regional and pan—global challenge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t is acknowledged through the 8th IAEC Asia—Pacific Regional Meeting, that people are no longer to five without external influences, thus people should learn the way to adapt and develop their capabilities to survive in rapidly changing societies and environments. This meeting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need for Educating Cities to share best practices in order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and peaceful coexistence, and demolishing myths, prejudices and social stereotypes.

Participants of this meeting declare that Educating Cities should commit to the following principles:

- O The 1996 Delors Report by UN argued that choices about education were determined by choices about what kind of society we wish to live in, Educating cities should come up with more effective education policies, putling eniphasis on "Learning to live together" based on the meritioned idea.
- O Educating Clitics commit to strengthening democracy by preparing globally responsible cilizenty, capable of engaging in local and global initiatives aimed at achieving a more just, secure and sustainable world. Educating cities should support and promotic elitizens' participation and improve human Rights by lostering their learning and providing opportunities to put what has been learnt into practice, in addition, this kind of education will be provided equitably for everyone in format, non-format and informat ways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race, class, or religion.
- O Educating Cities should be determinated to establish local policies to improve coexistence in all as well as to exp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the exchange of successful experiences from all kinds of felds.

Participants at the 8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shared the view that the fulfillment of the world community's responsibilities for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stated a priority for Educating Cities and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play a crucial rise in such a change, in conclusion, the Educating Cities and more concretely those belonging to the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represented herewith this group of mayors declare that they will devote efforts to face the challenge of "Learning to Live together".







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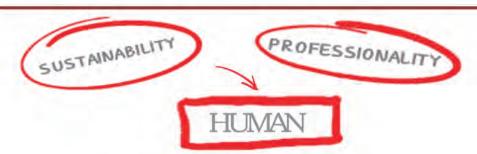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 교육

Participants of this meeting declare that Educating Cities should commit to the following principles:



- ✓ The 1996 Delors Report by UN argued that choices about education were determined by choices about what kind of society we wish to live in. Educating cities should come up with more effective education policies, putting emphasis on "Learning to live together" based on the mentioned idea.
- ✓ Educating Cities commit to strengthening democracy by preparing globally responsible citizenry, capable of engaging in local and global initiatives aimed at achieving a more just, secure and sustainable world. Educating cities should support and promote citizens' participation and improve Human Rights by fostering their learning and providing opportunities to put what has been learnt into practice. In addition, this kind of education will be provided equitably for everyone in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ways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race, class, or religion.
- ✓ Educating Cities should be determinated to establish local policies to improve coexistence in all as well as to exp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the exchange of successful experiences from all kinds of fields.





- 1 Cultivating Citizen GCED Experts
- 2 Develop customized education program for GCED

(

3 Providing Citizens with GCED









































Develop customized education program for G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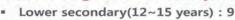
2018. 1. 25.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 교육

Providing Citizens with GCED [Global Citizen Academy] 2018 3D pen 2018 Robot 제2기 수성 세계시민 아카데미 Coding 세계시민 아카데미 2019 **Maker Education**

GCED Competition ²⁰¹⁹ PBL(Project Based Learning)

No.	Date	Topic	First class(80min)	Topic	Second class(80min)	Remark
1	7. 7.		Orientation / Ope	ning Ce	remony	Parent participation
2	7. 14.	6	Resolution tree in the earth village		Future mankind living with Robots	
3	7. 21.	1	Link connecting you and me	9	3D pen, Robot	
4	7. 28.	7	Save Mother Earth		3D pen, Robot	
5	8. 11.		UNESCO APCEIU Glob	bal Citize	en Campus	Fild Trip
6	8. 18.	4	Travel to find me		Project accomplishment time	
7	8. 25.	3	Hidden picture puzzle	9	Project accomplishment time	
8	9. 1.	2	Oh, no! My phone is gone!		Project accomplishment time	
9	9.5~6		The 3rd International C	onfere	ence on GCED	
10	9. 8.	8	Dilemma game	9	Project accomplishment time	
11	9. 15.	5	Living as a global citizen	9	Project accomplishment time	
12	9 22		Presentation by group /	Complet	tion Ceremony	Parent particip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Providing Citizens with GCED

[GCED Maker Clubs]



8 clubs

256 hr. learned GCED

MAKER CLUBS

57 students 335 hr. volunteer work













Providing Citizens with GCED



GCED Practice Competition Looking at the historical event 100 years ago with the prism of GCED,

and dreaming of the future 100 years toward

reconciliation and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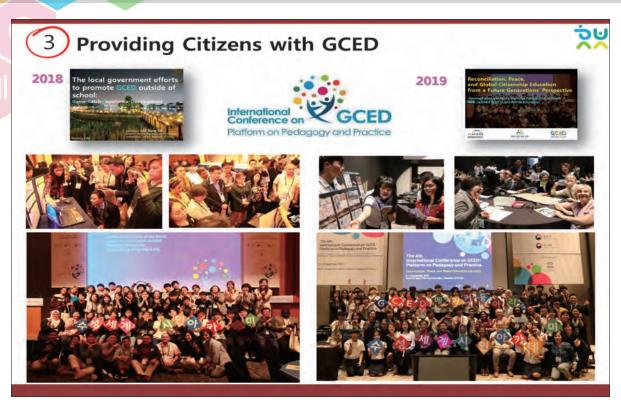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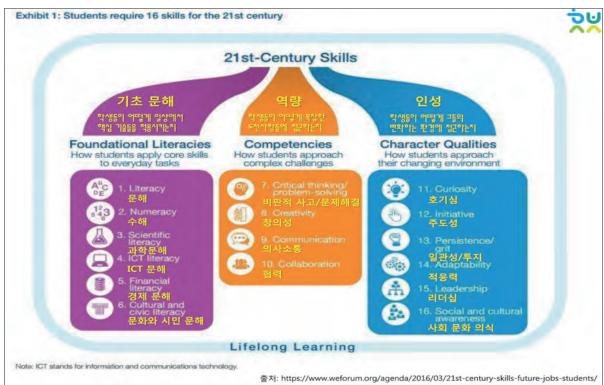
①





사례발표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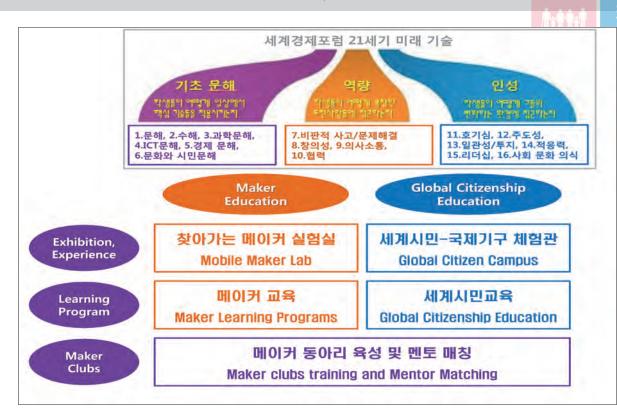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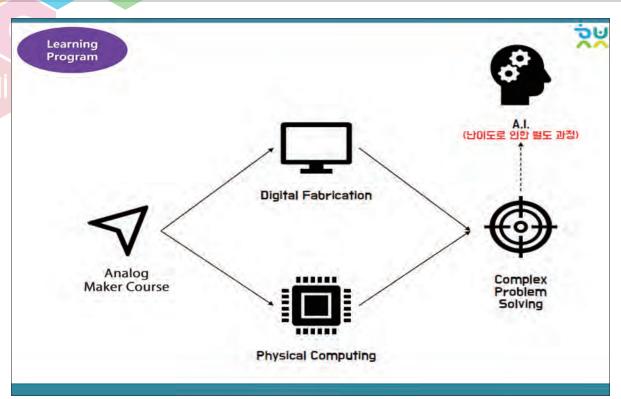
(





사례발표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 교육

(



Step	1		2	3	Separate
Course	Analog Maker	Digital Fabrication	Physical Computing	Complex Problem Solving	A.I. Course
	Structure (구조)	★ Think (개념 이해)	★ Think (개념 이해)	건강보장	Analytics
	Space (공간)	Structure (구조)	Structure (구조)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	Recognition 1
	Mechanism A (메커니즘 1)	Space (공간)	Space (공간)	상황 보존 및 사막화 방지	Recognition 2
Program	Mechanism B (메커니즘 2)	Mechanism A (메커니즘 1)	Mechanism A (메커니즘 1)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Supervised Learning
	Mechanism C (메커니즘 3)	Mechanism B (메커니즘 2)	Mechanism B (메커니즘 2)	사회기반 시설	Unsupervised Learning
	Storytelling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스토리텔링)	지속가능한 에너지	Reinforcement Learning
Upgrade onditions	Completion of 3 or more courses	Think(necessary)+ Completion of 1 or more courses	Think(necessary)+ Completion of 1 or more courses	Completion of 1 or more courses	Complete all cour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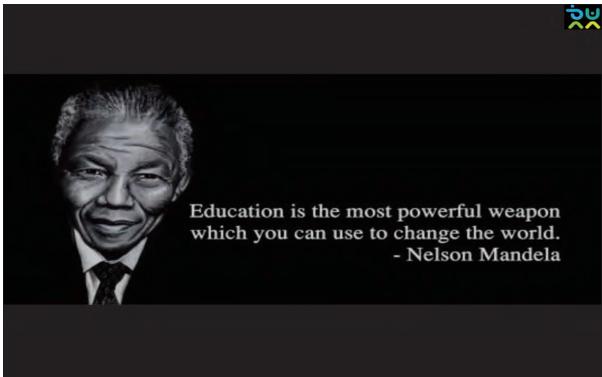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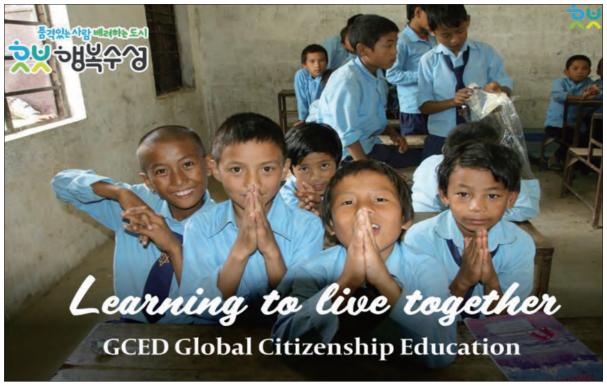
(





사례발표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 교육







Please prevent my peace From ending up as sadness of a neighbor,

Please prevent the comfort that we bask in From ending up as disasters for our children,

Please prevent the current abundance From ending up as future destitution...

나의 평온이 이웃의 한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이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할 재앙으로 남지 않도록...

현재의 풍요가 미래의 궁핍이 되지 않도록....















공공교육 2018-2024

Public Education 2018-2024

올리버 다스 도레스 다 실바 Olivier Das Dores Da Silva

브뤼셀 공공교육부프로젝트매니저

Project Manage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Brussels











사례발표 | 공공교육 2018-2024







Public Education 2018-2024

Soft mobility around schools





The City of Brussels, a new city by 2021-2022

- ····focused on the user (citizens, businesses and public officials)···
- ····which interacts with everyone, everywhere, at all times ···
- ····with an adapted and innovative mobility offering...
- ····and aligned with the principles of a city at the vanguard

















사례발표 | 공공교육 2018-2024

The City of Brussels as the organising authority

- Official subsidised education network (Wallonia-Brussels Federation).
- A broad educational action.

from nursery to higher education, via social and secondary artistic promotion with fewer hours (academies),

- A bilingual organising authority
- Permanent commitments from a human resources, pedagogical and material perspective.



The City of Brussels as the organising authority

The values enshrined in our educational project:

- Secular character.
- · Active neutrality: critical thinking and free inquiry.
- · Education as a model of democracy.

Respect of fundamental rights, equal opportunities and diversity.

Education accessible to all.

Schools Plan: provide more places
"Free of charge", attention given to children with specific needs, inclusion,





Public Education 2018–2024 | Best Practices



Soft mobility around schools



The experience of the School Street

The areas surrounding our schools are affected by the prevalence of cars in the City.

- Traffic jams, heavy traffic
- Anti-social driving, uncontrolled parking
- Insecurity of vulnerable users
- Pollution (survey by Greenpeace Belgium in 2017)















사례발표 | 공공교육 2018-2024



Triggers

- Urgent response required given the findings of the Greenpeace survey
 - · (Diesel) vehicle traffic primarily to blame
 - Children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air pollution
 - · 61% of schools have mediocre, unacceptable or poor outside air
- Strong mobilisation of parents in certain schools on this issue (Filter Café) via street blockades to protest and demand sustainable solutions.



The School Street concept

 This is a street, or a section of a street, which is closed when children arrive/leave school, Monday to Friday, only during school hours.

Aims:

- · Reduce vehicle pressure at peak times around the school
- · Change parents' choice of transport to school (modal shift)
- · Reduce pollution at peak times
- Enhance safety for vulnerable users
- Encourage walking, cycling and public transport





2 experiments, 2 School Street models, 8 ongoing projects

- 1. Rue Eclusier Cogge (nursery school)
- 5-month test in 2018
- Street is closed 4 days in the week,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 School staff
- · Support from supervisors and police
- Coordination of various municipal services (Mobility, Roadworks, Public Education, Police, etc.)
 - Positive test, although it was abandoned due to limited benefits for the school

















사례발표 | 공공교육 2018-2024



Rue de Braie

- School street that has been totally closed to traffic
- Excellent involvement and support from schools and parents
- Support from the City, with a reconditioning of the road and the installation of specific street furniture
- Police support for the permanent closure of the street (as there are no longer enough human resources to be put in place)



Activity organised in the School Street





3 schools involved

- School population 1200
- One-way street for traffic
- Limited impact on residents
- Street closed off using barriers
- Installation of specific street furniture



Model has evolved

- Definitive closure of the street to traffic
- Immediate advantage: no more through-traffic
- No longer necessary to organise the closure/opening of the street with human resources
- Appropriation of the public space by students in local schools
- No complaints from residents















사례발표 | 공공교육 2018-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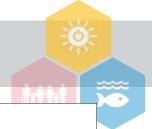




Prospects for School Streets

- Continue the experiments and make the model permanent if the results are positive
- Take into account the issue of pollution by installing sensors to measure fine particles (PP). Before and after the School Street
-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residents, and businesses in the project (communications/information sessions/surveys)
- 8 new projects for School Streets are being examined for 2019-2020





Other ongoing initiatives

- Electric cargo bikes for delivering school mail
- No more school buses to the swimming pool, replaced by walking for all trips shorter than 1.5km. Prioritise public transport before short trips in the city
- Introduction of a 'bike library' for primary school pupils as part of their cycling training (cycling certificate)



Soft mobility in the City

- Electric cargo bikes
 - · Grouping of internal school mail
 - · 3 active bikes; 20 schools involved
 - 22h per week saved in total (½ FTE in total)













사례발표 | 공공교육 2018-2024

Soft mobility in the City







Soft mobility in the City

- Walking to the swimming pool (phasing out of school buses)
 - 6 new schools involved
 - 800 schools bus trips saved every year
 - 150,000 saved for parents and the City of Brussels
 - Improved air quality and mobility in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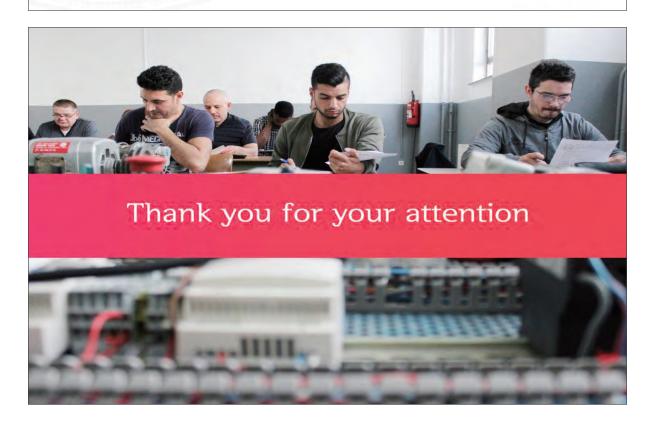




Soft mobility in the City

- Introduction of an educational 'bike library' in 2019
 - Fleet of 50 children's bikes and 10 adults' bikes
 - Learning to ride a bike with bikes adapted to children (cycling certificate)
 - · More school trips by bike











사회적 변화와 이웃 통합을 위한 도구 인 Plac na Glanc 프로젝트

The Plac na Glanc project as a tool for social microchange and neighborhood integration

마르친 크루파 Marcin Krupa

카토비체시장 Mayor of Katowice











사례발표 | 요약분



사회적 변화와 이웃 통합을 위한 도구 인 Plac na Glanc 프로젝트

'마당 꾸미기(Plac na Glanc, Pimp my Yard)'란?

카토비세 '마당 꾸미기(Plac na Glanc, Pimp my Yard)'는 대중의 인식 제고와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다. 매년 마당 꾸미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공간의 모습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은 본래 이에 대한 책임이 있기도 하다.

전체 설계 과정은 사회 참여, 풀뿌리, 책임성 있는 설계에 기반한 형태이며, 이는 거주민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거주민이 함께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카토비세의 '마당 꾸미기(Plac na Glanc)'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는 공간이 될 것이고,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가 영향을 주기도 하며 거주자 주변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당의 이미지가 변하면 이웃 간 교류도 늘어나는데, 이들은 우선 설계자와 소규모 건축 요소를 구성한 뒤 변화된 공간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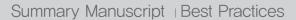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마당 꾸미기(Plac na Glanc)' 프로젝트가 최신 설계 솔루션을 활용하여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공적 공간 설계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

본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학과 재활용 방법의 경계에 있는 해결책을 예상할 수 있다.









The Plac na Glanc project as a tool for social microchange and neighborhood integration

Presentation of The Plac na Glanc Pimp my Yard.

The Plac na Glanc [Pimp my Yard] project in Katowice educates and changes public awareness. Every year, it proves that the inhabitants have an influence on what their nearest space looks like. What's more - they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it.

The entire design process is based on social participation, grassroots and responsible design, not only for residents but with them. Plac na Glanc, is to become a model space, which will be inspired by the inhabitants of other tenements and if possible, will change their surroundings.

As the image of the yard changes, the amount of interaction between neighbours increases, who first create elements of small architecture with designers, and then take care of the changed space.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is that the Plac na Glanc project is one of those activities which, using the latest solutions in design, is to show good practices and set new directions in design in public space. The project also assumes the use of solutions from the border of ecology and recycling methods.



















사회적 변화와 이웃 통합을 위한 도구 인 Plac na Glanc 프로젝트







PLAC GLANC



The organizer of the Plac na Glanc project is the Culture Institution **Katowice - City of Gardens**

(





IDEA

The project is concerned with the revitalization of Katowice's yards, with the overall goal of proving that by banding together, a city can be changed. It promotes good design which results from cooperating with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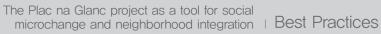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사회적 변화와 이웃 통합을 위한 도구 인 Plac na Glanc 프로젝트



COMPETITION FORM

Every year, the yards are chosen from plazas and yards submitted by citizens. Every submission must contain photographs and a justification.







stitution
•
orhood?









The 9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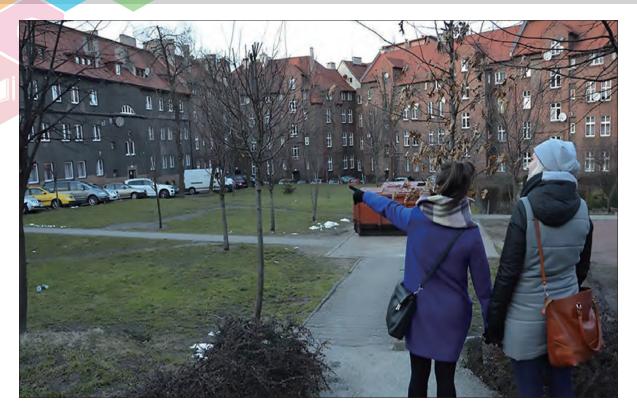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사회적 변화와 이웃 통합을 위한 도구 인 Plac na Glanc 프로젝트



CONSULTATION

After choosing a yard, the conceptual and project works begin, which consist of consultations with designers and inhabitants. This way, a project of a "new" yard is born, one answering the citizens' needs and proper renovation works can begin.



The Plac na Glanc project as a tool for social microchange and neighborhood integration | Best Pract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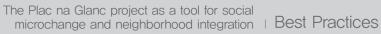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사회적 변화와 이웃 통합을 위한 도구 인 Plac na Glanc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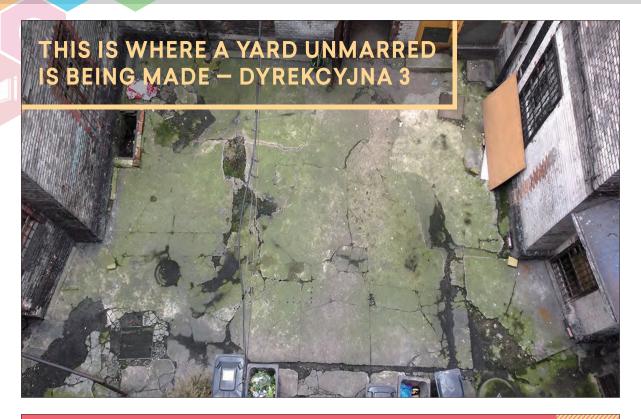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사회적 변화와 이웃 통합을 위한 도구 인 Plac na Glanc 프로젝트



PLAC NA GLANC AND CHANGE

The project's most important goal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through revitalizing their environment and kick-start social activity, as well as build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urban space.



A:PE

The revitalization does not consist solely of aestheticization. The social scope of the project is just as important. Plac na Glanc is a project serving social and urban microchange. Because the project is realized in a small space and is focused on a very specific group of people, its impact is much more tangible.

The project is to integrate society on every stage of its execution:

- → submitting a yard
- → consultations
- → execution / renovations
- → opening
- → using the yard

The project's result, apart from the very important visual and functional aspects, is the creation of a bond between citizens.















사회적 변화와 이웃 통합을 위한 도구 인 Plac na Glanc 프로젝트



THE MOST IMPORTANT SOCIAL **MICROCHANGES**

- → caring for the space
- →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space
- → leaving the house / spending time together
- → rebuilding neighborhood relationships
- → a sense of safety, increased trust in neighbors
- → increasing a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 → inspiration



Plac na Glanc is an idea that very much melded our neighborhood community together. First of all, the yard connects two flats, which is why not all of us met each other on the stairs and not everyone knew each other. Second of all, until now we didn't have a place where we could meet up after work, by pure accident. Third of all, the renovations of the yard and ou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made us all responsible for our Yard, so we take care of it carefully observe who's there and what they're doing. We spend a lot of time at the Yard: we walk our cats, play board and card games, spend our Sunday mornings, we clean and meet our friends. We wouldn't hesitate a second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once again.

(

Katarzyna Szczytowska inhabitant of the yard on Rymera 2 / Kościuszki 47









The Plac na Glanc project as a tool for social microchange and neighborhood integration | Best Practices

99

The Plac na Glanc projec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utual integration of our respective flats' inhabitants. Neighborhood relationships were formed, once we lacked before.

Together we sow grass, maintain cleanliness at the yard, we began to visit each other. When someone leaves for tea to the yard, we call for others to keep company. The elders play chess and checkers, the kids play in the sandbox and play ball. Looking out of our windows, we no longer see just the train tracks, but a colorful wall and blooming heather.

The day already starts a lot better.

Wojciech Zaremba inhabitant of the yard on Czarnieckiego 1, 3

99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당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 교육

Implementation and education of Dangj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박훈 Hoon Park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Director Sustainable Development Officer Dangjin City











사례발표 | 당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 교육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 당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 교육

(



당진시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 당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 교육

(

INDEX

- 01. 지속가능발전 추진배경
- 0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로드맵
- 03.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교육
- 04. 시민실천의 추진방향



Dangj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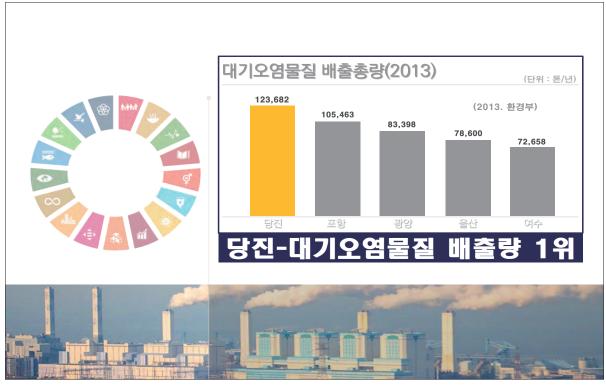






사례발표 | 당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 교육







Implementation and education of Dangj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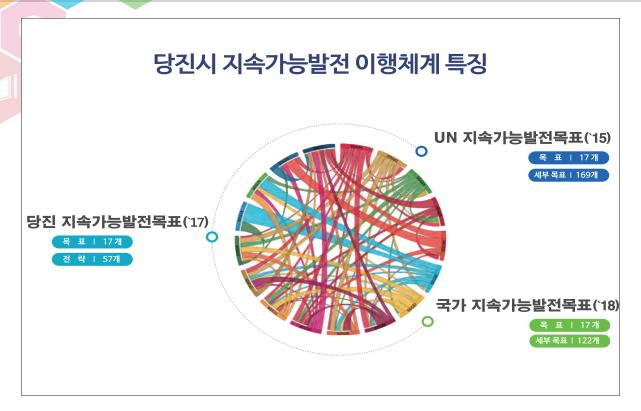


(





사례발표 | 당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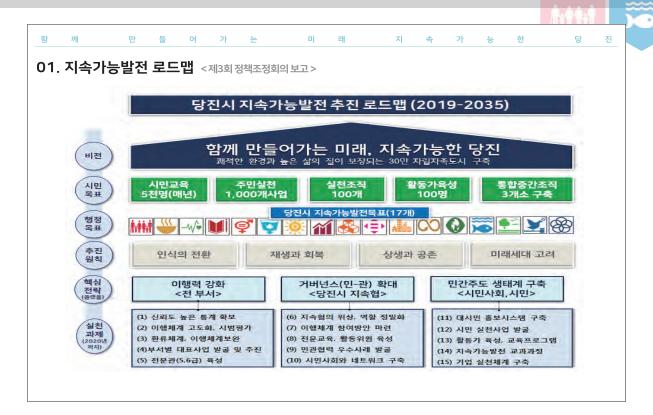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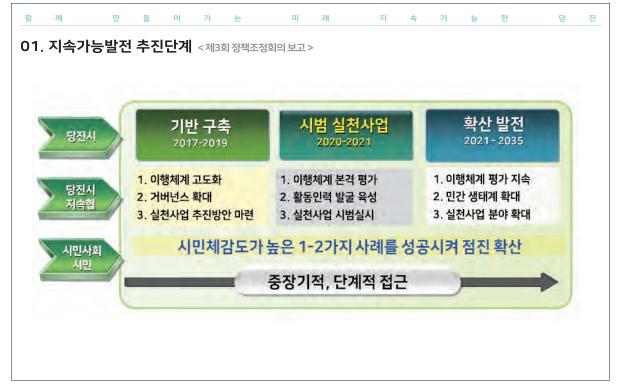




Implementation and education of Dangj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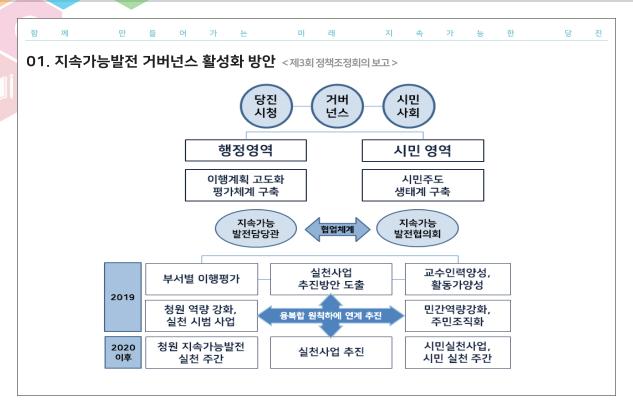
①





사례발표 | 당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 교육

(







Implementation and education of Dangj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민관의 역**할**



민관 역할분담 및 시행예산('18년도)

	당진시	당진 지속협
교육대상	 공무원(6급 이하) 지속협 위원	시민지속협 분과위원
목적	인식개선전문가 양성(1회)신규・예비위원교육(1회)	∘ 인식개선 및 참여 ∘ 지역 의제 발굴
교육회수	연 10회연 2회	∘ 연 8회 ∘ 연 4회(워크숍)
18년도 예산	10,000천원 (공무원)20,000천원 (민간위원)	4,800천원(외부기관 공모사업)

















사례발표 | 당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 교육

지속가능발전 지역 전문가 양성 교육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는 내부학습을 통해 인식 공유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작은 워크숍









거버넌스는 내부학습을 통해 인식 공유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작은 워크숍



거버넌스의 지속가능발전









(





사례발표 | 당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 교육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

(



거버넌스의 지속가능발전 인식개선 교육 시행





Implementation and education of Dangj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한 께 만 들 어 가 는 미 래 지 속 가 능 한 당 진

01. 시민실천의 추진방향 <시민참여와실천의중요>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게 다루어짐 *원인자부담의 원칙(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

지역 지속가능발전 역량 = 거버넌스의 강도, 범위, 역량 *1,2,4회 정책조정회의의 핵심 키워드 → 거버넌스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시민실천은 재정절감과 직결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폐기물, 수자원문제

시민실천이 확대되는 정책 → 유지가능성이 높은 정책 *장기적인 사업(계획)일수록 시민인식, 실천 문제 중요

시민실천과 참여의 경험이 확장 → 행정의 영역 넘어서 *민주적 원칙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담보되어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

01. 시민실천의 추진방향 <시민실천의추진전략>

1, 쉽고 재미있는 구성

-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 방식
-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속적 확산이 가능한 구조

2. 시민조직, 공동체 중심 구조

- 시민모임(최소 5인), 주민조직, 초중고 학교, 기관,기업,단체가 중심
- 특히,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는 활동목표에 지속가능성 대입 주력

3. 단계별 점진적 육성

- 여러분야, 소규모 추진 → 성공사례 도출 후 점진적 확산
- 아이디어 → 구체화 → 실천 → 확장된 공동체로 단계별 육성
- 일자리, 공동체, 주민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지속적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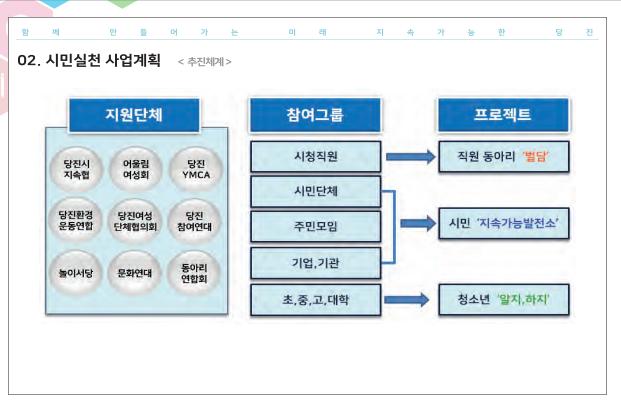


①





사례발표 | 당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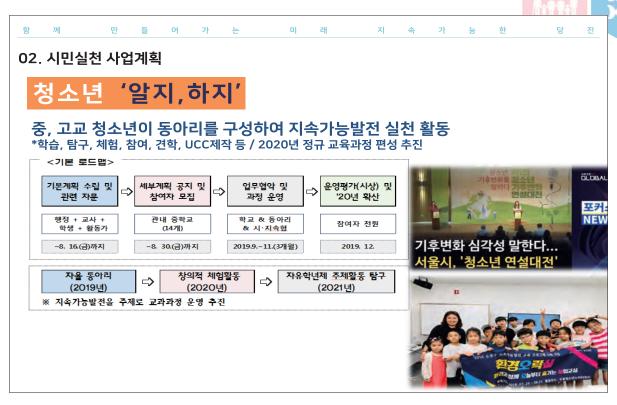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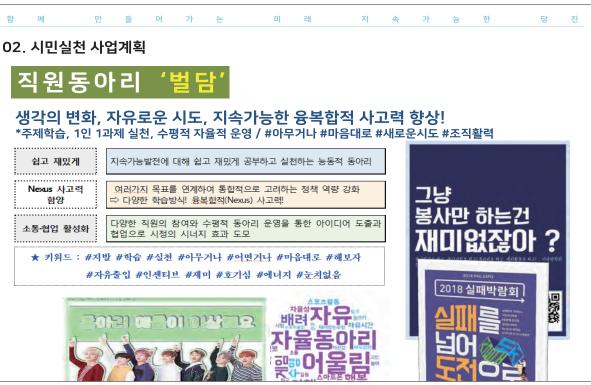




Implementation and education of Dangj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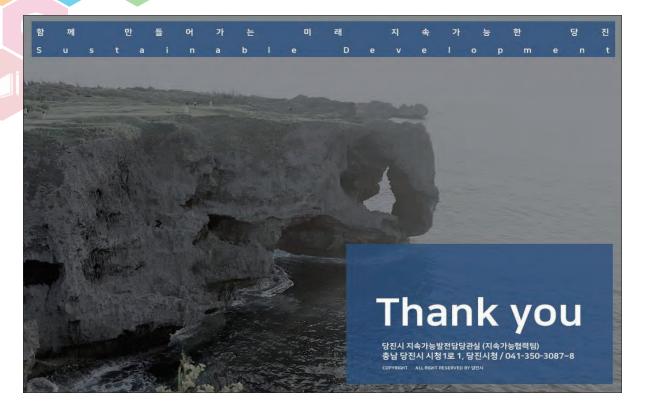








사례발표 | 당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천과 교육





Implementation and education of Dangj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est Practices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Education Cities

이선경 Sunkyung Lee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nd Educating Cities



Sun-Kyung Lee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9 The 9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O

Oct. 18th, 2019 Dangjin City

Contents

- 1. Introduction
 - Complexity of Issues in the real world
 - International and Korean Contexts
 - : DESD, GAP, SDGs, E for 2030, K-SDGs
- 2. SDGs and Educating Cities
- 3. Roles of Educating Cities for SDGs
- 4. Integrating Strategies of SDGs into Policies of Educating Cities



Introduction: Complexity of Issues

- Waste vinyl(plastic bags) issues in Korea in April, 2018
 - <- as the waste plastic collectors didn't take it
 - <- as the collectors couldn't export it any more cheaply to China
 - <- as China didn't want to import waste vinyl/plastics any more
 - <- as China didn't want to be called as 'Plastic China' any more
 - <- as Jiu-Liang Wang made the film called 'Plastic China' and Xí Jìnpíng announced 'Ecological civilization'....

<-



Introduction: Complexity of Issues

- Waste vinyl(plastic bags) issue
- Solved temporarily a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rdered the collectors to collect the clean waste vinyl
- The collectors might find alternatives among South Asian countries.
- But, what if those countries wouldn't want to take it (in the future)?
- Grounded on complexity
- Based on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 cultural aspects
- Deeply related to equity issues
- What about other issues such as energy or climate change...?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Introduction: Complexity of Issues

- Citizens' Decision Making for the Future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2017
 - 24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6 Under construction (4 nearly finished), 4 planned
 - Pros : Cons = 5 : 5 in public opinions





Introduction: Complexity of Issues

- · Citizens' Decision Making for the Future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2017
 - Public hearing & debates were going on among 471 citizens' participation group for 3 intensive days.
 - Citizens' decision making to proceed to 2 under construction ones, but not to start 4 new ones.
 - <- Public citizens equipped with Sustainability Literacy through Life-long Learning needed.







Introduction: Complexity of Issues

 Disaster-like Heatwave and Flood, Climate Change in 2017-2019



Introduction: Complexity of Issues

- Complexity of Issues in the real world
 - -> Needs to Understand Complexity of issues in the real world in terms of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 cultural dimensions
 - -> Needs to cultivate sustainability competences including critical thinking, system thinking, future visions, etc.
 - -> Needs to consider sustainability and equity for sustainable future
 -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2005)
- Decade of ESD, GAP, 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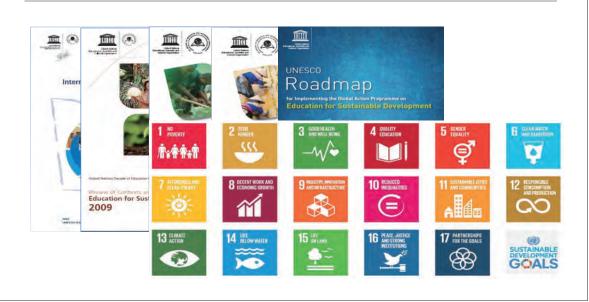
(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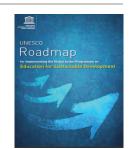
Introduction: International Contexts



Introduction: Korean Contexts

(

GAP 2015-2019
 KNCU – PN2
 APCEIU – PN3
 Tongyeong RCE – PN3



K-SDGs developed (2018. 3~12)
 The 9th NCSD established (2018.8~)
 The 1st SD Week (2019.10.21~25)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4.1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complete free, equitable and qualit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ading to relevant and Goal-4 effective learning outcomes



4.2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have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so that they are ready for primary education



4.3 By 2030, ensure equal access for all women and men to affordable and quality technical, vocational and tertiary education, including university



4.4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youth and adults who have relevant skills,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for employment, decent jobs and entrepreneurship



4.5 By 2030, eliminate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and ensure equal access to all level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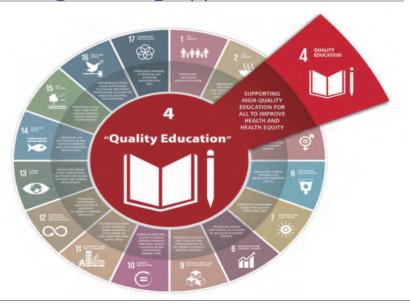
4.6 By 2030, ensure that all youth and a substantial proportion of adults, both men and women, achieve literacy and numeracy



4.7 By 2030, ensure that all learners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Real World Issues and SDGs











































Real World Issues and SDGs

• 'Limiting warming to 1.5°C is possible within the laws of chemistry and physics abut doing so would require unprecedented changes..... changes to energy systems, changes to the way we manage land, changes to the way we move around with transportation' - Jim Skea, Co-Chair of IP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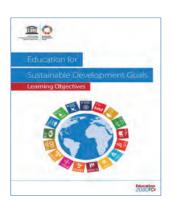






Key Competencies for Sustainability

- Cross-cutting key competencies for achieving all SDGs
 - System thinking competency
 - Anticipatory competency
 - Normative competency
 - Strategic competency
 - Collaboration competency
 -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 Self-awareness competency
 - Integrated problem solving competency



* Source: UNESCO, 2017

SDGs and Educating Cities

In Our (Educating) City,

- What should be sustainable?
- For whom, it should be sustainable?
- How long it should be sustainable?
- What kinds of educational activities needs to be implemented?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SDGs and Educating Cities



 The Roles and Functions of Educating Citie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IAEC) (Yoo et al., 2017)

(based on the Charter of Educating Cites and the declar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es of IAEC)

- 1) developing all its inhabitants and giving priority to children and youth, but with a commitment to including people of all ages in lifelong learning;
- 2) promoting social inclusion and social, cultural, political, economical, racial, gender, intergenerational, educational, health, and digital equity;
- 3) collaborating with various educational and non-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gencies with the city;
- 4) having active relationships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other educating cities, and the country it belongs to in terms of learning, exchanging, and sharing experiences to enrich the lives of the inhabitants.

SDGs and Educating Cities



 The Roles and Functions of Educating Citie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IAEC) (Yoo et al., 2017)

(based on the Charter of Educating Cites and the declar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es of IAEC)

- 1) developing all its inhabitants and giving priority to children and youth, but with a commitment to including people of all ages in lifelong learning SDG 4
- 2) promoting social inclusion and social, cultural, political, economical, racial, gender, intergenerational, educational, health, and digital equity SDG 3, 4, 5, 10, 11, 16
- 3) collaborating with various educational and non-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gencies with the city SDG 4
- 4) having active relationships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other educating cities, and the country it belongs to in terms of learning, exchanging, and sharing experiences to enrich the lives of the inhabitants. SDG 11, 1, 2, 6, 7, 8, 9, 12, 13, 14, 15, 16, 17



SDGs and Educating Cities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 Started in 2015 to contribute for life-long learning for all
- The UNESCO GNLC supports the achievement of all seventee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particular SDG 4 and SDG 11.
- by promoting policy dialogue and peer learning among member cities; forging links; fostering partnerships; providing capacity development; and developing instruments to encourage and recognize progress made in building learning cities.
- 52 Countries 224 Cities/Korea 44 Cities (2019. 01.)

Lifelong Learning Cities (Korea)

- designated as a lifelong learning city since 2001 to lay the foundatio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lifelong learning city creation project after the **Lifelong Education Act** was enacted in 2000,
- Support local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projects b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local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 budget, manpower, etc.) and establishing a local lifelong learning network.
- 169 Cities/Counties/Districts



Roles of Educating Cities for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 a process that all stakeholders learn, discuss and agree to create a vision for the future, set specific plans,
- which requires constant reflection on what is going on
- -> Need for social learning process, involving and reflecting society as a whole (Lee *et al.,* 2012)

Social learning

- a collaborative, emergent learning process that hinges on the simultaneous cultivation of 'difference' and social cohesion
- in order to create joint ownership, unleash creativity and the kind of dynamic and energy needed to break with existing patterns, routines or systems (Wal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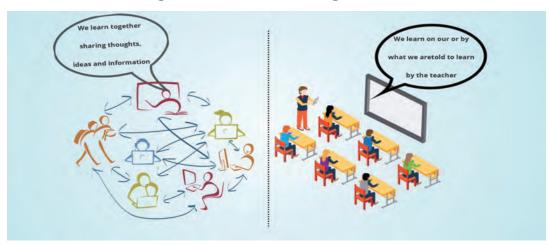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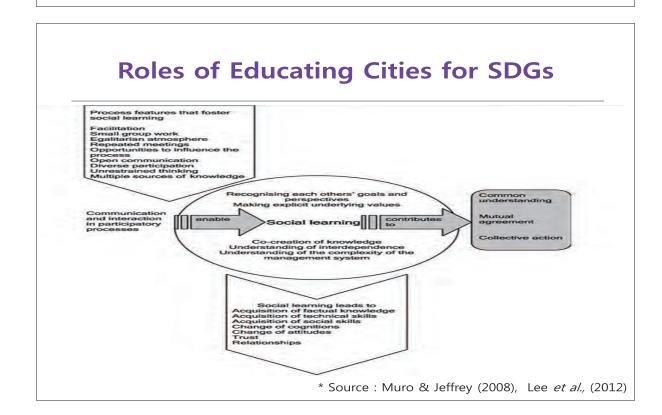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Roles of Educating Cities for 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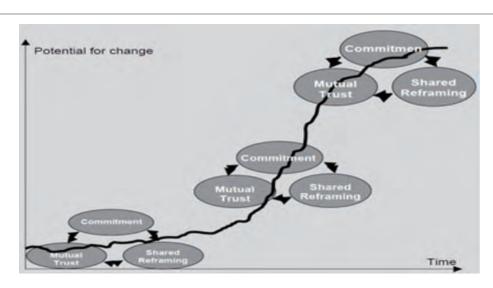
Social learning vs Formal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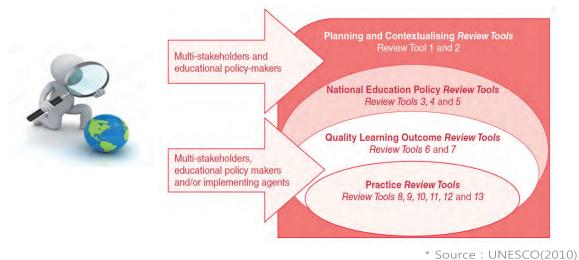
Roles of Educating Cities for SDGs



* Source : Wals (2012)

Integrating Strategies of SDGs into Policies of Educating Cities

Review and Reflect through ESD/SDGs Lens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Integrating Strategies of SDGs into Policies of Educating Cities

Analyze Polices with SDGs

Policy Themes

Climate change--Traffic ----Energy ----Women ----Aged group ----Housing ----City planning ----



Social Actors

---- Schools
---- Sports clubs
---- Local gov.
---- Industries
---- Restaurants
---- Senior clubs
---- Commercial group

SDGs

DG17

SDG1 SDG2 SDG3 SDG4 SDG5

Integrating Strategies of SDGs into Policies of Educating Cities

 Meet and communicate with stakeholders to build learning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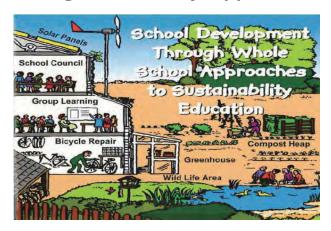






Integrating Strategies of SDGs into Policies of Educating Cities

Mainstreaming Sustainability through Whole-City-Approaches





* Source: DCSF(2006)

Integrating Strategies of SDGs into Policies of Educating Cities

- Key 'processes' underpin ESD frameworks and practices.
 - processes of collaboration and dialogue (multi-stakeholder & intercultural)
 - processes which engage the 'whole system'
 - processes which innovate curriculum as well as teaching & learning
 - processes of active and participatory learning.
- 'Learning' for ESD refers to what has been learnt and is learned by those engaged in ESD, including learners, facilitators, coordinators as well as funders.
 - learning to ask critical questions;
 - learning to clarify one's own values;
 - learning to envision more positive and sustainable futures;
 - learning to think systemically;
 - learning to respond through applied learning; and,
 - learning to explore the dialectic between tradition and innovation.

* Source : Tilbur<u>y, D. (2011)</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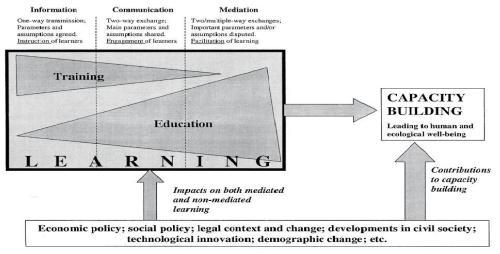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Integrating Strategies of SDGs into Policies of Educating Cit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pedagogy do not contribute to learning or capacity building if they are false, useless to the recipient, domineering or exploitative. Some learning occurs without any deliberate third party intervention.

* Source : Scott & Gough (2003)

감사합니다. Thank you.



Sun-Kyung Lee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sklee@cje.ac.kr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제 9회 국제교육도시(IAEC) 아태 지역 네트워크 회의

2019. 10. 18 당진시

내용

- 1. 서론
 - 실제 세계 쟁점의 복잡성
 - 국제적, 한국적 맥락: DESD, GAP, SDGs, E for 2030, K-SDGs
- 2. SDGs와 교육도시와의 관련
- 3. SDGs 달성을 위한 교육도시의 역할
- 4. 교육도시 정책에의 SDGs 통합 전략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서론: 쟁점의 복잡성

• 2018 폐비닐 대란

- <- 폐비닐 수집업체 수거 거부
- <- '싸게' 중국에 수출 불가
- <- 중국 폐비닐 수입 거부
- <- 더 이상 'Plastic China' 거부
- <- 왕 지우-리앙 감독의 'Plastic China' + 시진핑 주석 'Ecological civilization' 표명

<-



서론: 쟁점의 복잡성

• 2018 폐비닐 대란

- 정부와 지자체가 수집업체에 '깨끗한 비닐' 수거하도록 명령하여 <mark>단기적으로</mark> 해결
- 수집업체는 수출 가능한 다른 동남아 다른 국가 찾음
- 그러나 이들 나라들도 (미래에) 수입 거부하면 ?

- 복잡성(complexity)에 기반
-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 기반
- 형평성(equity) 과 긴밀히 관련
- 에너지나 기후변화 등 다른 쟁점은 ...?





서론: 쟁점의 복잡성

-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2017
- 국내 원자력 발전소 24기6기 건설중 (4기 완료, 2기 중단), 4 신설 계획중
- 찬성: 반대 = 5:5 (대중 의견)





서론: 쟁점의 복잡성

-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2017
- 현 정부 시민의견 수렴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립
- 471 시민, 2박3일 집중 숙의과정 참여 -> 공청회와 토론
- 시민들 의사 결정
 - => 건설 중이던 2기 계속 추진, 신설은 반대
 - <- 지속가능성 소양(Sustainability Literacy) 가진 시민과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중요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서론: 쟁점의 복잡성

• 재난 수준의 폭염, 기후변화 201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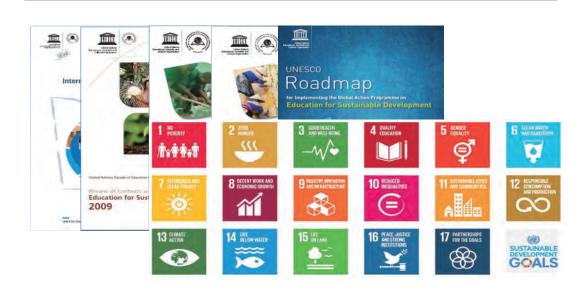
서론: 쟁점의 복잡성

- 실제 세계 쟁점의 복잡성
 - 실제 세계의 쟁점이 가지는 연계성과 복잡성 이해와 문제 해결 전략 필요
 - ->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연계와 통합 이해 필요
 - -> 비판적 사고와 시스템 사고 등의 역량 증진 필요
 - ->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사회와 미래를 만드는 데 필수적 (UNESCO, 2005; 이선경, 2010)
 -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DESD), 국제실천프로그램(GAP),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서론: 국제적 맥락



서론: 한국의 맥락

(

GAP 2015-20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PN2
아태국제이해교육원 - PN3
통영 RCE - PN3

 $(2019.10.21 \sim 25)$



UNESCO Roadmap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세부목표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양질의 영유아 발달,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목표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름 실질적으로 늘린다.

INDEX 4 CONSTRUCT OF MAINTANA HOLLINGS



세부목표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 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 Source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실제 세계 쟁점과 SDGs

(





























8







①









•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정도로의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 에너지 체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땅을 어떻게 관리하 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 짐 스키어 교수 (IPCC 공동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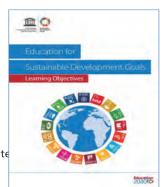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역량 Key Competencies for Sustainability

- SDGs를 성취하기 위한 핵심 역량 Cross-cutting key competencies for achieving all SDGs
 - 시스템사고 역량 System thinking competency
 - (미래) 예상 역량 Anticipatory competency
 - 규범 역량 Normative competency
 - 전략 역량 Strategic competency
 - 협력 역량 Collaboration competency
 - 비판적 사고 역량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 자기 인식 역량 Self-awareness competency
 -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 Integrated problem solving compete



* Source: UNESCO, 2017

SDGs와 교육도시

우리 (교육)도시에서는

- **무엇이** 지속가능해야 하는가 ?
- 누구를 위해 지속가능해야 하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가능해야 하는가?
- 어떤 형태의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SDGs와 교육도시

- 교육도시의 역할과 기능 (유기웅 외, 2017)
 - 교육도시헌장과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선언문 분석
 - 1) 평생교육 제공을 통해 모든 도시 거주자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발전에 힘쓸 것,
 - 2) 사회적 포용,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인종, 성, 연령, 교육, 건강, 디지털 형평성을 위해 노력할 것,
 - 3) 도시 내 각종 교육 및 비교육기관과 협력할 것,
 - 4) 도시 거주자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자연 환경, 다른 교육 도시 및 해당 국가와 활발한 관계를 맺을 것

SDGs와 교육도시

- 교육도시의 역할과 기능 (유기웅 외, 2017)
 - 교육도시헌장과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선언문 분석
 - 1) 평생교육 제공을 통해 모든 도시 거주자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발전에 힘쓸 것 – SDG 4
 - 2) 사회적 포용,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인종, 성, 연령, 교육, 건강, 디지털 형평성을 위해 노력할 것
 - SDG 3, 4, 5, 10, 11, 16
 - 3) 도시 내 각종 교육 및 비교육기관과 협력할 것 SDG 4
 - 4) 도시 거주자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자연 환경, 다른 교육 도시 및 해당 국가와 활발한 관계를 맺을 것
 - SDG 11, 1, 2, 6, 7, 8, 9, 12, 13, 14, 15, 16, 17

The 9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주제발표 □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SDGs와 교육도시

(

•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에 창설
- SDG 4번(양질의 교육)과 11번(지속가능한 도시) 이행 촉진을 위해 전 세계 학습도시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사례 공유, 정보 교환,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을 지원
- 가입현황: 52개국 총 224개 도시/한국 44개 도시 (2019년 1월 기준)
- **평생학습도시** (한국)
- 2000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



-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조직, 예산, 인력 등) 조성,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해 지역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
- 가입현황: 169 개 시군구

SDGs를 위한 교육도시의 역할

• 지속가능한 발전은

-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학습하고 논의하며 합의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꾸준한 성찰이 필요한 과정 -> 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성찰하는, 사회적 학습 과정 필요 (Lee *et al.,* 2012)
- 사회적 학습은
 - '사회적 응집력'과 '다름'을 동시에 배양하는 협력적이고 창발적인 학습과정으로
 - 기존의 패턴, 루틴, 시스템을 깨뜨리는 데 필요한 역동성과 에너지를 만들고, 공동의 소유의식을 창출하며, 창의력을 발휘하게 해 줌. (Wal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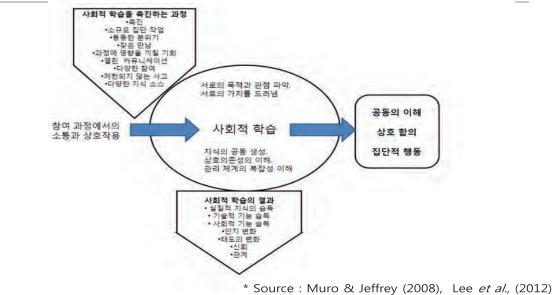


SDGs를 위한 교육도시의 역할

• 사회적 학습과 제도적 학습



SDGs를 위한 교육도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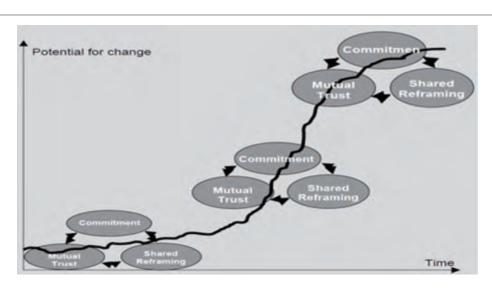






주제발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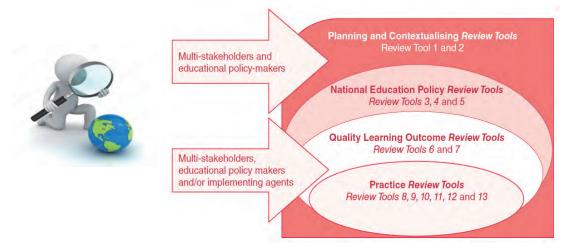
SDGs를 위한 교육도시의 역할



* Source : Wals (2012)

교육도시의 정책과 삶에의 SDGs의 통합

• ESD/SDGs Lens 를 통해 검토하고 성찰하기



* Source : UNESCO(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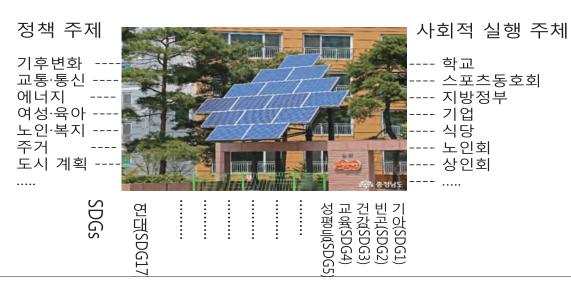




Ĥ:ŶŶŧŶ .

교육도시의 정책과 삶에의 SDGs의 통합

• SDGs로 정책 분석하기



교육도시의 정책과 삶에의 SDGs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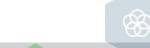
• 이해관계자들과 만나서 소통하기 - 학습공동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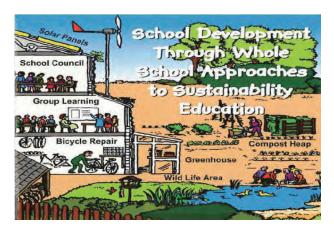


주제발표 │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교육도시

교육도시의 정책과 삶에의 SDGs의 통합

(

도시전체적 접근 (Whole-City-Approaches) 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도시의 주류 담론이 되게 하기





* Source: DCSF,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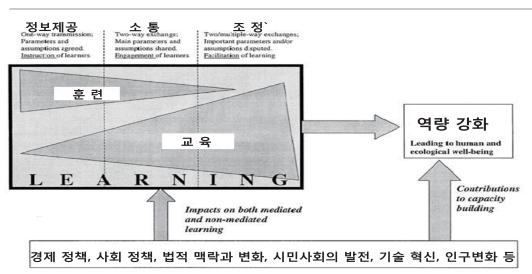
교육도시의 정책과 삶에의 SDGs의 통합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과 관련된 핵심 과정:
 - 협력(collaboration)과 대화(dialogue)의 과정
 - 전체 시스템(whole system)이 참여하는 과정
 - (교육과정과 교수방법과 관련한) 혁신적 과정
 - 능동적인 (참여적) 학습 과정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과정에서의 **학습** (learning): ESD의 실행에 참여한 학습자, 교사/지도자, 협력자, 지원자 등 모두가 경험하고 배운 바 의미. 지식, 가치, SD 관련 이론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도 중요

- 비판적/성찰적 질문을 하도록 학습
- 가치를 명료화하도록 학습
- 긍정적 미래를 조망하도록 학습
-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도록 학습
- 배운 것의 적용을 통한 학습
- 메군 것의 그용을 하는 기급 전통과 혁신 사이의 변증법적 탐색을 통한 학습 * Source : Tilbury, D. (2011)



교육도시의 정책과 삶에의 SDGs의 통합



NB.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pedagogy do not contribute to learning or capacity building if they are false, unders to the recipient, domineering or exploitative. Some learning

* Source : Scott & Gough (2003)

감사합니다.



•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이메일: sklee@cje.ac.kr)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Education Changes the City

이상국 Sangguk Lee

오산시 평생학습과장

Head of Lifelong Learning Department, Os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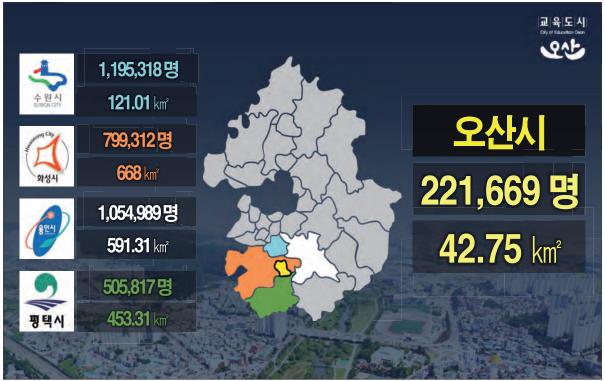






사례발표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Education Changes the City | Best Pract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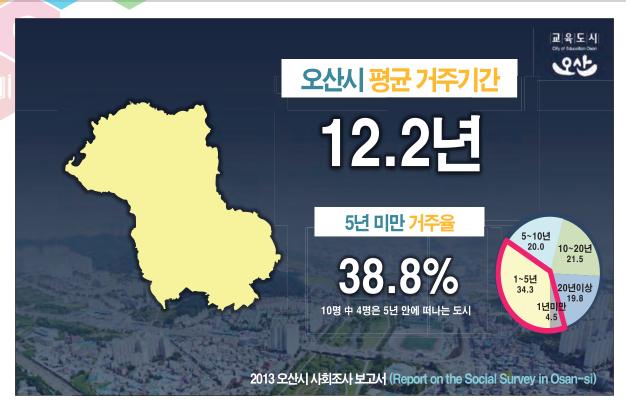








사례발표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





사례발표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









교육이도시를 바꾸다 Place				
43	92	235	6	
Since 2011	Since 2015	Since 2017	Since 2018	
시민참여학교	미리내일학교	징검다리교실 42.76 ㎞ 가장 넓은 학교	오산백년큐브	
초1-6학년 15,600명	중 1학년 2,600명	평생교육시민 21,870명	평생교육시민 8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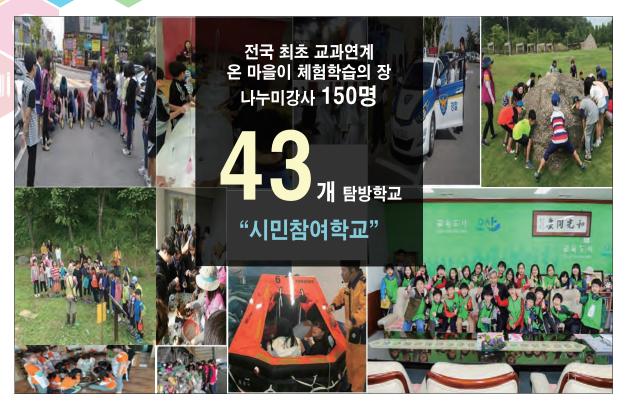








사례발표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Education Changes the City | Best Practices















사례발표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배움이 있는 교실!행복한 학교 문화!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공감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토론수업문화 활성화

- 배경 : 아이비리그 입학 한국인 75% 중도포기(자기표현 능력 결여)
- 현황: 토론교사 연구회 3개 70명, 토론동아리 34개교 42개 800여명
- 토론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 솔브릿지 국제대학과의 관학 협약(멘토지원): '13.4.16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국가기관)와 MOU: '13.10.1
 - 오산중학교와 관학협약: '15.7.14
- 토론리그, 토론축제, 토론캠프, 토론대회 등 각종 프로그램 진행



토론교사 연구모임



제1회 토론리그 개막식 (2012.5.19)



제7회 오산학생토론대회 (2018.11.24)



솔브릿지MOU(2013.4.16)



중앙선거방송토론위 MOU (2013.10.1)



Education Changes the City | Best Practices

배움이 있는 교실!행복한 학교 문화!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산 • 관 • 학 협력 고교연계 진로 프로그램 얼리버드 프로그램

(

얼리버드란?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남보다 먼저 자기의 진로를 개척 • 오산시 관내 6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특성화고 제외) 학생 중 희망자 대 상 • 11개 분야 분야별 30명(학기별 360명, 총 720명 참여) 2018년 (한성대학교) 11개분야 2019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1개분야 건축&인테리어, 경영, 경찰행정, 자동차공학, 식품공학, 영미문화학, 모집분야 보건의료, 실용음악, 심리, 문예창작, 소프트웨어학(컴퓨터공학), IT, 영상애니메이션, 요리, 스포츠과학, 방송스피치(아나운서), 유아교육, 진로설계 미술심리상담, 호텔경영, 애견행동, 진로설계 • 주말 이용 이론 + 체험 병행 (학기별 38시간) 수업과정

> 학교와 지역이란 선을 지우면 온 마을이 학교인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연계 창의체험, 오산시민참여학교

• 오산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업체험처

- 오산전역을 초등학생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 · 2011년 9개 탐방학교 → 2018년 43개 탐방학교, 1,469학급 운영

탐방학교 수	분 야	기 관 (탐방학교)
	역사(6)	고인돌, 궐리사, 독산성, 문헌서원, 유엔군초전기념관, 융건릉
	문화(5)	꿈두레도서관, 서랑문화마을, 생활예절, 인성학당, 장담그기
	생태, 환경(7)	수목원, 에코리움-맑음터공원, 연꽃단지-오산천, 필봉산, 에코센터, 자원재활용센터, 하수처리장
43개	행정, 안전(6)	오산시청 – 시의회, U-City통합운영센터, 경찰서, 소방서, 심폐소생센터,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	경제, 건강(4)	전통시장, 아모레퍼시픽, 서랑동문화마을, 보건소
	과학, 예술(7)	지구탐험, 창의맞춤, 나너우리, 문화공장, 도예체험, 미디어랩, 전통공예
	시민대상(8)	토요가족프로그램(4개), 또래끼리프로그램(4개)

- 학부모가 직접 탐방학교 운영, 학급당 연2회 운영, 학급별로 온라인 사전신청
- 나누미 강사: 139명

참여주체













사례발표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

학교와 지역이란 선을 지우면 온 마을이 학교인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미리내일학교

- (의미) "미리 내 일(job)을 체험한다" + (취지) "나의 미래를 미리 체험해보자"
- 오산시만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고민

- · 2015 개정 교육과정
- 진로탐색활동
- 교사의고민 (수업의 변화, 체험처 탐색)
- 다양한 체험처 기회 부족
- 자유학기제가 나이갈 방향

학교-체험처 연계

직업프로그램 개발

체험처 발굴

이동수단(택시306대)

학부모진로코치 양성

학교-체험처 연계

프로그램 운영

- 24개분야, 92개 체험처
- ・ 버스, 택시 수송
- (1단계) 사전수업
 - -학부모 진로코치와 탐색
- (2단계) 직업체험
 - 희망분야별 직업체험
- (3단계) 사후수업
 - 학부모진로코치 진로탐색

학교와 지역이란 선을 지우면 온 마을이 학교인 마을교육공동체

문화예술체육으로, 꿈꾸기

1인1악기 _____ (통기타)

- 초5.6학년

1인1체육 _____ (줄넘기)

- 중1학년

생존수영 -초3-4

- -중1
- -무지개수영

1인1뮤지컬 (뮤지컬)

- 중1학년







오산문화재단 (스쿨티켓(5,000원)









청소년기타오케스트라



(82개클럽, 1,030명)









Education Changes the City | Best Practices

(















사례발표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100세까지 평생배우고, 나누는 시민의 배움터 오산백년시민대학

주문하면 찾아가는, 배달강좌 런앤런

415명 600강좌 3,894명

2018년 런앤런 강사 수

런앤런 연간 강좌수

2018년 런앤런 학습자 수

5명 모여 희망강좌를 신청하면 전문성 있는 강사 배달하는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학습 소외계층(다문화·노인·군인·장애인 등) 및 학습 공동체(가족·임산부) 까지 확대





2019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2019.7.31)

100세까지 평생배우고, 나누는 시민의 배움터 오산백년시민대학

곳곳에 열리는, 학습살롱

63.5% 300강좌 1,879명

인문교양 · 시민참여 비율

학습살롱 연간 강좌수

2018년 학습살롱 학습자 수

시민 학습살롱 플래너가 직접 강좌를 기획-운영-평가 235개 징검다리교실 활용. 오산시 지역성을 담은 강좌를 기획하여 곳곳에서 운영

• 징검다리교실







100세까지 평생배우고, 나누는 시민의 배움터 오산백년시민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오산공작소

(

6개 캠퍼스 60강좌 2,053명

캠퍼스와 평생학습동아리 연계

오산공작소 연간 강좌수

2018년 오산공작소 학습자 수

일자리 창출·활동가 양성·봉사자 양성 등 지역사회 환원 기획(평생교육과+활용부서) → 운영(평생교육과) → 활동+동아리연계(지속적 학습)

• 어린이경제지도사 양성

• 동물매개활동가 양성

· 아동미술지도사 양성 · 공동체(아빠와 베란다 텃밭가꾸기) · 시민정원사 학습



100세까지 평생배우고, 나누는 시민의 배움터 오산백년시민대학

50세 이상 오산시민을 위한 제2의 인생학교, 느낌표학교

2년 4학기 장기과정

매년 7월 신규 수강생 모집

2019년 1기, 2기, 3기 운영증

리더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소양과정 나, 너 우리 지역 알아가기 교육

1학년

2학년

대학원

3개 학과에서 역량 강화 및 실전 교육

• 지역발전튜터학과, 지역발전퍼실리테이터학과, 사회적경제플랜학과

학습자가 직접 공동기획자로 참여 지역리더 · 볼론티어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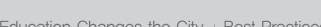




사례발표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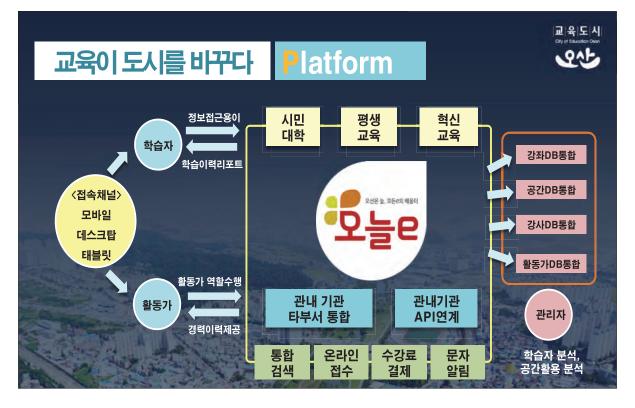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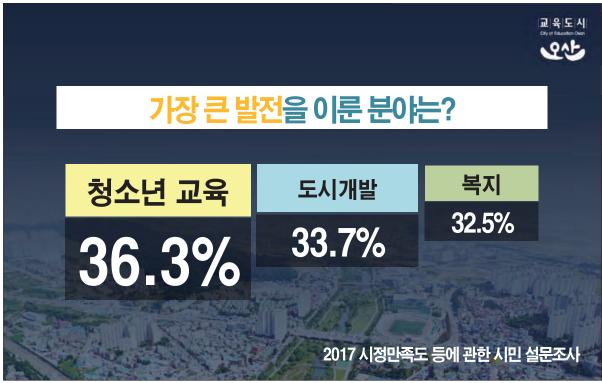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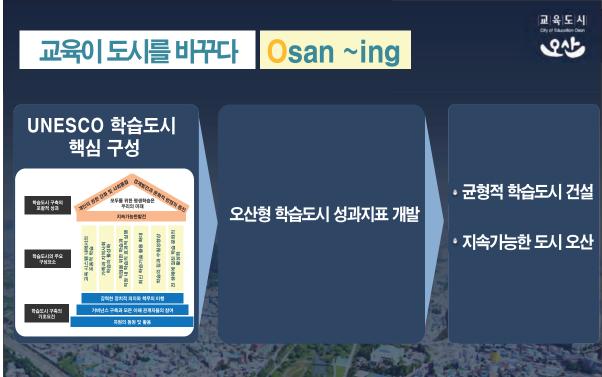
사례발표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Education Changes the City | Best Practices















사례발표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0 years

제현수 Hyounsoo Je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Direter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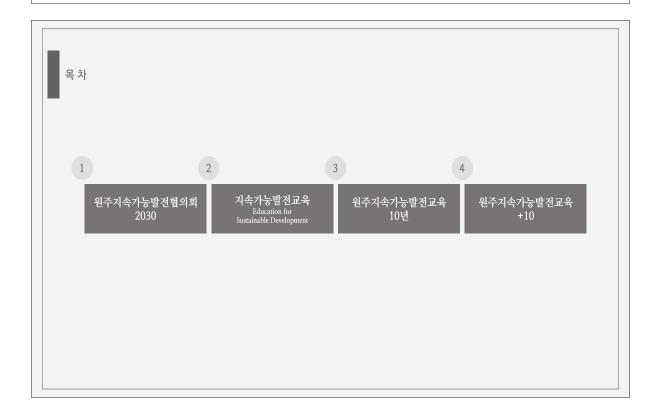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0 years | Best Practices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30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1 ~ 현재)



UN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 정신과 생명존중, 주민자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치의 실현,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에 목적이 있다.

















사례발표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



지속가능발전교육

1972년 UNCHE :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인식

1992년 UNCED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교육, 대중인식, 연구 등의 중진 필요성 강조

WSSD: 교육의 중요성 재확인,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DESD] 지정을 제안

2002년

UN총회: UN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채택

2005년 국가지속위: UN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마련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지속가능발전교육 이념 반영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세계회의 : 본(Bonn)선언 채택

2009년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9~2018) 추진

2014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램(GAP, 2015~2019)

Post-GAP :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램 2030 (GAP 2030) 2019년

[Global Action Programme 2030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chieving the SDGs]

5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핵심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모든 사람들(학생)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이선경 외, 2005)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가치, 실제를 교육과 학습의 모든 측면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개인이 인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경제적으로 성장가능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치, 능력,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UNESCO, 2005)

-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와 행동, 삶의 방식을 학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 갈등 등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해 나<u>가기 위한 교육</u>

(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0 years | Best Practices

(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10년'은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 오랜 논의의 결과물이자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으 로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중진과 행동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지속 가능발전의 주류화를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 과 이해 제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을 위한 인프 라 구축 (거버넌스, 선도 인력, 공간, 콘텐츠 등), 지 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안에 대한 솔루션으 로서의 기능 강화 등이 핵심 과제임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2009)

(

사업내용 : 정관 제4조

제4조 (사업) 법인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및 프로젝트 개발
- 2. 지속가능발전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 훈련사업
- 3.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 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국내. 외 지자체, NGO들간 정보교류
- 5.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방의제21의 각종 실천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활동
- 6.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



The 9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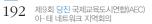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0 years | Best Practices



YOUTH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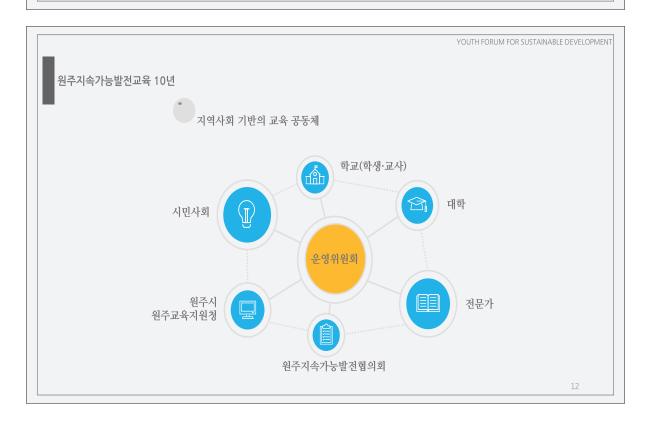
* *

청소년들에게 차별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교육 불평 등 요소 극복

" 자발성

학생 및 교사 그룹은 스스로 지역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조사 하는 참 여학습을 지향하며,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는 본 포럼의 목적과 취지를 공감하고 멘토로서 자발적 참여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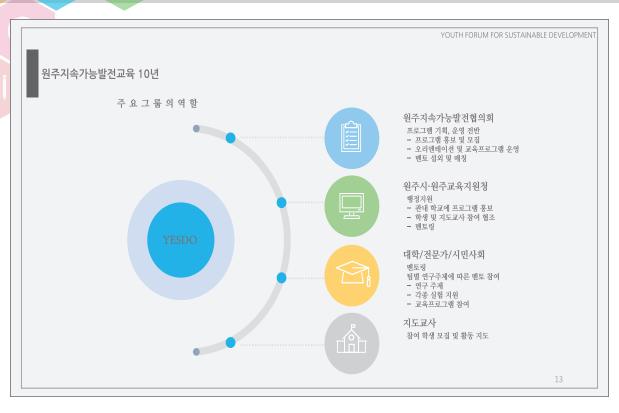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



(

				YOUTH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6T/19/10 2 C 2 4 10 C	3월	01	홍보 및 모집	
-	2 -		0~ ~~ 1	
	4월	02	오리엔테이션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4-语		2-16-11-16	주제선정방법
		03	연구주제선정	연구추진개요 작성 및 제출
		03	친구구세선경	한도로 한다. 한 시간 등 세계 전 기계 의 기
			7 -11 bl. sr	티네 시크구에 바로
		04	주제발표	팀별 연구주제 발표 주제 멘토링
				1,41 57 0
		05	멘토매칭	팀별 연구주제에 따른 전문가 멘토 매칭
	5월~10월	06	연구 추진	팀별 연구과제 추진
		07	특강	논문작성법/연구방법론/연구자 윤리
				ESD캠프
	7월	08	중간발표	팀별 연구 추진 내용 발표
				중간점검
	10월	09	논문 제출	팀별 연구결과 제출(초안)
	10 원	0)	_ L _ E	멘토링
	110]	40	ㅠ긔	선그 경희 바ェ 미 코 0
	11월	10	포럼	연구 결과 발표 및 공유
				14
				*1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0 years | Best Practices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YOUTH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사례발표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

YOUTH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2015. 원주시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식 차이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 (북원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은 숙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좌절과 갈등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불만족과 열등감 속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2015. 원주 인근 지역 내 멸종위기 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실태조사 및 인식증진 방안 (강원과학고)

"설문조사 결과 원주지역 청소년들의 멸종위기 종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 멸종위기 종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이들의 서식지를 확대하고,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환경교육 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7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2015. 원주를 통해 알아보는 독도 문제와 한일관계 (치악고)

"일본의 주장은 해가 갈수록 점점 억지스러워 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에 대해 확고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식을 길러야 한다.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사교육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시각자료인 고문서를 적극 활용하여 기재하고…"

2016. 원주 지역 장애인 활동 개선 방안 연구 - 유니버셜 디자인을 중심으로 (상지여고, 북원여고, 삼육고)

"원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약 17,32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들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며……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였고, 이를 개선해 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0 years | Best Practices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2016. 원주시 학생들의 휴대폰 회수여부에 따른 자투리시간 활용방법 연구 (원주여고, 북원여고)

"이번 연구를 통해 휴대폰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 율적일지 조사하면서… 그리고 학부모의 관점에서 본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실태를 점검한 뒤 학생들이 생각한 것 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투리 시간 활용에 대한 여러 방안을… 더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게 할 수있다."

2016. 원주 청소년의 행복 결정 요인과 행복 지수증가를 위한 연구 (원주여고, 강원과학고)

" 사람들은 점점 남들보다 우월하기를 바라고 '최고'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하며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원주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는 조사하고 행복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2017. 공정한 사회 실현에서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적극적 우대 정책을 중심으로 (원주고)

"효율성과 형평성이 충돌되는 부분에서 정부가 사회적 소외계충 그리고 국민 전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중대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정책 과제와 방향이 되어야… 적극적 우 대정책으로부터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 형평성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 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경찰 업무의 과제에 관한 연구 (대성고, 대성중, 학성중)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사회 정착에 있어 경찰의 업무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원활하게 원주시에 정착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 융화하여 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례발표 |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2018. 원주시 고등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 개편 방안 탐구 (강원과학고)



2018. 자유학년제가 원주시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원주여고)

첫째, 진로탐색활동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둘째, 진로탐색활동을 다양하게 제공하였는가?

셋째, 진로탐색활동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제공하였는가?

"지역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스스로 편견 버리는 계기 됐죠"

청소년, 지역을 고민하다

유하편(여원이고 2) 양은 자난해 감 은 반 준구를 4만과 함께 팀을 구성했 다. 병원들은 새로운 현대의 취습이 다 한 호기십으로 거부감 없이 참여를 결정 했다. 이동은 '원주시 인문계 고등하고 와 독성화 고등학교의 인식 차이를 잃으 가게 하는 원인 을 주제로 연구했고, 지 난 포함에서 우수는본상을 수상했다. 팀 임들은 조사를 진행하여 가진 먼저 스스 일이 관건을 버린지 됐다고 있을 모았 다. 범위들을 만나 청소년 꼬만에 참여한 소리를 들어졌다.

▷ 유용량: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 를 제도되고 고민하면 중 우리 모두가 공 강하는 부분을 주제로 참하게 됐다. 특 160c 구성을 가세요 200개 있다. 역 신화교회에 대한 관련과 물지 않은 인익 이 왜 생기계 됐는지 의원이 됨이 주제로 인이 조사함 무현과 함께 진행할 부현 정의계 됐다. 철하는 다른 친구해과 임 조철되면서 인구를 바깥 수 있었다. 을 이루게 됐는데 지난의 연구를 진행하 는 과정에서 관신을 갖게 된 지역사회

> 문지야 포함을 통해 연구하기 전에 는 특성하고 회사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는 생성하고 생생하는 경우 등 이 있다. 는 연구가를 보고하는 보고가, 등 바꾸자를 받았다. 무슨 있는 기있다. 그는 이 등 전환기를 보면 있는 기있다. 그는 이 생산의 설년보건물을 밝힌 그녀는 기의 본 간회에서 자신의 급을 갖고 내용한 그를 보고 내용한 그 사람이 다른 주가에서 그 사람이는 지금에 하고 가는 경우 함께 보다는 것이 다른 주가에서 그 사람이는 지금에 따라 가는 경우 함께 된 생산의 것이 다시 것이 살아보고 안 다른 것을 받으면 모든 함께 같아 나를 받으면 하고 있다. 기를 받는 것을 받은 모든 함께 보다는 것을 받으면 모든 함께 보다는 것을 받은 모든 함께 보다는 것을 받은 모든 함께 보다는 것을 받은 것을 받는 것을 받은 것을 받은 것을 받은 것을 받은 것을 받는 것을 받으면 같을 같을 받으면 같은 것을 받으면 같을 받으면 같을 받으면 같은 것을 받으면 같을 받으면 같을 받으면 같은 것을 받으면 같은

있는 제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유서영: 교등학생 때 논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전 교용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하하고 품꼽하게 배우긴 이리원에 품 은 경찰이 됐다. 하고 수업 등 교고를 소 회하느라 여가 시간이 부탁했다고 같이 모이기가 아래의 처음이는 그런 체랑이 30있다. 김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서 모델링이 참가기도 했다. 그러나 개 문제를 갖고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

원기됐다. 김 여구의은 의주지역 명류의

보기보다, 김 아무역은 연구자이 발등이 가는 및 상대원로, 인수전에 대해 인구 한 기계 팀이 먼트로 활용했다. 연구가인 환연 박원이에 마고하 가지 않는 무료를 위해 발생된 강하게 가는 현장 당사를 들어 다니까 지도하고, 인구를 모였다. 자신의 것은 단사기를 받는데도, 시시되고 영소가 원생들 시작이 작사는 이 전에 모든데 및 유민들은 아이지 있는데 있는데 된 등에 들어나면 되었다. 이 있는데 된 이 기계의 하나 되었다. 이 기계의 하나 되었다고 하나 되었다. 이 기계의 하나 되었다고 있다고 있는데 보이는데 된 이 기계의 하나 되었다. 김 이 기계의 하나 사람이 되었다. 집 이 기계의 하나 사람이 되었다.

| 지역시회 의제, 갈등문제 조사·연구하며 대안 찾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 길러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리 이 대해 고민하게 됐고, 결속하을 갖게 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또 원 연구를 도와주신 교수님, 장막시님

인이 조사함 부탁다 함께 전해할 부탁을 이 그들이가 많은 도양이 될 것이라 된 호형되면서 인구별 마침 수 있었다. 전체 전환을 설명하는 김 인구원은 "우리시치가 중소난 때 사원적 가리, 감은 판매이 대한 관산 및

사회의 가세, 설등 문제에 대한 편한 옷 고 해결용인을 생각해보지 못됐기 때문 에 문제해결 능력이 됐어지는 경향이 있 다"며 "아이들이 지역에 면제를 고집어 내 조사하고, 대인을 제시한다는 것은 접 공부하였다. 네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접극 문제하게 늘려올 찾아가는 것이다 고 설립했다. 이어 "엔모라는 게 지식 일부를 아이끌어게 알려주는 것이지 별 다른 게 아니다. 지역이 있는 어른이라 면 하여 하는 일"이라며 "지역의 많은 전문기들이 자위되시로 참여했주길 비

(

뿐이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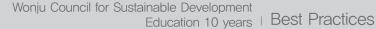
인문계고교와 특성하고교에 대한 인식차이를 연구한 복원여자고등하고 2하낸 학생 등 왼쪽부터 신진권, 용지야, 유하라, 유서영, 미지우양,



(김남성(뭣용 오른쪽 두번째) 연구왕과 '원주지에 일종위기종'에 대해 연구한 강당과 학교 팀원들은 지난해 음료서국립연구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소년보급 연토 그룹
지원에 인소한 교수, 제용사 상
지급 교수, 자연인 인소한 교수, 지용사 상
지급 교수, 자연인 인소한 교수, 지원
당하 기반병하려고하는 기반 는 부탁가는 자연인 인소한 교수, 지원
당하 이상은 이상은 이상에 가는 이상 인상에 교수, 지원의 전
강해 전염도본구교회의원정 경역
사원







"지역 청소년 인재로 키우자" 전문가들 재능기부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지역이 학교다'

포럼)은 '지역이 학교다'라는 케치프레이 즈를 내걸고 지난해 하반기 제1기 운영을 시작됐다. 팀을 이룬 청소년들은 관심 있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주제로 설정해 안 구·조사하고 이후 논문을 작성한다. 이 패정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돕는 '앤 로'는 온전히 자원병사로 참여하는 지역 사회 다양한 분이의 전문가들이다. 청소 년들에게 지역이 교육 현장이 되고, 지역 의 전문가들이 연토로 지원하는 최소년포 램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이라?

에게 지역사회가 또 하나의 열린 하고로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적인 하습기회 클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완주지속 가난병자원의원(이장 지속의)의 위주시 전청소년포럼 운영위원회가 공통 주최하고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이라 청소년 캠리)은 "지역이 학교다"라는 케치프라이 사망해 및 논문자상법 등 모든 참가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공동교육을 통해 진행한다. 장가진의 연구를 가져 각 팀은 논문을 집필 하고, 지속가능해진청소년포함을 개최해 발표한 뒤 논문점을 제지한다.

지난데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간 원주지역 중·고등학상 3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18개 팀이 논문을 발표했다. 지속 위는 그 결과율을 위은 '지속가능률현영소 년포함 논문집 에스 두(YESDO)!'를 받 간했다. 올에까지 연구를 아이가는 팀을 포 함께 지난당 33개 팀이 제2기 청소년모립 활동을 시작했다. 면토 그렇에는 현재 13 정소년 포검은 하고교육과 지역사회의 긴 명의 전문가가 자편됩시로 참여하고 있으 명한 언제를 통한 참력을 개반으로 청소년 여, 이지 펜보를 연결 받지 못한 팀이 있어 멘토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청소년, 지역사회로 한 발짝



고, 연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지역에 관심 을 갖게 된다. 그러한 관심의 시작은 청소 년들로 하여금 자여시를 구성된이라는 주

◇제2기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함에는 33개 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가 13명이 먼토로 훌륭하고 있다.

한 대한과 해완병안을 찾아가는 것이며, 양 전환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먼저 용소년들 집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자역 안재를 양성 은 우리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고만하 용산보편의 용산하는 지역사회 라는 발 뿐이다면 전망가 있던데 구축하지 가능 키워드가 있다. 지역사회의 지속자원성을 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많은 예산 연두하고 각각이 많이 우리 지역의 사회. 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특히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한다는 참에서 교육 발흥등을 해소하고, 지 역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교육 행광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재현수 지속위 사무 전용소심보험 200억용화가 공통 주회하고 자기 점이 가르고 자마스 사회, 함께 보고 자마스 사회, 함께 보고 자마스 사회, 함께 보고 자마스 사회, 함께 지하의 전문가받아 자원하는 중이 전문가 지하여 자 자신의 자리를 중인한 후이는 자리에 의 인간하나, 의료에 자리가 기원하는 중이는 지하여 자신의 자리를 중인한 후이는 자리에 의 인간하나, 기료에 자꾸가 기원 의 인강하나, 기료에 자꾸가 기원 이 인강하나, 기료에 자꾸가 기원 의 인강하나, 기료에 자꾸가 기원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목표이자 도구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솔루션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 증진과 행동 촉진, 시민참여의 확장과 조직화, 파트너 확대, 정책 생산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사례발표 |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



①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항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자를 찾아라!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포스트

근로계약서 쓰기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래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미바지하도록 필요한 사

(제정) 2016.06.03 조례 제1527호

"근로계약서로 알아보는 우리 권리"

잘못된 근로계약서 예시로 배우는 우리의 권리

최저임금과 연장, 야간 및 휴일노동시 임금계산방법 근로시간과 임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제풀이

산재 그림 찾기

"일하다 다쳤어요"

산업재해란 바로 알기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인격과 성희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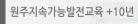
청소년 노동현장에서 있을 인격무시와 하대, 성희롱 대처방안

청소년 노동 인권 퀴즈

OX퀴즈로 알아보는 노동 인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소년 노동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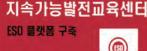














대한민국 SDGs 이행을 위한 교육 10년 제안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0 years | Best Practices

(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역량 (UNESCO, 2017)

핵심 역량	પ ાક			
시스템 사고 역량	관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서 다른 영역과 규모에 안착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며, 봉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예측 역량	가능하고 개면성이 있으며 바람직한 다양한 미래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미래를 위한 자신의 비전을 창출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을 걱용하고,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며, 위험과 변화를 다볼 수 있는 능력			
규범적 역량	행동의 근간에 있는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고 성찰하며, 이해관계의 갈등과 성충관계, 불확실한 지식과 모순이라는 맥락에서 지속가능성 가치, 원칙, 목표, 세부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			
전략적 역량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진척시키는 혁신적인 활동을 집합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하는 능력			
협력 역량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 관점,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며(감정이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며(감정이임적 리다실), 집단에서의 갈등을 처리하고,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역량	규범, 실천,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가치, 인지, 행동을 성찰하며, 지속가능성 담본에서 임장을 갖는 능력			
자아인식 역량	지역 공동체와 (글로벌)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신의 감정과 육망을 다루는 능력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	복잡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상이한 문제해결 등을 적용하고, 위에서 언급한 능력을 통합하며 지속가능발전을 강려하는 생생하고 포용적이며 공평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포괄적 능력			

2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육 영역의 지향점으로서 주제 교육 목록 (UNESCO, 2012)

안전교육, 흡연교육, 비폭력교육, 생물다양성교육, 인성교육, 시민교육, 공동체 연구, 컴퓨터연구, 갈 등해결교육, 절약교육, 소비자교육, 산학협동교육, 약물오남용예방교육, 개발교육, 재해예방교육, 지 진교육, 경제교육, 국제이해교육, 에너지교육, 기업가정신교육, 환경교육, 평등교육, 체험교육, 가족 연구, 미래교육, 젠더교육, 국제교육, 문화유산교육, 에이지교육, 홀로코스트교육, 인권교육, 원주민 교육, 국제연구, 리더십교육, 생활기술교육, 미디어교육, 다문화교육, 자연연구, 영양교육, 야외교육, 평화교육, 연구경작문화교육, 인구교육, 재활용교육, 종교교육, 자기연상교육, 성교육, 체계적 사고 교육, 쓰나미교육, 가치교육, 직업교육, 물교육, 여성교육, 작업공간교육, 세계연구















사례발표 |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세계교육회의 2018 브뤼셀 선언 (Global Education Meeting 2018 - Brussels Declaration)

(

7.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가속화 된 기술 혁신은 교육 및 훈련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 발전,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지원을 다짐한다. 또한 교육기관은 아동, 청년, 성인 학습자에게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활동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 연령별 종합적인 성교육, 체육 및 스포츠, 모국어 교육, 평화 및 비폭력, 세계시민의식과 적극적 참여, 문화다양성 존중, 다언어주의, 문화 간 대화, 연대감, 그리고보다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교육 증진 노력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학, 교육과정, 교수 및 학습 자료, 평가, 초기 교사 훈련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어느 방안을 선호하는가?

그 방안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가?

혜택은 형평성있게 배분되는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가 혜택과 책임을 고루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사실" 과 "주장", "전후" 와 "인과" 관계를 구분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가?

나에게 닥친 불합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조건과 방법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의 사결정 과정과 행동 방식 등 지역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며, 또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이다.

(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0 years | Best Practices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의 강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는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권리이자 의무 국가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기술의 실효성 한계, 상향식 접근 · 거버넌스가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다양한 역할 분담 주체 필요 국가주도의 정책 실패가 증가할수록 시민의 역할 증대 기술이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더 스마트함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실행 방안 - 지역사회 기반 리빙랩(Living Lab)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기술 및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 (윌리엄 미젤, 2004) 사용자의 수요와 참여를 기반으로 혁신활동이 이뤄지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 플랫폼' 리빙랩의 철학, 일상 생활환경에서 사용자가 주도하고, 전문가가 지원하여 정책과 기술을 혁신해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 리빙랩의 핵심, 1)사용자 주도, 2) 실생활 기반, 3) 혁신의 공동창출, 4) 모니터링과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인 개선 과정













사례발표 |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우리는 2030년까지 우리의 세계를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의제를 달성하고 활용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W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0 years | Best Practices













생물 지역 ESD 모델 및 SDG

The Bioregional ESD Model and SDGs

후루사와 리에타 Reita Furusawa

추부대학교 추부지속가능발전센터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Chubu University & Chubu RCE













생물 지역 ESD 모델 및 SDG

(

본 발표는 일본 내 여러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이하 ESD) 네트워크의 도전 과제에 대한 사례 보고다. 중부 지역전문가센터(이하 RCE)는 ESD에 관한 166개 지역전문가센터 중 하나로, 2008년 교육 기관, 비영리기구(NGOS), 지방 정부, 공사 등과 함께 설립되었다. 현재 일본 중부 지역 내 78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부 RCE의 목표 지역은 하천 유역과 미카와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의 분수령(아이치 현, 기후 시, 미에 현)이다. 중부 RCE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방해가 되는 지역 및 전세계 환경,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생태 지역적 ESD' 프로젝트는 생태계와 천연 자원의 근간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현상에 관한 방안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부 RCE는 생태 지역인 미카와 만 분수령에서 ESD 활동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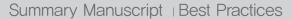
'미카와 만 분수령 ESD 세미나'는 미카와 만으로 흐르는 12개 주요 하천 유역의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교육을 향상하고자 진행되었다. 비영리기구(NGOs), 사기업, 학교 등의 지역 이해관계자와 함께 강의 상류, 중류, 하류에서 발생하는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100개 워크숍 및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중부 RCE는 비정규□비공식 교육과 더불어 공식 교육 기관에서 ESD 활동을 통해 생태 지역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대한 감수성을 배양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완화할 수 있는 인력 개발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을 창설했다. 생태 지역을 토대로 한 ESD는 중부 지역의 정규 교육과 비정규□ 비공식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게다가 아이치 현 나고야 시를 비롯한 중부 지역 ESD 이해 관계자들이 ESD에 관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ESD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ESD에 관한 유네스코 국제회의 이후 아이치 현 교육 위원회는 중부 RCE 회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 net)를 지원하는 위원회를 설립했다.

행정 구역 내 지역적 관리뿐 아니라 생태학적 경계를 아우르는 문제 해결은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필수적이다. 중부 RCE는 센터 목표의 일환으로 글로벌 자연 환경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을 위해 생태 지역을 구성 단위로 활용하는 혁신적 ESD 모델을 내놓았다. 생태 지역 ESD 모델은 일본은 물론 전세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하천 유역에 적용했지만, 작은 섬에 적용한다면 섬 자체를 하나의 생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건조한 지역에서는 사막과 오아시스가 지역 생태계를 형성한다.







The Bioregional ESD Model and SDGs

This presentation is a case report of the challenge of establishing a multi-stakeholder ESD network in Japan. RCE Chubu, one of 166 Regional Centres of Expertise on ESD, was established in 2008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NGOs, local governments, corporations, etc. Currently it consists of 78 organizations in the central area (Chubu Area) of Japan. The targeted area of RCE Chubu covers river basins and, watersheds of rivers that pour into Ise and Mikawa Bay, called the Ise-Mikawa Bay Watershed (Aichi, Gifu and Mie Prefecture). The objective of RCE Chubu is to develop human resources that can solve both local and global challenges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at are obstacl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ur project of "Bioregional ESD" is based on the idea that socio-cultural and economical phenomena in the community rest on a foundation of ecosystems and natural resources. Therefore, RCE Chubu has been conducting ESD activities in a "bioregion", called Ise-Mikawa Bay Watershed.

"Ise-Mikawa Bay Watershed ESD Seminar Series" were carried out to enhance the learning towards resolution of local challenges in 12 major river basins that flowing into Ise-Mikawa Bay. Local challenges at upstream, midstream and downstream, were chosen and workshops were conducted at the sites (100 workshops and seminor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stakeholders such as NGOs, private companies, and schools.

In addition to non-formal/in-formal education, in the formal educational institutions, through RCE Chubu's ESD activities, we have nurtured a sensibility for increasing sustainability of a bioregion, and construct an educational curriculum which aims to develop human resources who can understand and mitigate both local and global issues. Therefore, the bioregion based ESD practice is working effectively in the transformations of both formal and non-formal/informal education in our region.

Moreover, the opportunities for ESD stakeholders in Chubu area including Aichi-Nagoya, to participate in the UNESCO World Conference on ESD was one of key occasions to learn more about ESD. After the World Conference, Aichi Prefectural Board of Education established a committee to support ASPnet Schools in collaboration with RCE Chubu members.

In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society, not only regional management within administrative district but also problem solution covering ecological boundary is vital. RCE Chubu came out with innovative ESD Model that uses Bioregion as a unit towards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ncludes study of global na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diversity as one of its objectives. Bioregion ESD Model is not only suitable for Japan but can also be applied in other part of the world. In our case it is river basins, however if it is to be applied in a small island, the island itself act as a Bioregion; and in the case of arid region, desert and oasis shape the ecology of the region.













사례발표 I 생물 지역 ESD 모델 및 SDG

2019 The 9th IAEC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Meeting

Dangjin City, Republic of Korea 17-18, October 2019

The Bioregional ESD Model and SDGs

- Local Challenges in Ise-Mikawa Bay Watershed -





Reita Furusawa

- Coordinator, RCE Chubu
- Associate Professor, Chubu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International ESD Center, Chubu University

Three basic directions of Japan's SDGs Model

(1) Promotion of Society 5.0 that corresponds to SDGs

Fully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Charter of Corporate Behaviors by the Japan Business Federation (Keidanren) that commits to the SDGs through promoting the Society 5.0.

e.g:

- Promote Society 5.0 and "Productivity Revolution" (that tries to materialize Society 5.0 with IoT, Big Data and AI) in order to respond to any challenges related to the SDGs.
- By mid-2018, will come up with concrete measures to support private companies who engage in the SDGs not
 only as a part of its CSR activities but also as its core business strategy. (e.g.: launching an initiative to promote
 the SDGs management including newly creating support for start-ups and drafting an international roadmap to
 promote "STI for the SDGs")

(2) Regional vitalization driven by the SDGs

Promote the SDGs in local areas making the most of their unique needs and strengths, and thereby vitalize local areas and create resilient, environmental-friendly and attractive communities.

e.g:

- Newly create a project "SDGs Model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which the entire central
 government will intensively support selected local governments in their SDGs implementation, and
 then expand success and lessons learnt to other local governments.
- Raise awareness towards the SDGs and promote its implementation through preparing for the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and bidding for 2025 Expo.

(3) Empower next generations and women

Empower next generations who have rich creative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women who are the SDGs goal.

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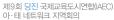
- Promote steadily the "work-style reform," women's active role and "a revolution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ll of which are the priority agenda for the Abe Administration.
- Foster next-generation leaders for implementing the SDGs through education.
- Based o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major areas of the SDGs such as health (includ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which Japan takes initiative in) as well as gender, educ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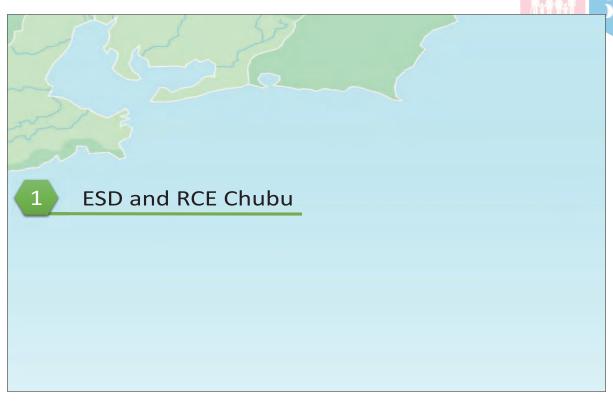








The Bioregional ESD Model and SDGs | Best Practices













①





사례발표 I 생물 지역 ESD 모델 및 SDG



(

RCE Chubu Network

RCE Chubu Council (77 organizations)

Universites

Universites
Aichi Gakuiu University
Aichi Prefectural University
Chubu University
Nagoya Institute of Technology
Nagoya City University
Nagoya University
Nagoya University
Nihon Fukushi University
Meijo University
Mie University
Mie University

High and Junior High Schools

Chubu University Daiichi High Schoo Haruhigaoka High School Haruhigaoka Junior High School

Research Institutes

San-En-Nanshin Center for Regional Collaboration, Aichi University National Institute for Fusion science Kinsyozan Fossii Association Fossii Association Association of Ise Mikawa bay basins studies Chubu University Association of Multi-cultural and Gender equality studies Chubu University

Key Institution (Secretariat)

Chubu University International ESD Cente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ichi Prefectural Government Gifu Prefectural Government Mie Prefecture

Mie Prefecture
Kasugai City
Nagoya City Hal
Chubu Regional Environment Office
Chubu Bureau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Chubu District Transport Bureau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Chubu Regional Bureau,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
Tokai Regional Agricultural Administration Off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nvironmental Partnership Office Chubu
Nagoya Open university of the Environment

NGOs and NPOs

Children's Club for Love The Earth EXPO 2005 Volunteer Center Ai-Chikyu Platform ASK-NET IseMikawa.net Eco-Design Forum for Civic Society Eco Platform TOK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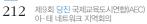
Kachigawa-Ekimae Shopping Street
Promotion Association
Citizens Environmental Foundation
Gifu NPO Center
Gifu Industrial Hemp Association
International Green Citizen Association
(IGCA)
Alaska, its spirits and Michio Hoshino
Support Center for Sustainable Regional
Design Design DEE21(Digital Economy & Enterprise for

(

DEE21(Digital Economy & Enterprise for the 21st. Century)
Nagoya International Center
Nagoya UNESCO
Nissin Nature Observation Association
Japan Oldest Stone Museum
Nature Club Tokai
Fujimae Ramsar Society
Yamazakigawa River Green Map
Chubu ESD-RCE Promotion Network
(CERPN)

Private Companies and Economic Organiz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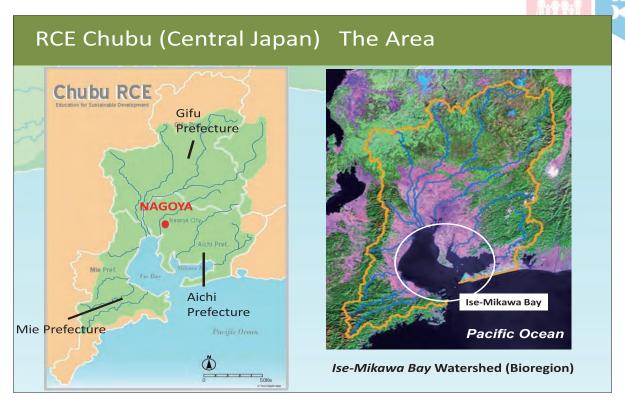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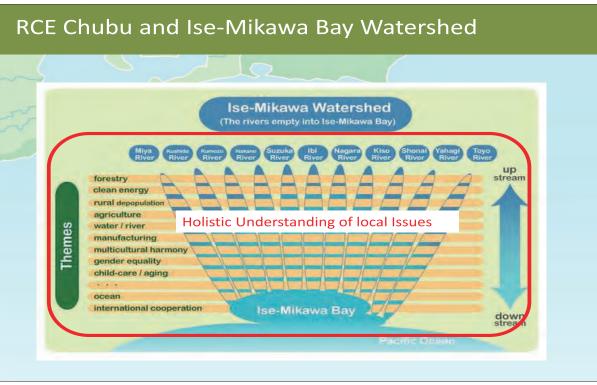






The Bioregional ESD Model and SDGs | Best Pract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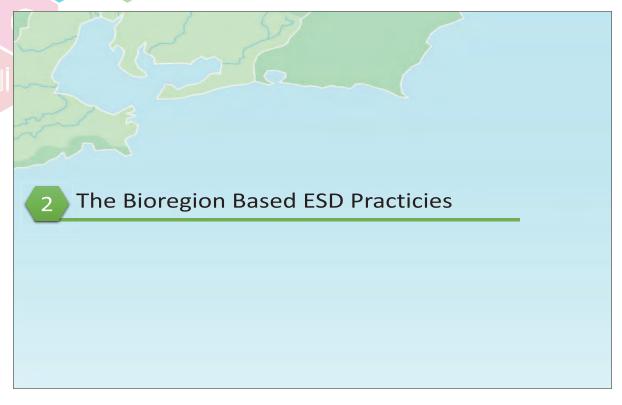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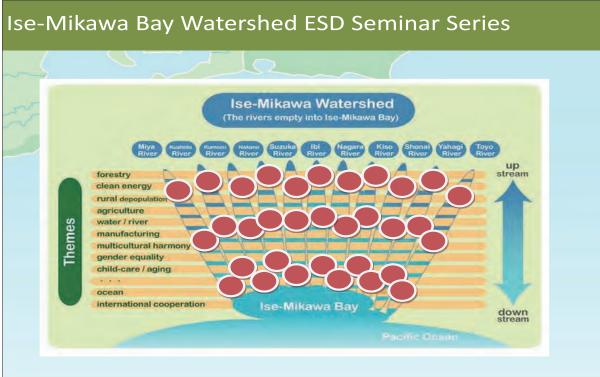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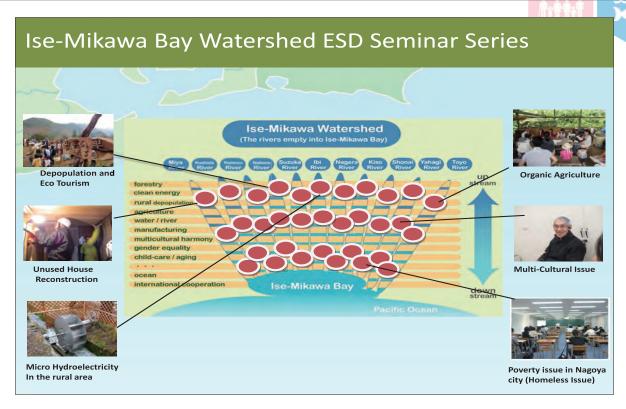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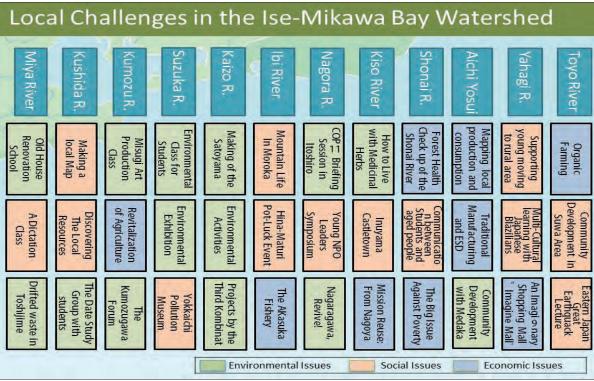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생물 지역 ESD 모델 및 SD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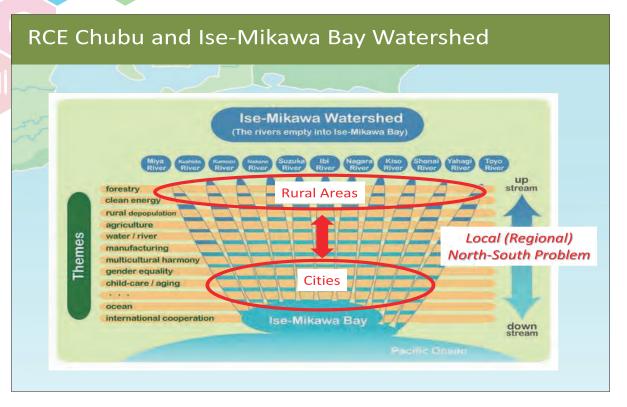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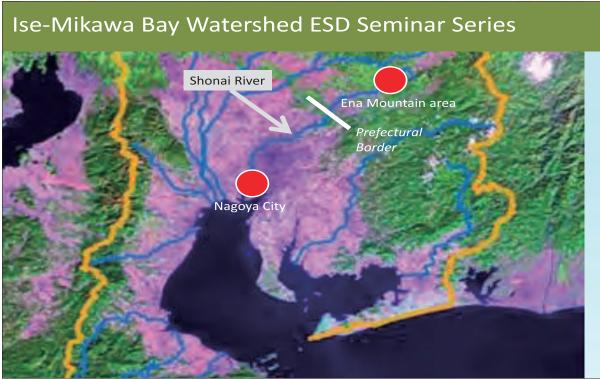






사례발표 I 생물 지역 ESD 모델 및 SDG







Ise-Mikawa Bay Watershed ESD Seminar Series

Nagoya city's DRR (down stream) and forest management (Up stream)

- Tokai Flood in Nagoya City (2000)
- Artificial Forest Issue in Japan (40% of total forests are planted forests)
- Un-use of planted trees





【Shonai River –Up-stream】

Planted Forest Issue: the Forest Health check Project

Location: Ena City, Gifu Prefecture

Partner: Chubu University, Yudachiyama Shinrinjyuku (NGO), etc.

Scientific Research on the situation of artificial (Planted) forest in Ena Area



















사례발표 | 생물 지역 ESD 모델 및 SDG

(Shonai River –Up-stream) Forest health check and uses of timbers

Tree Station Project (NGOs and local municipalities)

- Buying and using timbers for a firewood boiler at ONSEN (from fossil fuel to fire woods)
- Buying timbers at the Tree St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Currency.









The Bioregional ESD Model and SDGs | Best Practices

ESD "Aichi-Nagoya Declaration" (2014) 3 outcomes (unofficial)

Adopted by UNESCO member states at the World Conference on ESD

- 1. Reconfirmation of the Objectives of ESD
- 1 Competencies: (Para 8) critical thinking, system thinking, analytical problem-solving, etc.
- 2 Approach: (para 9)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those most vulnerable such a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 3 Focus: (para 10)cultural diversity, 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and indigenous wisdom and practices, and universal principles such a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 2. Launching of the Post D-ESD Activity by UNESCO (para 11-16) Global Action Program (GAP) ~ 2019
- 3. Input of ESD into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ara 15) Reflect and strengthen ESD in SDGs







RCE Chubu's Projects in the Global Action Program(GAP)

5 Priority Areas of ESD Global Action Program (GAP) by UNESCO, 2014-2019

1	2	3	4	5				
Advancing policy	learning and training environments	Building capacities of educators and trainers	Empowering and mobilizing youth	Accelerating sustainable solutions at loca level				
RCE Chubu "SD Policy Maker Educational Program" Advocacy activity (Local & Global)	Interdisciplina ry courses in universities, ■Inter-subject curricula in formal school education in Chubu region	■ ASPNet School Teacher Training Program (Chubu U.) ■ Workshops with the Aichi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 Credit transfer system with the Aichi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50 Univs.) ■ Supporting 160 ASPNet Schools network	■ Developing bioregional ESD model ■ Conducting the Bioregion Traditional Knowledge ESD Project				

















사례발표 | 생물 지역 ESD 모델 및 SDG

[Advancing policy] ① Chubu SD Policy Maker Education Project

Chubu SD Policy Maker Program (CSSP: The Chubu School of Sustainability Policy)
Objective: To educate young policy makers and the stakeholders to have
knowledge and skills of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ir communities
Supported by: Japan Fund for Global Environment





ESD Watershed Traditional Knowledge Project

Implementation of ESD-TK Project

- Ise-Mikawa Bay Watershed ESD-TK Database
- ESD-TK Workshops (①Inter and ② Intra River Basin,③ Inter Thematic Workshops)
- ESD-TK Forum



		Taperstreem		Videbreen		Familian
Topoloma filmer	0	Prodice Approach to Look decouper use and Understage Towards in the Forestry Industry	0	Disenting Organic Fundang for this Openitorals with Office Transact	0	Production of the production of the last o
22		John Tarker (Street-New In- New 16 (see Mour cent, Yorigine)	(1)	Society of Cyl Scatteron with finance Using the Blocker of Cost Charge		British meetal Some opion through the Western of Soni-State
			0	Condo Spirong on a flay in Fadeo on Chilling Stutue and Bod consolal Forestellar	a	Chance to "leave of the" with Residue Hilling Well
Aichi Canel	0	for part for producing "to-covers' which is record as the traditional form or Dynam Abdits	19	Harding the familiarium particularial and final sales 7 and though proposition	æ	Commission of the Manne Cation and Environment of Millian Cation Cat
Tubi Burai Star	- 4	Accounting the region or the strong	ф	Private lang file Private contracted in facilities of the Private Contact the change of the Private Stand Standard Acts Cape 2000.		Proc tractions () models from in Practicals Total Plants
	Ĭ	and the same of th	0	Conservation and at limited of framework private		
Histor	.0	The middleten employee the stops	-8	Flaguered Villamorous and the Francisco of the Department Flational (A Int Sciool ferrange) in College Merclage (- 97	Franchistant fisher of Naco Franchista Walter of Tourse
Plagare Niver	12	Developing startefully a tegory Brocks; state the "Makers of Islama.		Playand off as and assument to said hearing Unit	5	Lauring Disserve Phalacterised Whendurjus Corocles Michigan 1944
To films	0	The life in the coursephics through setting from the publish.	0	The tribut curtimi of fabric rise trup	0	Disking the others of 60 Place Jacquin family hard from a soloted to Funding with 15th
Kaine River	0	The master of transfer of many certs the septer through "carpts blanks."	0.	Fulton of Telefronsi Telefronsi Telefro Cartes 445 Michies Sension Sension	0	Autuming the region using medicine becomes of wealing
Suzuliu River	9	Devices the larger through, make conditions from space of the game.	9	Emperor publish of Encounty after approximately and Encounty after		Brown world having by theirly Commission of Steams and Commission
Plumenty ROver	6	earning the "Wissen of Ferminy" on Phenocine with the Water Course Fermi	10	Computer of the region of many the food market	.0	Acid and any one deposit of the harmonic land or
The Re	- 0	let une Brusslauerer bie med pagere er inn Makayama Mada	di	Criptical and the by seamen in Motiva looks in seem	0	Event, orgitise, it is were discontinuously the biodiscourse copieses
Myseumer Myser	0	Tuestice the reportants so have the trade to him.	10.	Mankey of Processors Recognitive Commission of Life (Magnitus Lipschool Philippen	0	Penang On Taoli Assess on Property acts Garman Lyang On og the Minding of Assess
	-	No.		water simulational least territories	0	Auritor:
	0	securities are times societies		Section (Section 2)		1
	Vis.	Arrest resolutions	4	(woodtoke) (tenito-		



ESD Watershed Traditional Knowledge Project

Using Traditional Knowledge of the Ise-Mikawa Bay Watershed for SD and ESD

- Necessities of life: I-SHOKU-JYU (衣·食·住) food, clothing and housing
- Natural Resources:
 Yama-Kawa-Umi(山・川・

 海) Forest, River, Sea
- Socio-Cultural TK:
 Festivals(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griculture,
 DRR













ESD Learning of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local materials based on rethinking of natural capital, cultural diversity, and biological capacity of our bioregion.

Challenges of the Bioregion Based ESD

Challenge: Liking the concept of Bioregion / Watershed with the local municipalities

(ie) The Municipalities' Network of the Kiso 3 River Bas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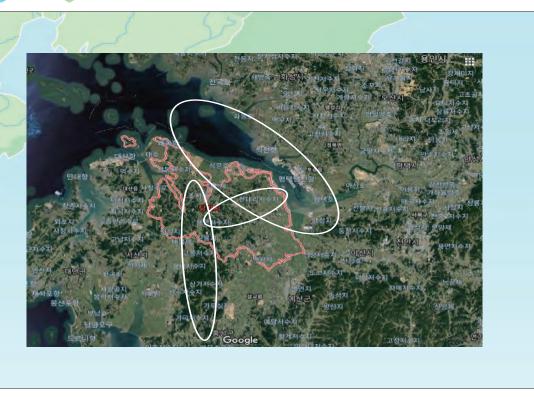








사례발표 | 생물 지역 ESD 모델 및 SDG





















바르셀로나 지속 가능한 학교

Barcelona Escoles + Sostenibles

나초 마르카더 Mercader Natxo

바르셀로나 시의회 환경교육평가사

Environmental Education Assessor, Barcelona City Council, Spain









사례발표 L 요약분



바르셀로나 지속 가능한 학교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1995년 올보르 헌장(the Aalborg Charter) 가입을 승인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속 가능 개발 원칙에 따른 것으로, 바르셀로나에 '지방의제21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광범 위한 협의를 진행한 후, 바르셀로나는 더 좋은 도시로의 목표와 행동 방향 정의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 는 문서인 '2002-2012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 결의'에 자체적으로 '의제21'을 규정했다. 10년 후, 이 문서 는 다양한 제시안을 통해 연대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강조할 만한 부분은 서명 협약과 연계 참여 과정, 지방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이다. 특히, 실무단이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와 리우+20결의안의 전략을 담 은 국제 참고 문헌으로, 강의 및 발표 시리즈인 '더 지속 가능한 바르셀로나로의 전환'을 반영한 '환경 및 지 속 가능성을 위한 시의회'에 이를 계획했다. 그 결과로 현재 바르셀로나의 미래에 기여하는 모든 시민 단체의 참여를 장려하는 '2012-2022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 결의'가 탄생했다.

학교를 바르셀로나 변화 동인으로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서 이 테두리 안에 서 2001년 '더 지속 가능한 학교(학교와 지속 가능, Escoles + Sostenibles)'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바르셀로 나 시의회는 도시 내 학교가 2019년 기준 358개교로 구성된 본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의 임무는 학교 팀을 지원하여 교육의 모든 영역에 지속 가능성 기준을 결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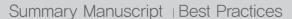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 센터는 교과 과정 프로젝트에 지속 가능성을 포함시키고, 자체 자원을 잘 관리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며,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지속 가능한 학교' 프로그램은 공통 프레임워크, 기술지원, 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 등 광범위하게 지원한다.

'더 지속 가능한 학교'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교육의 목적이란, 학생들이 자신이 자라고 자신의 행동을 이끌 어 줄 세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미래 시민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있다. 하는 방법, 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 인식의 전제에 따라 본 프 로그램은 학생들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으로 융합되고, 변화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는 데 필요 한 능력, 태도 및 지식 배양을 추구한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가 2015년에 수립되면서, 바르셀로나 시와 시 정책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채택 했다. '더 지속 가능한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할 것이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했으며,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시 의회는 1,100개의 CCS 서명 기관과 함께 도전적인 미래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다.

(





Barcelona Escoles + Sostenibles

Spain Barcelona City Council 1995 years Aalborg Charter (Is the Aalborg Charter) to join was approved. These decisions are sustainable can be developed on the principle according to, in Barcelona, the provincial 21 road map "for presenting for the first was the stage. Extensive consultation was conducted and then, Barcelona has more good in the city targets and action orientation in the definition for a wide range of support in the document '2002-2012 sustainability for civil commitment' on its own' Agenda 21' of said regulations. 10 years later, this document is a variety of eyes presented through solidarity of the agreements achieved. Emphasize enough parts signed the Convention in conjunction participation process, local strategic plans and programs is. In particular, working group the ICLEI (ICLEI) and Rio +20 of the resolution strategy that contains international reference in the literature, lectures, and published in the series 'more sustainable as possible in Barcelona to the switch' to reflect 'environmental and sustainability the possibility for Council" in this planned. As a result of a current of Barcelona in the future to contribute to all citizens of the organizations involved to promote '2012-2022 sustainability for civil commitment' that was born.

School Barcelona changes in driver awareness and education through continued possibility to contribute as a way the border in 2001 years, more sustainable as possible schools(schools with sustainability possible, Escoles Sostenibles +), the program made. Barcelona City Council is the city within the school 2019 years based on 358 as schools constructed present on the network to participate and encourage it. The program mission is the school team to support education all the region continued possibility of the criteria to combine the will.

This a program that involved training center curriculum courses on project sustainability the possibility to include, its resources well managed and, social atmosphere sikimyeo raising, the school no better a place to change for implementation of plans to establish. Such a goal to achieve for 'more sustainable as possible School' program is the common framework, technical assistance,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materials such as widely supported by all.

More sustainable as possible schools, the program defining training objectives is, students have their growing his behavior led line in the world for no good understanding may allow the necessary tools available and, actively in society to participate may in the future citizen making for a base Dodge to it. That way, that way, acting method of recognizing the premises in accordance with this program, students personal goals to achieve and, as a social being fused, the change actively the subject to be able you were, a new environmental adaptation and around the life over learning ability have be in a happy and healthy as adults grow to the necessary skills, attitudes and knowledge of the culture and pursue.

Continued possible development goals (SDGs) is 2015 the year as established, Barcelona city and when the policy a new framework was adopted. 'More sustainable as possible schools, also an exception not. The program is diverse and specific projects with sustainability can be developed to target and promote. Corresponding to the project for several different examples to explain it.

Current Barcelona weather emergency of the situation was declared, climate change fix for some kind of policy implementation being. City Council 1100 of CCS sign and institutions with a challenging future more better adapt to the Committee was established.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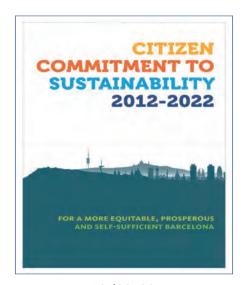
BARCELONA ESCOLES +SOSTENIBL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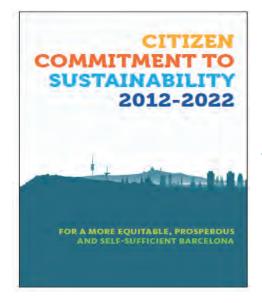
Rio'92+10 2002-2012



Rio'92+20 2012-2022



Barcelona Escoles + Sostenibles | Best Practices



- Biodiversity:
 from urban green areas to the renaturalisation of the city
- 2. Public space and mobility: from streets made for commuting to streets for living
- Environmental quality and health from standards to excellence
- 4. Efficient, productive and zero emission city: from the technological Barcelona to the smart Barcelona
- 5. Wise use of resources: from a consumer society to responsible consumption
- 6. Good governa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from sector-based intervention to effective coordination
- 7. People's welfare: from a welcoming city to a cohesive society
- 8. Progress and development: from concern for sustainability to a sustainabilitybased economy
- Education and citizen action: from raising awareness to duly informed joint responsibility
- 10. Resilience and global responsibility: from isolated responses to global action









229











The Citizen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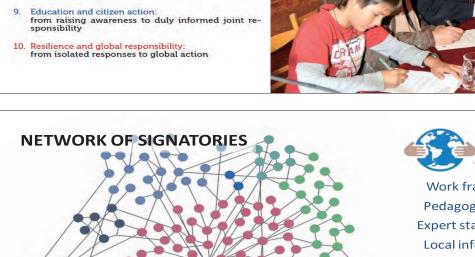
from urban green areas to the renaturalisation of the

- Public space and mobility: from streets made for commuting to streets for living
- Environmental quality and health from standards to excellence
- from the technological Barcelona to the smart
- from a consumer society to responsible consumption
- Good governa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from sector-based intervention to effective coordination
- People's welfare: from a welcoming city to a cohesive society
- Progress and development: from concern for sustainability to a sustainability-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institutions, companies, trade unions, universities, citizen organisations and schools







Work framework Pedagogical team **Expert staff support** Local information **Training seasons** Sharing experiences **Activities** Workshops **Echoing school actions** Guidelines Pedagogical resources















Barcelona Escoles + Sostenibles | Best Practices



Goals.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 Become involved in city affairs
- Sharing a learning process
- Improvements in the school environment
- Continuous training for schools heads and teachers

Curricular project



Resource management

Social climate



Improving environment

Schools

Vocational Training Centres

Kindergarden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

Special Education Schools

Adults Learning Centres

Specialized Schools















사례발표 | 바르셀로나 지속 가능한 학교









Barcelona Escoles + Sostenibles | Best Practices



Training programme with courses, seminars, talks, thematic sessions, workshops and exchange seasons. Visiting schools to support team leaders, students comitties and network meetings









































Expanding the knowledge of the importance of clean water through specialized training sessions, own published ecoaudit guides and solidary campaign of Marathon of Water









0

11







































Awaring school communities of the relevance of renewable energies: Let's join energies and Energy-3













ŔŧŦŧŔ

-₩**>**























Increasing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s and the stakeholders of community that are working towards the same goals. Barcelona + Sostenible assemble companies, associations, NGOs, guilds, small business and others organizations under the same family group

































Barcelona Escoles + Sostenibles | Best Practices



Raising awareness to prevent food waste in lunchrooms, to avoid the single-use wraps in breakfast time, to develop composter points and to design and implement a plan against waste generation



We eat everything (Ens ho mengem tot) Let's compost and learn (Compostem i aprenem) + Sustainable packaging (Embolcalls + Sostenibles) Plan for waste prevention (Pla de prevenció de residus)































Adapting and educating vulnerable schools to climate change with blue, green and traditional solutions, creating Climate **Shelters** for the community

















































Becoming familiar with coastal ecosystems and marine biodivesity through awareness campaigns and curriculum integration in the schools























































Enhancing knowledge about the urban biodiversity through green walls, vegetable gardens, buttlerfly gardens, insects shelters, school farms, ponds and nest boxes









































Barcelona Escoles + Sostenibles | Best Practices



Empowering the students to be citizens prepared to the future, reinforcing the role of the schools as a driving force of transformation of society



Empathy

Uncertainty

Alterity

Responsability

Resilience

Experiential

Decision-making power

Complexity view



ĤŧŦŦŧĦ

₫



₩)



Strenght (força)
Balance (equilibri)
Courage (valor)
Good Sense (seny)

Let's go to build a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le world together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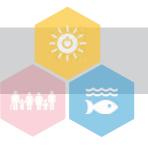


(

(











(

